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71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2월 17일(음력 11월 20일) 수요일(주간)

•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죽을 각오로 참선하면 깨달아"

14 선지식-법흥 스님



"소박한 삶이 문제해결 시작"

6 인터뷰-도법 스님



"부처님 뛰어 넘으세요"

13 함께가요 강의실-신규탁 교수



83년만에 대대적 수리 시작

5 현장속으로-다보탑 수리 보고회

'자비의 온도' 뜨겁다

경제 한파에도 불자들 기부는 증가

"이번 달부터 커피값을 아껴 후원금 5000원을 더 내겠습니다. 요즘 같을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말씀을 따라 보시하면서 살아야죠."

자녀들의 이름으로 10년째 남몰래 기부해오던 권미혜(47)씨는 올해 또한 구좌를 늘리기로 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남몰래 자비보시행을 펼치는 불자들의 소액기부는 오히려 늘어나 훈훈한 미소를 더한다.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는 올 연말연시 나눔캠페인 동안 기업 후원금인 '큰손'은 줄었지만 개인 소액 기부금인 '작은손'이 늘어 301억 96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나서 '작은손'에서 '큰손'까지 잇따르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기부활동이 저조할 것이라 예상하던 불교계 복지단체들은 기부증가에 IMF관리체제 당시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이타심을 떠올리며 반기고 있다.

조계종만 해도 개인기부금과 기업기부금이 모두 크게 늘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02-723-5101)은 개인기부금이 약 10%, 기업후원금이 약 87% 증가했다고 밝혔다. 범불교도대회 등으로 대내외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도 있지만, 난치병어린이 돕기 3000배 정근(1배 100원) 등 기획사업과 CMS 등 소액기부 홍보, 기업연계 강화가 있어 가능했다는게 관계자들 중론이다. 강규식 후원담당 주임은 "2009년에는 현재 진행중인 청소년 의지나눔Sharewill캠프 등을 통해 기업후원을 더욱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태종도 기업기부금이 크게 증가했다. 기부액 증가율은 2007년보다 약 60% 증가했다. 천태종복지재단(02-873-3405)이 2008년 4월 기업은행과 제휴해 신도증을 겸한 '천태자비카드'로 개인 및 기업기부를 유도한 영향이 컸다. 천태종 윤금선 후원홍보팀장은 "카드사용 적립액이 천태종 복지사업으로 활용되고, 기업은행도 사업영역을 넓혀 상부상조다. 올해 기업은행 측은 달력 등 홍보제작비 및 물품지원에 3억원 넘게 후원했다"고 밝혔다.

진각종은 개인기부가 줄어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진각복지재단(02-942-0144)의 복지사업후원결사조직 '만월회'가 큰 역할을 했다. 만월회는 재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1인당 1만원 모연운동을 펼치는 후원단체다. 먼저 가입한 회원이 다음 사람을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의 새로운 후원 문화를 개척했다. 진각복지재단 조경희 복지사는 "경제가 어려워져도 큰 변화가 없이 매달 1300여 만원이 모금되는 등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계 기부문화 정착에는 올해 9월 30일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02-737-9595)도 큰 힘을 보탰다. 창립 당시 각 사찰에서 5억여 원을 기부하는 등 현재 8억 1960만원의 기부금이 답도했다. 아름다운 동행 원석준 팀장은 "'아름다운 동행'은 불교TV 공익광고 등 홍보활동을 통해 사찰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자의 기부참가를 유도하고 이를 일선복지현장에 배분할 예정이다. 불교의 보시를 기부문화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기부 증가에도 아직 갈 길은 멀다. IMF관리체제 당시 후원금이 대폭 증가했지만, 그 이후 다시 줄어든 경험이 있다. 늘어난 후원금을 빈부격차와 소외계층 복지 등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해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제혜택을 중시하는 기부 변화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다 큰 세제혜택을 얻어내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국회 상정중인 복수의 공동모금단체를 두게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타종교나 NGO로 출발한 월드비전, 아름다운세상 등 단체는 40년 넘는 긴 역사를 바탕으로 연간 수백억단위 기부금을 모금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복지사업부장은 "기부와 복지 활성화에는 인프라, 프로그램, 후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불교계 기부시스템은 타종교에 비하면 역사가 짧다. 각 종단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JTS, 로터스월드,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많은 불교계 단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 이상언 기자



노인(老人)? 우리는 노인(璐人)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12월 10~11일 서울 사춤공연장 허리우드 클래식에서 'JTI와 함께 하는 2008 탑골대동제 열혈노인(璐人)'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 동아리, 문화교실, 탑골문화학교 참여 어르신 1000여 명은 진도북춤, 마술, 풍물놀이, 재활용 악기 즐기기 등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선보이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박재완 기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된다

강창일 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다. 하지만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소의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에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해 온 관행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여야 의원 13인은 12월 10일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강창일 의원(사진)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하기를 꺼리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해 선거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제278회 정기국회는 9일 회기가 마감돼, 이 법안개정안은 제279회 임시국회(기간은 12월 말까지 예상)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기자

동국대 '총장' 수난시대?

서울캠 오 총장 불신임·경주캠 총장 직선 요구

조계종립 동국대가 내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캠퍼스 교수회(회장 유덕기)가 오영교 총장 불신임을 결의한데 이어 경주캠퍼스 교수회(회장 임배근)도 캠퍼스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캠퍼스 교수회는 12월 9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오 총장 불신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전환을 결의했다. 오 총장 불신임 결의는 10월 임시총회에서 발표된 설문결과에 따른 조치다.

교수회장 유덕기 교수(식품과학부)는 "오영교 총장의 자질과 능력에 한계를 느낀 조치"라고 말했다. 교수회가 오 총장을 불신임한 이유는 △총장 능력과 자질 미흡 △일방적인 정책 진행 △재정적 기여 부족 등이며, 로스쿨 탈락에 따른 책임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국대 측은 "'후원의 밤' 등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기금을 모았다"고 밝혔으나, 교수회측은 "약정은 약정일 뿐 모금액이 아니다"라며 항변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교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4년간 4명의 캠퍼스총장이 일방적으로 임명됐다"며 "4년마다 재단이사회 구성이 바뀌는 구조에서 (학교가) 특정개인의 편리 등에 따라 운영되기보다는 (직선 등)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불황·한파, 마음공부로 '희망'을…
특별기획 ③생활속의 위빠사나 수행 -묘원 법사 ▶ 7면

■ 마음공부포럼 안내

현대인 위한 마음공부 나눔마당에 초대합니다

복잡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실히 요구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불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생활 속의 참선 수행이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성을 밝히는 수행과 실천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평등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공부 나눔마당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시 2008년 12월 21일(일) 오후 1:30~4:00 ■ 장소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4층 대강당
■ 주최 한마음선원 ■ 주관 한마음과학원 ■ 후원 현대불교신문사

*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031) 471-69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숲 항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첫서리 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주소(D)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희망' 보여준 2008 불교문화엑스포

2008년 12월 불심 수도 부산에서 처음으로 불교문화엑스포가 탄생했다.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주최로 열린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가 12월 4~7일 해운대 벡스코 특별전시장에서 성료됐다. 기존의 팔관회와 산업박람회를 결합해 불교산업 관련 180여 업체의 관람부스를 설치해 대규모 불교문화엑스포로 재구성했다. 사찰 성장모델 구축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하루 평균 6000여 명, 총 3만 여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가 열리기 전 관람객이 과연 얼마나 들 것인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첫날 오전 10시 개막과 함께 모든 근심걱정이 불식됐다. 첫날에만 8000여 명이 다녀갔고, 대규모 기도법회와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다양한 불교관련 업체들의 홍보 부스로 어엿한 불교문화축제로 승화됐다. 게다가 불교에 문화라는 키워드를 조합해 '고리타분한 불교'라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불교의 문턱을 낮추는 포교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전시에 참여한 관련업체의 상당수가 차, 사찰음식, 법복, 다기 등을 판매하는 부스들로 그 성격이 다소 일회적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 판매 위주여서 아쉬웠다. 대신 스님과 사찰 종무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사찰건축 및 보존, 종무원 전문교육, 영상 제작, 종무관리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개발 등 불교관련 업체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마케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박람회의 기능일 것이다.

주요 법회 전후에 이어진 연예인 축하공연이 팔관회와 이질감이 든 점도 개선할 점이었다. 이들 무대는 흥겨웠지만 가수스님의 공연, 불무도 시범, 범음범패 시연, 불교식 차례시연 등과 같이 평소 불자들이 만나기 어려웠던 불교문화 공연을 구성했다면 좀더 알찬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팔관회는 2009년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는 부산시에서 팔관회를 위한 시지원보조금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급돼, 좀더 넉넉한 재정을 바탕으로 풍성한 축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번 축제의 성공요인과 부족한 점들을 되새기고, 여러 유관업체들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재생산에 좀더 귀 기울인다면 양적인 발전과 함께 질적으로도 우수한 불교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팔관회가 지구촌 불교문화축제인 세계불교문화엑스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템플스테이 세계브랜드 만들기

조계종·관광공사·나경원 의원 등 관련 세미나 공동주최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불교계와 정부, 국회가 손을 맞잡았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는 나경원 · 전병헌 의원과 공동으로 12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대표 관광 사업으로서의 가능성과 개선점', '지역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템플스테이 발전방향', '템플스테이 해외 마케팅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템플스테이의 발전방향이 집중 모색된다.

발제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원섭 박사, 전남발전연구원 김준 박사, 테라사키 요시유키(前 Travel Jounal 지국장) 등 3명이며 토론자는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김성윤 前 휠라코리아 마케팅 상무, 화엄사 대요 스님, 경상북도 관광산업국 서원 사무관, 외교통상부 문화예술사업과 김득환씨, 한나라관광(주) 권혜경 상무 등 6명이다.

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2007년에 비해 동기간(11월 누계) 30%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참가자는 2007년 8만1652명(내국인 6만8119명, 외국인 1만3533명)이며, 2008년 11월 현재 9만8242명(내국인 8만1597명, 외국인 1만6645)으로 집계됐다.

참가자의 증가는 한국 전통문화의 보고인 템플스테이 사찰의 운영자 스님 및 실무자들의 노력과 정신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의 욕구가 부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의 참여비중이 높은 만큼 템플스테이의 관광적 역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여가 문화적 기능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향후 템플스테이는 현 사회에서 희미해져 가는 공동체 정서 회복과 자연과 조화되는 삶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현대인들이 정신적 불안을 극복하고, 심신의 건강을 되찾는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조계종·산림청, 사찰산림 보호 협약체결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실무협의체 구성키로

조계종과 정부가 사찰산림 보호를 위해 함께 팔을 걷어 붙였다.

조계종과 산림청은 사찰산림에 대한 효율적 보호와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하영제 산림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지관 스님은 "사찰 산림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낙산사, 숭례문 화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만큼 조계종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찰림 보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월 11일 협약식을 체결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하영제 산림청장. 사진=이나은 기자

이번 협약은 사찰 산림이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자산임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조계종과 산림청은 사찰 산림에 대한 문화재 숲 가꾸기,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 산림복원, 숲길정비 등 산림보호와 관리 등 기본적인 산림사업은 물론 필요할 경우 사찰림과 국유림 교환 등 적극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직지사 · 김천사암연합 동지맞이 자비나눔 팥죽공양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 · 사진)와 김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장명)는 12월 10일 김천역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동지맞이 자비나눔 팥죽공양'을 실시했다. 스님 50여 명과 신도 150여 명은 주민 1000여 명에게 따뜻한 팥죽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라는 덕담을 공양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상무부대 군종활동 보장하라"

범불교대책위…4일 국방부에 항의 공문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이전시 군종활동 보장하라!"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과 종교편향종식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원학)는 12월 1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체육부대에 종교편향 우려가 있어 지난 4일 국방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문경으로 이전할 예정인 상무이전계획안에 현재 민간인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가 건립 예정인 반면, 군종은 인가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지침사항으로 이뤄진 이전계획 중 종교시설 입지는 교회와 야외 종교시설만 계획돼 기존 교회는 120평 규모로 신축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상무에는 600여 명의 체육장병이 복무하고 있어 종교시설 형평성에 따른 종교편향이 심각히 우려된다.

범불교대책위는 "상무부대 장병들이 균등한 종교활동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겠다. 상무부대 내에는 현재 천주교 및 타 종교 시설도 누락돼 있어 향후 천주교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2008년 교육공로포상 선정

법산 스님, 종정스님 표창패 수상

조계종 승가교육에 헌신해 온 법산 스님(사진) 등이 2008년 교육공로포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12월 11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2008년 교육공로포상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제1~4기 고시위원장으로 봉직한 법산 스님이 종정스님 표창패를 수상했다. 또 제18~36기 행자교육원 유나 및 운영위원으로 종단 도제양성에 앞장선 지현 스님이 총무원장 표창패를, 교재편찬위원위원장 · 용학 스님이 각각 교육원장 표창패를 받았다. 종단 기본교육기관에 장학금 및 교재를 기부한 백천장학재단과 종단본 <금강경> 한문 · 한글본 편찬불사에 기여한 최형숙씨가 각각 교육원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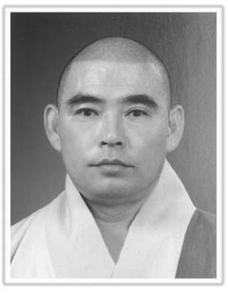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동국대병원으로 간 108산사 순례기도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제28차 순례가 12월 11~13일 일산 동국대병원과 불암산 불암사에서 진행됐다. 연인원 5천 여 명이 동참한 이번 순례는 연말을 맞아 동국대 병원을 방문, 환자들의 쾌유와 병원의 발전을 기원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사진은 병실을 찾은 선묵혜자 스님이 환자를 위로하는 모습. 임연태 기자

"위안부 문제, 우리시대 화두"

나눔의집, 2008 만남의날 개최



나눔의집 할머니들이 작전여고 학생들이 만든 종이학 등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어 온 나눔의집(원장 원행)이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08 만남의날'을 개최했다.

'2008 만남의날'은 한해 나눔의집 활동을 보고하고 후원자 등 대중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 부원장 승연 스님, 김순옥, 김화선 등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 5명을 비롯해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이종연 변호사, 나눔의집을 돕는 국제고 연합회 학생 등 후원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2004년부터 나눔의집 방문프로그램으로 일본 학생을 비롯한 외국학생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려온 주한원어민교사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80년대 200여 명이었던 할머니들이 100분도 안되게 생존해 계신다"며 "하루빨리 일본의 진심어린 참회와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피해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이미경 국회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인간 존엄성 문제로 인권 침해에 직결된다"며 "할머니들이 아픔을 딛고, 자신감 있게 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또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각국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연 변호사(前 워싱턴 군위안부 대책위원회 이사장, 前 미 법무부 선임변호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은 단순한 할머니들의 시골집이 아닌, 우리 시대의 아픔의 역사와 치유해야 할 과거다"며 "미국, 한국 국회 등 세계 각국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문을 냈다. 이제는 일본이 진정한 참회로 답할 때"라고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보상책을 촉구했다.

축사에 이어 상영된 나눔의집 2008 활동영상에서는 한해 활동보고와 12월 5일 작고하신 故 한도순 할머니를 비롯한 올해 작고한 할머니들 영상이 상영돼 좌중의 숙연함을 자아냈다.

활동영상 이후 윤연모 교사(서라벌고)의 '조선의 꽃이 아니었다면' 시낭송과 노래, 나눔의집방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원어민교사회 스텝 소개, 연합회 소속 고등학생들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고, 또 인천작전여고 학생들의 마음을 담은 종이학 등 선물이 전달됐다.

1부 행사에 이어 김동원 감독의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끝나지 않은 전쟁(63 years on)'이 상영됐고, 다과회 등이 진행됐다. (031)768-0064 후원: 나눔의집 농협 163-01-407551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종교차별금지는 세계적 추세"

연등회,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 위한 토론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비교불교학 협동과정 신설

"종교적 자유 보장을 위한 종교차별금지는 세계적 추세다. 종교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모임 연등회(회장 최문순) 주최로 12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종교차별행위금지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발제에서 "캐나다 인권법, 뉴질랜드 인권법, 영국 괴롭힘 보호법,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 위원회법 등은 종교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종교편향 등의 이유로 예수가 등장하는 연극을 공연하거나 '크리스마스' '예수'라는 용어가 들어간 캐럴을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조항의 직접적용은 대상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등도 권력 자체에서 비롯해 행해지는 종교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며 종교차별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석원 변호사(조계종 총무원 법무전문위원)는 '전통문화진흥을 위한 토론'을 발제했다. 정 변호사는 "건축 · 토목기술의 발달로 산악지역 개발이 가속돼 1990~2006년에 전통사찰 환경침해사례가 123건이나 발생했다"며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유지 · 보존하기 위한 법규정과 전통사찰의 불사를 제한하는 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사찰은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향유의 공간 △수려한 자연환경 보호를 통한 역사 · 문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 문화 활동의 거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민주당 정세균 대표, 강창일 의원(민주당),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지관 스님, 박광서 공동대표(종교자유정책연구원)등이 참석했다.

김진성 기자

인문학, 지역학, 예술학 등과 연계해 불교학을 연구하는 과정이 동국대에 개설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 이하 불문연)은 12월 17~19일 비교불교학 협동과정 신입생(석사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교불교학 협동과정은 불문연이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연구'를 주제로 수행중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박인성 원장은 "비교불교학 협동과정은 문화콘텐츠, 영상 · 대중문화, 미디어, 심리학, 미학 등과 연계해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아시아 문화속에서 불교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 불교관련 학술연구, 언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우수한 인재양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02)2260-8507

조동섭 기자



"MB정부, 환경운동 폄훼 STOP!"

지율 스님,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및 정부 상대 명예훼손 소송



MB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과 국립공원법 개정을 통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 反녹색성장 정책이 물타기식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사진)이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경고를 보냈다.

지율 스님은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정부를 상대로 각각 1억원 명예훼손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7월 25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대한민국 좌표'에 '걸림돌-설익은 민주화의 적폐, 천성산 터널 지연 손실 2조 5161억원'이라고 명시하고 "환경이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 반미가 모든 가치보다 우월하다"등을 사례로 들었었다. 또한 "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 2조 5000억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도롱뇽과 말이 통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집단이주비를 줘 이주시키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은 "허위 사실로 천성산 문제의 진실과 의미를 왜곡한 편협하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 및 인격을 심대하게 모욕했다"고 소송사유를 밝혔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공사는 2009년 4월이 계약상 완료시기로 손해추산한 2008년 12월 완공예정은 정부측에서 공사진척현황으로 5개월 정도 앞당겨 계산한 것"이라며 "이로 추산한 공사지연 손해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설령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해 6개월 동안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액은 시공업체가 입은 145억원에 불과하다"며 "대운하 문제 등에 현 정부가 사패산과 천성산 문제를 개발볼모로 삼아 시민운동과 불교계를 옥죄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덕현 기자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완화 불가!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 9일 긴급토론

환경부가 12월 5일 발표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 '국립 · 도립 · 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12월 9일 서울 한국건강연대에서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가이드라인, 자연공원 지정목적에 부합하는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각계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양양지역 주민 50여 명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환경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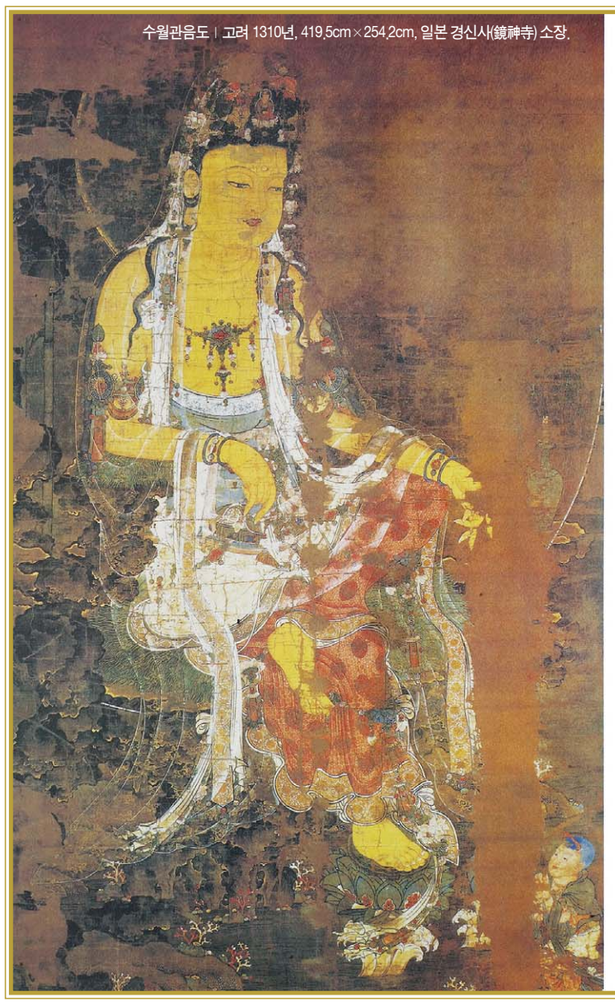
서울대 윤여창 교수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기준의 완화는 등산객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생태계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현행 2km보존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경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은 "케이블카를 관광수단으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서도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경제 부분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2008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소설가 조정래씨 등 선정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순표)는 12월 11일 소피텔에서 열린 '동국의 밤' 행사에서 조정래씨 등에게 2008 자랑스런 동국인상을 수여했다.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인 소설가 조정래 씨는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태백산맥> <아리랑> 등 다수의 작품을 집필했다.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노동부 장관, 2002월드컵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준형 신라교역 회장은 전경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유 홍 준 전 문 화 재 청 장 초 청 공 개 특 강

아! 아름다워라. 고려불화여!

2008년 12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봉은사 보우당 · 강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부처님 법을 수호한다는 신념으로 올 여름 뜨겁게 달궈진 서울시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하나된 불심을 보여 주신 불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던 불자님들의 염원은 이루지 못한 채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상심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연말을 맞아 봉은사에서 특별한 문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12월 25일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초청하여 〈아! 아름다워라. 고려불화여!〉라는 주제로 공개특강을 개최합니다. 고려불화는 세계 불교회화사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불교 예술의 자랑이자 긍지입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등의 저서를 통해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구수하면서도 해박한 입담으로 강의하는 이번 특강을 통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약력 1949년 서울 출생 | 1980년 서울대 미학과 졸업 | 1984년 민족미술협의회 공동대표 | 1991년 영남대 회화과 교수 및 영남대 박물관장 | 2002년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 2004년 문화재청장 | 저서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정직한 관객〉 〈나의 북한문화유산답사기〉 〈화인열전〉 〈완당평전〉 등이 있다.

봉은사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문의 02) 3218-4836 | www.bongeunsa.org

산사수련회로 '희망'을

부처님과 함께하는 해넘이 · 해맞이

염불 소리에 마음을 정리하고, 목탁 소리로 어제를 바라보며, 타종 소리에 내일의 희망을 담는 해넘이 · 해맞이 산사수련회가 풍성하다. 전국 사찰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나를 돌아보고 이웃과 가족이 함께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다양한 새해맞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강화 전등사는 12월 31일 오후 8시 30시부터 '서로에게 힘주며 온기 나누기'를 개최한다. 이날 타종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직접 타종을 하면서 해넘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평창 월정사는 12월 31일 낮 12시부터 월정사를 출발해 오대산장을 거쳐 상원사까지 약 13km를 삼보일배하고 타종식과 더불어 일출을 맞이한다.

인제 백담사는 이웃 종교와의 화합을 도모하는 색다른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12월 25~27일에는 크리스마스트리에 소원 달기, 염주 만들기 등을 하면서 산사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

이밖에도 13곳의 사찰에서 다양한 해넘이 · 해맞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사 찰 명	프 로 그 램	전 화 번 호
서울 금선사	삼각산 해맞이 산행, 스님과 다담 ,촛불 명상	02-395-9955
강화 전등사	가족 영화제, 촛불기원, 타종	032-937-0125
가평 백련사	잣나무 숲길 걷기 명상	031-585-3855
부산 범어사	탑돌이, 계명암 해맞이 순례, 단주만들기	051-508-3122
영월 법흥사	장작패기, 호박죽 만들기, 꿈주머니 만들기	033-375-9173
진천 보탑사	소원 초 밝히기, 발원문 작성, 만발공양	043-533-6865
동해 삼화사	타종식, 새벽108배, 일출보기, 바닷가 포행	033-534-7676
인제 백담사	작은 음악회, 성불도 놀이, 해맞이	033-462-5565
평창 월정사	삼보일배 용맹정진, 타종식	033-332-6664
창원 성주사	새벽예불, 떡국먹기, 사찰문화 체험	055-264-0108
순천 송광사	조계산 대장봉 해맞이 등산	061-755-0107
고창 선운사	도솔산 천마봉 해맞이	063-561-1375
김제 금산사	모악산 해맞이	063-548-4441
공주 마곡사	해넘이 참회 시간, 걷기 명상, 타종	041-841-6226
대전 갑사	타종, 촛불기원법회, 고구마 가래떡 굽기	041-857-8981
서산 부석사	전통놀이, 도비산 해맞이 등산	041-662-3824

"외국인 노동자에 자비의 손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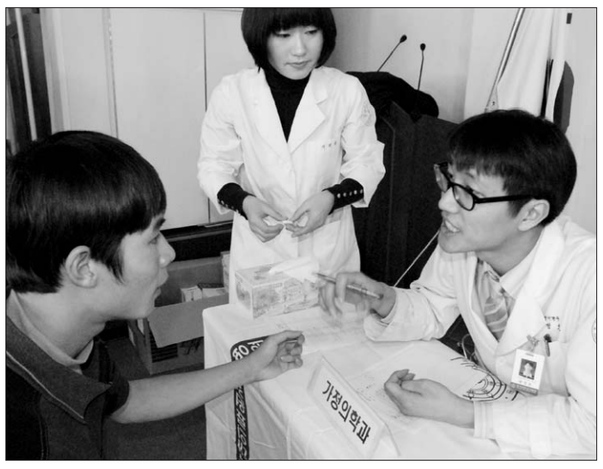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 외국인 이주민 의료봉사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상임법사 무구)는 12월 6일 경주시 외동읍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자를 위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경주병원 내과 등 7개 진료과 교직원 60여 명이 동참한 행사에는 150여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무구 스님은 "대부분 따뜻한 동남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자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추운겨울에 경제한파까지 불어 닥쳐 고통을 겪고 있어 준비한 행사다"라고 말했다.

경주병원 불교회는 지난 7월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매년 분기별로 의료활동을 이어왔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불교회는 12월 6일 경주시 외동읍에서 150여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자를 위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불기협 후원회 발족



12월 8일 서울 만복림에서 개최된 '불기협의 밤 및 불교언론인 후원회 창립식'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이 언론인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쾌척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 이하 불기협)는 12월 8일 서울 만복림에서 '불기협의 밤 및 불교언론인후원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불교언론인후원회(회장 최승천 · 조계종출판사 편집부장) 창립선포식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이 불교언론인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쾌척했다.

이 날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최문순 민주당 연등회장, 권경상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기자상 시상식에서는 불교신문 어현경 기자가 한국불교기자상 대상 '선원빈기자상'을 수상하고, 본지 박재완 기자가 사진 및 방송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간불교신문 최승현 기자가 보도부문 우수상을, 불교신문 여태동 기자가 기획부문 우수상을, 금강신문 배희정 기자가 신인기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변대용 보도국장(불교TV)과 정유제 편집국장(밀교신문)은 공로패를 받았다.

조동섭 · 김진성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함께하는 세상' 후원의 밤 성료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함께하는 세상'(이사장 지성) 2008 후원의 밤 행사가 12월 7일 대구 프린스 호텔2층 갤럭시홀에서 열렸다.

뉴욕 성불사 주지 도철 스님과 한몽골불교교류협회 이외수 회장, 대구사원주지연합회신도회 임문우 회장 등 300여 후원자가 동참한 법회에서 이사장 지성 스님은 "코리안 드림을 위해 온 100만 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더욱 활발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포교·신도 단체 송년의 밤 행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포교 · 신도단체들의 송년의 밤 행사가 줄 잇는다.

12월 10일 한전반야회 송년법회, 13~14일 공무원불자연합회 임원수련회, 15일 불교상담개발원 송년감사의 밤이 진행된 데 이어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혜총)은 19일 강화도 코끼리유치원에서 포교신도단체실무자 송년회를 개최한다.

포교원은 또 22일 오전 10시 한국불교문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체육인불자회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이 법회는 2008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출전 선수 11명을 포함한 체육인불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또한 포교원은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서울 경인 대전 충청지역 어린이지도자 교육지원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 학기 법회계획과 실행, 종이접기 강의와 모범교사 선물전달, 겨울철 실내놀이배우기 등을 진행한다.

한편 찬불가 모임인 좋은벗풍경소리는 18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음악회 및 후원의 밤을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찬불가의 선구자인 반영규 선생의 <꽃비 내리고> 출판 기념법회도 함께 열린다. 또 불교레크레이션협회는 23일 오후 6시 서울역 트레인스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이상언 기자

겨울 불교 신상품으로 수행 Upgrade!



AGtec의 '은사 신도복'(위)과 대자연 산업의 '아미따 차'(아래).

올겨울 불자들을 위한 눈에 띄는 신상품이 나왔다.

대자연산업(대표이사 이성진)은 불자들 체력증진을 위한 '아미따 차'를 내놨다. 청견 스님(법왕정사) 제안으로 개발된 '아미따차'는 심신안정과 건강증진에 효능이 있으며 지방분해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아미따차'의 주원료인 '허브 마떼(Yerba Mate)'는 남미 아열대 지역 사람들이 고기와 함께 즐겨 마시는 음료의 원료다. 대자연산업은 "아미따차는 수행 및 체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www.amata.co.kr)와 전화 1566-6289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AGtec(대표 김상건)에서 개발한 은사 신도복을 비롯한 수행용품도 눈길을 끈다. 일본 미쯔비시 섬유(Mitsubish Material)의 은사를 원사로 서울대 FTC(패션신소재 연구센터)와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AGtec은 "1년 6개월 동안의 임상실험 결과 두건 등에서 전자파 차단 효과 뿐만 아니라 뇌파 흔란 파장을 방지해 알파파가 증가로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www.agbrain.co.kr (070)8252-5841 노덕현 기자

社 告

'법보시'로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 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 (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 화 사



양화사 건강원 귀 자원봉사의 집 귀 서금요법수지침술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양화사 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 ·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 · 면 · 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부인성 질환)(아토피,피부질환)(신경통,관절질환)(디스크,혈압질환)(불치,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자연치유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체질개선)(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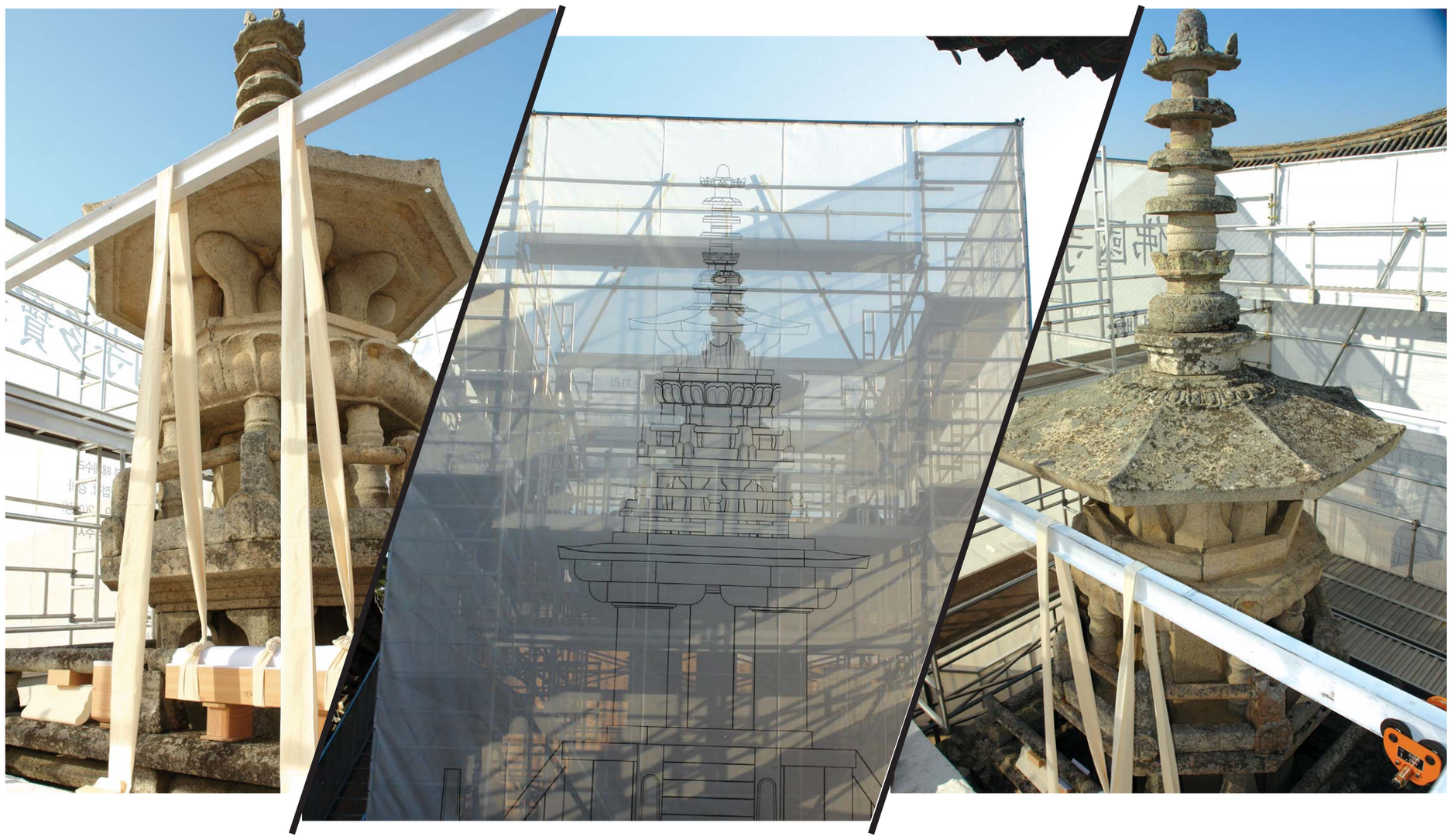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현장속으로

불국사 다보탑 83년 만에 대대적 수리 시작

"기도하듯 정성을…"

곳곳 풍화균열·박리 등 심각…원형보전 '자신'
다보탑 주변 아크릴로 둘러 수리현장 공개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 대웅전 마당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다보탑이 있을 곳에 탑과 꼭 맞는 높이의 가설 덧집이 세워졌다. 반투명의 천막 안에서는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들린다.

"조금씩 당겨주시면 됩니다.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이건무 청장(문화재청)님, 백낙승 시장(경주시)님 이쪽에서 살살 당겨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부재를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조금만 느슨하게 해주세요. 자자, 천천히, 천천히, 됐습니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국보 제20호)의 사각 난간 부재(길이 140㎝, 지름 11㎝)가 탑에서 분리됐다. 83년만의 대대적 수리가 시작됨을 알리는 순간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이하 연구소)은 12월 10일 불국사에서 '불국사 다보탑 수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다보탑 수리계획에 대한 설명과 수리현장 참관, 해체 작업 시작 순으로 진행됐다.

다보탑 수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25년 일제강점기에 전면 해체 수리했고, 1972년에는 2층 하부 사각 난간과 상륜부를 보수했다. 두 번의 수리 모두 당시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천년 세월의 노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다보탑은 사각 및 팔각 난간, 상륜부 등 곳곳에서 석재의 풍화로 인한 균열과 박리를 보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곳은 팔각 난간 부분. 겉으로 보기에도 균열이 여러 곳인데다 색깔도 심하게 변해있다. 쩍 갈라진 부재의 균열을 보면 탑신에 낀 이끼는 애교 수준이다. 앞선 보수공사에서 배수처리를 잘못했는지 1층 옥개석을 통해 탑 내부로 흘러들어간 빗물이 시커멓게 썩은 자국도 보인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원상복원 돼야 합니다."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난간 부재 분리를 마친 김동현 前 문화재위원이 현장책임자 배병선 단장(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장)에게 신신당부했다. 김 위원은 "1000년 이상 버텨 온 석조물 해체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가능하면 해체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해 온 신중론자다.

천년 세월을 지킨 성물(聖物)을 해체 · 조립하겠다는 것이 여간 불안하지 않은 원로학자의 의견에 배 실장이 답했다.

"부재를 들어 올릴 때 부숴질 우려가 있는 등 해체 자체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재의 풍화가 심각해 비바람에도 무너질 우려가 있어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3D 스캐닝으로 0.001mm 까지 측정해 원형복원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풍화도면을 작성하는 등 보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그랬다. 이번 수리에서 분리될 다보탑의 부재는 60개(사각 난간 35개, 팔각 난간 16개, 상륜부 9개). 방금 내빈들이 들어 내린 난간 1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현장작업자들은 닷새 가까이 공을 들였다. 우선 초음파 장비로 내부 균열은 없는지 사각 난간 곳곳을 검사했다. 난간 부재 접착에 쓰였던 모르타르의 경계 부분도 측정됐다. 이음부의 모르타르는 1.5mm 미세드릴로 정교하게 제거됐다.

내빈 참관 후 다보탑 수리 현장의 일반인들 관람이 시작됐다. 가설 덧집의 계단을 올라 다보탑에 가까이 다가선 이들의 탄성과 한탄이 교차했다.



유경민(47 · 서울)씨는 "다보탑을 가까이서 보니 돌을 나무처럼 짜 맞춘 듯 정교하다"며 "균열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새단장한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수리현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김봉건 소장은 "투명 아크릴로 다보탑 주변을 둘러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수리현장을 지켜보도록 하고 안내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5억 1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2009년 12월까지 다보탑 수리를 마칠 예정이다.

해체는 상륜부와 부재 균열과 이격 등의 진행이 확인된 2층 중앙부의 팔각 난간 하부의 사각 난간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해체 전 초음파 진단 등 사전조치 후 모르타르 제거 과정을 거쳐 부재를 분리한다. 분리 시 훼손이 의심되는 부재는 임시 강화약재 도포 후 스트레치 필름으로 감싸고 압박붕대를 감는 등 깁스(?)도 한다. 부재 분리를 끝낸 다보탑은 방수처리와 표면강화, 세척 작업 등을 거치게 된다. 보존처리 과정이 끝나면 3D 정밀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원형으로 복원한다.

착수보고회 식장에서 성타 스님은 "다보탑 등 성보문화재는 예술이 아닌 신앙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9년 12월,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의 기도로 장엄될 다보탑이 기다려진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절 수행 시 • 성지 순례 산행 시 • 장시간 공부·운전·운동 피곤 시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대자연 GREAT NATURE UNITED
www.amata.co.kr

아마따茶로 성불 수행의 기운을 돋우십시오!

다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 된 아열대지방의 허브 마테(Yerba Mate)는
정신과 육체의 기운을 돋우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세계 여러 분야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마따茶'로 마테(Yerba Mate)가 주는건강을 누리세요.

아마따 란? 팔리어로 '감로'(달고 깨끗한 이슬)를 뜻합니다.



無설탕
無색소
無방부제

1566-6289
1BOX 24개입 48,000원 판매원 : 유기마켓(주) 농협 601139-51-006748 국민 580301-04-091374


마테(Yerba Mate)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원시부족인 '과라니족'에 의해 발견된 허브. 과라니족은 피로회복과 숙면을 취하는데 마테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마테는 현대인의 건강과 명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주문



원주불교대학원 1기 수료식 봉행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12월 6일 심검당에서 원주불교대학원 1기 수료식을 봉행했다.



양산 자비도량 2008후원의밤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2월 5일 양산 자비도량에서 '2008 자원봉사자와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송년의 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정념 스님은 12월 10~11일 강원 평창에서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2008 불광생태문화한마당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12월 13일 송파나루공원 일대에서 문광부 청소년지원프로그램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불광생태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천수천안불교자원봉사단 송년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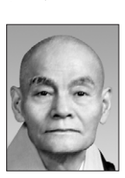
천수천안불교자원봉사단 이사장 대오 스님은 12월 11일 고양시 다래부페에서 2008송년법회를 개최했다.



불레협 자료집 발간 및 송년법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송묵 스님은 12월 23일 오후 6시 서울역 역사 3층 트레인스에서 자료집 발간 기념 및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부고 운하 스님 입적



영축총림 통도사의 산중 원로인 운하 스님(사진)이 12월 8일 오후 8시 10분경 통도사 시탑전에서 입적했다. 법랍 55세, 세수 85세.

운하 대선사는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불국사 등 제방 선원에서 40여 안거를 성만하고, 1993~1999년 통도사 보광전 선원장을 역임했다. 김해 선지사와 양산 정종사를 창건하고, 이후 통도사 선덕으로 시탑전에 주석했다. **박지원 기자**

도와주세요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



시국법회추진위원회 윤남진 대변인(참여불교재가연대 NGO리서치 소장)이 12월 9일 일산 명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투병중이다. 윤 대변인은 식도 부근 발병으로 위를 대부분 절개할 수밖에 없어 1년 정도 요양할 예정이다. 후원: 국민은행 023501-04-130688 정우식(시국법회)

"아담하고 소박한 삶이 문제해결의 시작입니다"

'생명평화탁발순례단' 단장 도법 스님



"부처는 귀하고 똥은 천한줄 알았는데, 부처가 귀하듯 똥도 귀하더라."

2004년 3월 지리산 노고단에서 시작해 전국 각지 선지식을 만나 삶의 화두를 나눈 '생명평화탁발순례단' 단장 도법 스님(59 · 사진)이 12월 13일 마지막 순례를 앞둔 9일 소회를 밝혔다.

도법 스님은 "나에게 있어 선방수행 10년보다 만행 5년이 더 유익했다. 40여 년 출가생활 동안 자신에게 가장 충실했던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스님은 "앉는 것이 나쁘고 걷는 것이 좋고가 아니라, 필요하면 산사, 필요하면 저자거리에 나가는 것"이라며 "순례 전 가졌던 깨달음, 부처, 수행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나니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부처가 거룩하듯 부처를 낳은 밥도 소중하며, 그 밥을 기른 똥도 귀하다. 셋 모두 귀하니 똥은 몹쓸 것이라 생각한 전 도망상이 깨지더라"고 말했다.

스님은 깨달음에 대해 "그런거 모르겠다. 사는데 불편없고 이렇게 편하면 됐지. 똥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려면 조금 더 걸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법 스님은 순례에 대해 "순례 초기 '싸워도 될까 말까 한 터에 뭐하는 거냐'고 불만을 표하던 현장활동가들이 '생명 · 평화'에 낯설어하지 않고, 오히려 필수적으로 여기게 된 게 성과라면 성과"라며 "개인적으로는 작지만 길을 찾았고, 대안적 삶과 바람직한 사회의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한국사회가 30년 동안 경제성장에 몰두했지만 어렵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음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진 스님은 "이뤄지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매달린다. 더 많은 돈, 집, 승용차 등을 위해 오늘의 행복과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스님은 이어 "5년 동안 아담하고 소박한 삶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경제가 난리쳐도 충격을 받지 않더라. 크고 복잡한 삶이 아니라, 아담하고 소박한 삶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순례 후 14일 지리산 노고단 기원제 후 실상사가 있는 남원 산내면으로 내려갔다. 2000여 명의 산중마을 작은 방에서 스님은 마을주민으로서 동체대비를 실천하고, 실상사 화엄학림 화림원 원장으로서 선재구법기의 8만 선지식 강연도 하며 살아있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산내면은 사회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스님은 "왜 대승불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가? 불교는 중생들이 희망을 가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중불교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노덕현 기자**

"불교미디어센터 설립"

대구불교방송 제4대 사장 허운 스님



"정토세상 구현과 중생구제가 부처님 본분사인 것처럼 불교방송의 본분사는 포교방송입니다. 불교방송 핵심과제인 전파를 통한 포교와 교화의 실천을 위해 콘텐츠 쇄신에 앞장서겠습니다."

12월 10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봉행된 대구불교방송 제3 · 4대 사장 이 · 취임식에서 대구불교방송 제4대 사장에 취임한 허운 스님(동화사 주지 · 사진)은 "부처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알기 쉽게 방송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개국 12주년을 맞은 대구불교방송을 일신(日新)할 계획으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스님은 "청취자들에게 정신적 유익한 프로그램, 풍요로운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기획 프로그램으로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지역불교계와는 포교정보 서비스에 주력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님은 "안정적 포교방송을 위한 다양한 수익 모델 개발과 재원 확충으로 불교종합미디어센터를 설립하겠다"며 "차별화된 영상포교전략으로 효율적인 방송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아시아 10대 관광명소로 지정된 동화사도 대구불교방송에 버금가는 변화를 맞을 예정이다. 동화사는 2009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약사신앙 고양을 위한 기도를 입재한다.

허운 스님은 1972년 일우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1978년 고산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은 스님은 그동안 동화사 교무국장, 보림사 · 은적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는 동화사 주지와 대구불교방송 운영이사 소임을 맡아왔다. **조동섭 기자**

"영어로 신세대 포교할 터"

국제포교사회 박상필 회장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박상필 회장(불교방송 PD · 사진)은 "젊은층 포교에는 영어가 필수"라며 "영어 포교사회 교리강좌와 기초불교 영어강좌 같은 다양한 영어 포교로 신세대 포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국제포교사회 신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제3기 국제포교사인 박 회장은 11월 13일 회장에 선출돼 국제포교사회 활동에 일대 변혁을 예고한바 있다.

"삼법인, 사성제만 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보다 영어 설명을 쉽게 이해한다"는 박 회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박 회장은 "2007년 1회 불교영어 암송대회에서 학부모들이 참가한 자녀가 공부도 하고 자신감까지 향상됐다며 뜨거운 호응을 보내왔다. 앞으로 참가인원 및 시상 규모 등 대회를 더욱 확장해 나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3일 예선을 거쳐 1월 10일 본선이 진행되는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는 12월 26일까지 인터넷(www.idia.com)으로 접수가능하다.

영어를 통한 포교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포교사회는 1월부터 매주 토요일 종로 중앙신도회관에서 '기초불교 영어강좌'도 진행한다. 박 회장은 "기초교리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 신행 공동체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중국어, 일본어 기초강좌도 개설해 영어권 이외의 이웃국가 포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현재 BBS 방송제작국 TV제작2팀장 재직 등 바쁜 와중에도 10년 전 '한국불교세계화'라는 서원에 따라 포교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임휴사 달성구청에 쌀 100포대 보시



대구 임휴사(주지 현장)는 11월 28일 달성구청(구청장 곽대훈)에서 지역주민에게 20kg들이 쌀100포대를 전달했다. 현장 스님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회향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조계사 명본·일진 스님 일일역장 맡아



조계사(주지 세민)는 12월 8일 서울 종각역과 공동으로 질서캠페인을 펼쳤다. 포교국장 명본 스님과 일진 스님이 일일역장을 맡아 시민들에게 질서의식을 홍보하고 포교소책자와 차, 떡을 배포했다. **김성우기자**

'한국불교정화운동사연구' 등 출판기념회



'진관 · 각의 스님 출판기념회'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진관 스님의 〈고구려시대의 불교수용사 연구〉와 진관 · 각의 스님의 공동 저서인 〈한국불교정화운동사연구〉가 소개됐다. **이나은기자**

보성선원 자비의 김장나누기 행사



대구 (재)보성선원(선원장 한북)은 12월 6일 자비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북 스님은 곽대훈 달성구청장과 관내 통 · 반장들을 통해 불우 이웃에게 김치 230통을 전달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장애인 정보화 기능경진대회 시상식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은 12월 4일 제4회 장애인 정보화 기능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11월 28일 진행한 정보화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85명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22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시상했다. **이상언기자**

天台四教義 강의 안내

강사 天台學박사 세명 스님 (현 東大교수)

천태대사 천태교관사상(天台教觀思想)의 화엄교학(華嚴教學)과 더불어 중국불교 교학사상의 동시에 선(禪)과 함께 실천수행문의 쌍벽을 이루는 선관사상(禪觀思想)이기도 하는 불교의 이론과 실천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 천태교학 사상은 『법화경』을 그 중심경전으로 삼는데, 이러한 법화경사상은 5시8교(五時八教)라고 하는 천태의 대표적인 교판(教判)에 의해 선양되고 있는 것을 공부하고자합니다. 포교당 및 사찰주지스님은 물론 불교학자 재가자 분들은 동참하시어 중생 포교와 자기완성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자 : 2009년 1월 15일**
- **강의시간 :**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강의장소 :**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
- **접수기간 : 2008년 12월 3일 ~ 2009년 1월 14일까지**
- **수 강 료 :** 6개월 25만원
- **자 격 :** (가)비구, 비구니 15년이상 불교 서울전문강당 졸업자 및 신입생, 승가대학 졸업자 한함
  (나)재가자 : 불교 서울강당 졸업자 및 신입생,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 졸업 한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 1부
- **입 금 처 :** 농협 053-02-244604 선교경전연구회 - 최재동
- **문의 및 접수 :** 02)735-1053, 018-242-7070

불교서울전문강당 동문회 禪教經典연구회 회장 법경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9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월 2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언제 어디서나 알아차리는 것' 위빠사나 수행 요체"

3 생활 속의 위빠사나수행

한국위빠사나선원장 묘원 법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청호불교문화원 1층에 자리잡은 한국위빠사나선원(원장 묘원, 02-512-5258). 이곳에서는 좌선과 경행 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알아차려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며, 마음과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도 알려준다. 또한 12연기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가르쳐 수행법에 대한 의심을 풀어준다. 이 곳의 수행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전부다.

원장인 묘원 법사는 1988년 국내에 위빠사나를 처음 소개한 거해 스님으로부터 근본불교를 접한 1세대 남방 선(禪) 수행자이다. 96년부터 미얀마의 마하시 센터와 쉐우민 센터에서 7년여 간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 '마음 보는 법'을 알게 됐다는 그는 선(禪)과 유사한 심념처(心念處)를 중심으로 위빠사나를 전하고 있다. 그로부터 일상 속에서 마음챙기는 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 위빠사나란 한 마디로 어떤 수행법입니까?

위빠사나 수행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수행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뒤, 12연기에 대해 역관(逆觀)과 순관(順觀)을 거듭하면서 발견하신 것이 '원인과 결과(因果)'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12연기 안에 있는 오온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온을 알아차리니 느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느낌은 계속 변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 찰나삼매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느낌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위빠사나 수행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렇게 느낌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위빠사나를 통해서만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법을 볼 수 있습니다. 무아의 법을 보아야 갈애와 집착이 일어나지 않아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빠사나는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위빠사나 수행은 몸, 느낌, 마음, 법(法)이라는 4가지를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을 느낌으로 알아차릴 때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면 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근심과 슬픔, 비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나아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소멸하는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수행할 때 나타난 것은 모두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두려울 것도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것을 알아차리고 괴로우면 괴로운 것을 알아차립니다. 즐거울 때도 즐거운 것을 알아차리면 즐거움으로 인해 오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위빠사나는 나타난 대상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걸림이 없이 지켜보면 번뇌를 말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번뇌를 해결하려고 억누르면 반발력이 생겨 번뇌가 더 커집니다.

- 초보자들이 위빠사나를 시작할 때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위빠사나 수행은 반드시 스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빠사나 수행은 우리가 살아온 방법과 전혀 다른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행은 바람(구함)이 있는 공덕행에 속하지만 위빠사나 수행만큼은 바람이 없는 공덕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라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 선(禪)에서는 '지극한 도(道)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취사선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애착하지 않으면 툭 트여 명백하리라' 하여 분별심과 증애(憎愛)심을 버릴 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빠사나 수행은 갈애를 일으키지 않는 수행이므로 어떤 것이나 바라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애가 일어났을 때 없애려고 하지 않고 단지 갈애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그칩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알아차림에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단지 대상이 있어서 알아차리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때만이 고요함이 생기고 이런 고요함에 의해 지혜가 계발됩니다.

지금까지 바라거나 없애려고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아무것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된 대상이라도 그것 자체가 생길만한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로 보고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면 차츰 관용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 법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때만이 지혜가 납니다. 지혜가 나야 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지혜는 아는 것을 말하는데, 더 적극적인 뜻으로는 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명과 갈애를 끊는 것을 말합니다. 알면 당하지 않고 몰라서 당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최고로 치는 것입니다.

- 수행자들은 위빠사나를 닦은 이후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삼매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것과 다른 견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 다소 이성적인 관점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이런 견해가 생긴 뒤에 보는 힘이 계속 증장되면 관용과 자애가 생깁니다.

위빠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5가지 장애입니다. 5가지 장애는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혼침과 게으름, 들뜸, 의심입니다. 이것들이 살아온 습관이며 나타날 만 해서 나타는 것이므로 없애려고 하지 않고 법으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에 의해 조건이 성숙되면 사라질 것이고, 아직 그 힘이 크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타나면 계속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위빠사나 수행의 삼매는 '찰나삼매'입니다. 찰나삼매란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을 알아차릴 때 일어난 순간에 일어난 것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찰나삼매에 의해서만 무상, 고, 무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매란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알아차려야 하고 다음에 알아차림을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지속되어야만 마음이 들뜨지 않고 고요해져서 집중이 됩니다. 수행자에 따라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사람은 쉽게 삼매에 들 수 있으며, 알아차림을 지속하기가 어려우면 삼매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이런 차이로 삼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일상생활 중에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경계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주시해야 하나요?

위빠사나 수행은 어느 때나 하는 것이므로 어느 때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것을 알아차립니다. 만약 성냄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성냄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화를 낸 마음을 대상으로 다시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런 뒤에 가슴으로 가서 화를 낸 마음으로 인해 일어난 콩닥거리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이 느낌을 알아차릴 때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때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을 계속 해서 알아차린 뒤에 다음 단계로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 수행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을 잘 때나 아침에 눈을 뜰 때나 먼저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뒤에 배에서 일어나고 꺼지는 움직임을 알아차린 뒤에 잠에 들거나 잠에서 깨어나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알아차리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자면 죽을 때의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의 알아차림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호흡을 알아차리고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좋아집니다. 또한 먹기 전에 무슨 마음을 먹는가를 알아차리면 탐욕으로 먹지 않게 됩니다. 탐욕으로 먹으면 계율을 지키지 않고 먹는 것이라서 불선행을 하는 것이며, 건강도 나빠집니다.

부처님은 하루에 4시간 주무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나 잠을 잘 때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잠재의식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몽중일여(夢中一如)'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 마치 자면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높은 경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잠자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잠에서 깨어나서 알아차렸거나 꿈을 꾼 것입니다. 논장(論藏)에 이러한 분석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알아차리는 힘이 생겨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을 '법이 앞에서 이끈다'고 말합니다. 알아차림에는 '두는' 알아차림이 있고, '있는'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두는 알아차림을 많이 하면 있는 알아차림이 생겨서 힘들이지 않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 있으면 노력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집중이 되고, 집중의 힘으로 지혜가 납니다. 이러한 지혜를 계속 얻게 되면 이제 지혜가 앞에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알아차림'입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buddhapia.com

느낌 알아차리는 수행 통해 찰나삼매 생겨나
좋고 나쁨 떠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핵심



한국위빠사나선원 법당에서 마음챙김 하는 위빠사나 수행자들.



심념처 위주의 위빠사나를 지도하는 묘원 법사.

경남복지고등학교 보건간호과
3년제 /2년제 학생모집

3년제(現, 중 3) / 2년제 (성인반) 고등학교 과정 (보건간호과)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경 남 최초의 보건간호과 (간호전공 / 실버케어전공) 인가
남 보다 앞서 가는 간호 전문 교육
복 지(간호) 교육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교육 실습장 최다 보유
지 · 덕 · 체를 완성하는 인성 교육의 장
고 민하지 마세요! 경남복지고등학교는 항상 열려 있어요!

취득자격증		전 형 일 정
간 호 조무사	요양보호사 (1,2급)	• 원서교부 : 본교 홈페이지 입학 자료실 탑재 다운로드 • 원서접수 : 11. 17 ~ 12. 19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접수 • 접 수 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124번지 경남복지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위원회 • 기타 문의 : 홈페이지 참조
재학 중 취득가능	교육 이수 후 무시험 취득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자격증 동시 취득 가능!!		

2년제 단기 졸업 과정(성인반)
입학 상담중!! 현재 모집중!!
고등학교 졸업을 원하는 성인남녀는 누구나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 경상남도교육청 대안 · 위탁교육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 · 위탁교육기관
◇ 함안 / 창녕 요양보호사 교육원
☞ 국가공인자격(1, 2급) 양성
◇ 행복한마음 재가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경남복지(간호)고등학교 (구. 연꽃자유고등학교) 교장 일광스님
☎ 055)583-7112 (교무실) www.yeun.sc.kr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124 (미륵사 내)

대한불교가야법사대학 2009학년도 신(편)입생
법사 제6기생, 대법사 제5기생, 출가학승 제 4기생 모집요강

본교는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교육법 제 58조에 의한 종단 종립대학으로써 대한불교 가야 법사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제 6기 법사과정	제 5기 대법사과정	제 4기 출가학승과정
(출강 · 통신) 2년[4학기]	(출강 · 통신) 1년[2학기]	(출강) 2년[4학기]

수업학과 :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포교사), 범음범패 의식학
일 시 : 매달 3회 강의 일요일 1시 ~ 4시까지(3시간)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 (본교양식)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사진 (여권용) 3매
④ 불교대학이수증 사본 (법사과정) 1부
⑤ 법사이수증 사본 (대법사과정) 1부
⑥ 수계확인서 사본 1부
⑦ 동등자격소지자 특별전형 입학

원서접수
2008년 12월 14일 ~ 2009년 1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월 2일 오후 1시

특 전
• 법사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 부여함
• 대법사 과정 졸업자는 비구, 비구니, 본종 법사승 법계시험 자격을 부여함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시는 불자님, 그리고 어려운 수행 속에서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정을 학승으로 공부하지 못한 스님께서는 특강하여 사암, 포교원 개설 운영 1년 과정으로 행정지원
• 불교의식 교육원은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잡바라, 도량계 작법, 다계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다루는 법을 강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43-1번지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교학부
☎ 055)345-9393, 346-5115

깨달음의 법(法) 전법하는 사(師)
대한불교 가야법사종 병풍산 천지금화사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총무원장 석혜법 합장

"MBSR·염지관 명상 '정념' 수행서 나와"

김말환 박사 한국명상치료학회서 주장

초겨울 추위보다 매서운 경제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삼삼오오 모이는 사람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에 시달리며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정신적 공황에 흔들리는 자신을 바로 잡고자 수행, 명상 등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고통만을 호소할 뿐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국내 50%가 넘는 성인들이 만성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통계는 불교 임상치료 요법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적 명상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유행해 굳이 불자가 아니어도 기술적인 치료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적용해 왔지만, 국내에는 명상치료 프로그램의 보급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서양의 명상치료 요법인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과 불교의 염지관(念止觀) 명상법이 팔정도의 정념(正念) 수행이라 주장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가 12월 6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명상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제4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말환 박사(동국대)는 주제발표 'MBSR과 염지관 명상과의 비교 고찰'을 발표했다.

MBSR 프로그램은 존 카밧진 교수(미국 메사츄세츠대 의료원)가 1980년대 개발해 임상실험에서 성공을 거둔 요법으로 지금도 미국 유수의 대학병원들이 환자의 치유에 활용하고 있다. 존 카밧진 교수는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에서 "MBSR 프로그램은 아시아 불교에 바탕을 둔 명상법의 한 형태"라며 "마음을 주의집중해 알아차리는 명상법은 온 몸을 이완해서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라 말했다. MBSR 프로그램은 호흡법, 좌선(정좌명상), 보디스캔, 요가명상, 걷기명상, 일상생활 속 명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염지관 명상은 명상상담연구원 인경 스님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명상법을 통합·개발한 명상치료법으로 임상상담에 활용중인 한국형 명상치료 프로그램이다. 인경 스님은 <염지관 명상>에서 "염지관은 느낌이나 감정에 초점을 맞춰 그것을 알아차리고(念), 머물러서(止), 지켜보는(觀) 명상법"이라 설명했다.

김말환 박사는 "MBSR과 염지관 명상법 모두 팔정도 가운데 정념(sati) 수행을 바탕으로 심신의 근원적 존재양식을 직면한 명상법에 기초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고통을 소멸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정념(sati) 수행은 남방경전 중에는 <입출식념경> <염처경> <대념처경>, 한문경전에는 <증일아함경> <불설안반수의경> 등에서 설명하고 있다. 안반은 호흡이다.

김 박사는 "MBSR 프로그램 대상자 다수가 호흡법을 스트레스 클리닉에서 배운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염지관 명상도 호흡법 수련이 어느 정도 익혀지고, 마음의 고요함이 갖춰진 다음에야 가능하다"며 MBSR과 염지관 명상의 공통분모를 호흡에서 찾았다.

정념이라 표현한 념(Sati, 守意)과 마음챙김(mindfulness)은 어떻게 다를까? 김말환 박사는 임승택 교수(경북대) 의견을 빌어 'Sati'를 기억·회상과 주의집중·주의깊음으로 구분했다. 김 박사는 "'Sati'는 들숨 날숨 호흡을 통해 '들뜨거나 산란하지 않은 마음상태'에서 특정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따라가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MBSR과 염지관 명상은 무엇이 다를까? 정념에서 공통점을 찾은 김말환 박사는 MBSR과 염지관 명상 각각의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12월 6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명상치료학회 학술발표회에서 김말환 박사가 MBSR과 염지관 명상을 비교 발표하고 있다.

김 박사는 "MBSR은 환자 중심의 스트레스 해소와 이완으로 치료에 중점을 뒀다"며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에 의한 만성적 질병 치료에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말환 박사는 "염지관 명상은 선정의 힘을 길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감각느낌의 관찰을 통해 마음의 실체를 파악하고 경험현상의 조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오직 실천수행만이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금 고통 받고 있다면 MBSR, 염지관 명상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경 스님은 '유가행파의 영상관법과 인지치료의 심상작업'을 발표했다.

스님은 "영상관법은 유식관의 구체화된 명칭으로 외적인 대상이 실재하지 않고 오직 표상, 영상임을 관찰하는 명상수행법"이라며 '무엇을(관찰 대상)' '어떻게(관찰 기술)' 관찰할 지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관찰 대상은 접촉·작의·감정·생각·갈망으로, 관찰 기술은 의욕·승해(대상을 확인하고 앎)·알아차림·머물음·지켜보기로 구분했다.

유현자(동국대 박사과정)씨는 '태교에서의 명상과 미술치료'를 발표했다. 임신 21~36주 임산부를 대상의 임상실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유씨는 "명상과 미술활동을 활용한 태교 프로그램이 임산부 정서안정과 태아 애착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30m 떨어진 계곡서 친견

임동훈 행정주사보의 거북머리 발견기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2월 1일 경주지 무장사 아미타불조상사적비(보물 제125호) 복원을 위한 현지조사 중 거북모양의 귀부(비석받침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본지 709호 보도)

귀부 양식이 거북머리에서 용머리로 변화되는 중간단계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자료로 평가되는 무장사 거북머리는 어떻게 발견됐을까?

거북머리 발견자인 임동훈 행정주사보(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었다.

11월 20일 오전 11시 200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조사차 정부대전청사에서 동료 직원과 함께 경주 출장길에 올랐다. 필자는 문화재청에 근무하지만 궁·능지역 문화재 보수·복원사업만 해온 터라 학생시절 수학여행 이후 경주는 거의 초행길이나 다름 없었다. 대전을 떠나 3시간 정도 주행 후 경주에 도착해 경주시청을 찾았다.

경주시 직원과 첫 지침조사 대상지인 무장사지로 향했다. 무장사지는 깊은 산속에 위치해 산 아래부터 도보로 약 40분가량 소요됐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산의 형세로 보아 "저기 언덕 중턱에 사찰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경주시 직원에게 말했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반문했다. 필자는 "문화재청에 근무하다보니 보이는 게 다 그겁니다"라고 답했다. 경주시 직원분은 잔잔한 신라 마애불상 같은 온화한 미소를 자아냈다. 중턱을 넘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나뭇가지 사이로 무장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26호)의 위용이 드러났다. 멀리서 보아도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삼층석탑임을 알 수 있었다.

삼층석탑을 가까이에서 보니 기단부와 탑신부가 남아있었다. 오랜 세월로 상륜부는 사라진 상태였고 석탑 주변에 탑 조성 당시로 추정되는 탑구가 잘 남아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니 인근에서 2009년 지침조사대상인 무장사 아미타불조상사적비이수와귀부(보물 제125호)를 볼 수 있었다. 석재의 풍화 및 노후로 보아 120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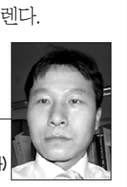
비신과 귀부의 머리 1쌍은 사라진 상태였다. 1963년 보물 지정 당시에도 뿔 없는 용의 모습을 새긴 형상인 비석의 윗부분 '이수'와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돌인 '귀부'만 남아 있었다. 이 귀부는 두 마리 거북이 형상의 '쌍귀부'였는데, 거북머리 두 개가 모두 파손돼 사라졌었다.

주변현황 조사를 위해 귀부와 이수가 놓인 좌측 계곡으로 30m 정도 발걸음을 옮겨 계곡을 살폈다. 그 때였다. 5m 정도 파인 계곡 밑바닥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수많은 강돌 가운데 유독 바위 하단 부위에 가공 흔적으로 보이는 돌의 뒷뿌리가 보였다. 내려가 조심히 파 봤더니, 그것은 사라져버린 귀부의 한쪽 머리(높이 10㎝, 폭 25㎝ 크기)였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곳으로 옮겨져 얼굴을 땅에 묻은 채 제자리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장사아미타불조상 사적비는 신라 제39대 소성왕(799~800)의 왕비 계화 부인이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미타불상을 만들면서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비다. 경주시와 문화재청은 2009년 비신 복원과 함께 발견된 거북머리를 제자리로 접합할 계획이다.

귀부 머리를 찾아 내려오는 길의 필자는 1년 만에 단명한 소성왕을 사랑하던 계화 부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린 듯 발걸음이 가벼웠다. 무장사지에 대한 지침조사를 마치고 내년 복원사업에도 미력하나마 경주시에 힘을 보태어 의미 있는 복원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언젠가 무장사아미타불조상 사적비 복원이 완료되면 와이프와 두 개구쟁이를 데리고 내려와 아빠의 자랑스러움을 알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임동훈 행정주사보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

"고려 사경문화 성리학 영향으로 쇠퇴"

한국사경연구회서 허흥식 명예교수 주장

"팔만대장경 등 목판인쇄 발전과 더불어 발전했던 고려시대 사경 문화가 조선시대 성리학 영향으로 쇠퇴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허흥식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한국사경연구회(회장 김경호)가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동아시아 불교유산에서 고려사경의 위상'을 발표했다.

사경은 명사로는 사본의 <불경>을 말한다. 동사로는 <불경>을 필사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실용의 문자생활에서 비롯된 사경은 인쇄술이 실용성을 충족시킨 후에도 불교신앙의 예술품으로 독립해 발전했다. 허흥식 명예교수는 "사경은 화불과 함께 신앙심을 내세우고 서예가와 화가의 예술성을 묻는 고도의 종교성이 반영된 작업"이라 설명했다.

허 명예교수는 "사경은 불교 전래와 동시에 끊임없이 계속됐다"면서 "읽을거리라는 내용, 보존이란 서책, 장엄이란 예술의 3가지 속성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허흥식 명예교수는 "고려시대 목판대장경 완성은 경전의 실용성과 동일본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실현했다"며 "신앙심을 장엄 예술로 남기는 작업에 있어 사경은 여전히 중시됐다"고 강조했다.

허 명예교수는 목판인쇄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경이 유행했던 이유를 "목판인쇄가 발전할수록 목판에 쏟았던 판화의 예술성이 퇴색됐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는 판화의 취지를 정밀하게 전문화하면서 색채를 도입한 화불과 저장수단보다 창조수단인 서예의 정신으로 돌아간 사경이 목판인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기록과 유물에 따르면 고려시대 사경문화는 극도로 발달됐지만, 공민왕 이후 급격하게 수요가 줄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장식경이라 불리는 감지에 금은 안료를 사용한 사경과 견본채색의 화불마저 줄었다.

이에 대해 허흥식 명예교수는 "선종인 조계종이 불교를 주도했던 상황 등도 사경문화 쇠락과 관련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명예교수는 "조상숭배도 진영보다 단순화한 위패를 강요하는 등 불교보다 성리학은 예술에서 단순성과 소박함을 강요했다"며 "사경 등 불교문화 쇠락은 예술적 가치를 망각한 조선시대 예술세계와 성리학 편향주의가 주된 요인"이라 강조했다.

행사에는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이 주제발표 '한국의 사경'을 통해 불교문화재 중 사경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신라 백지묵서화엄경의 서체분석'을 발표한 김경호 회장은 사경서체연구 방향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김 회장은 서예의 심미적 범주를 금석기(金石氣)와 서권기(書卷氣)로 나누고 점획과 결구를 직접 설명해 보였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외길 김경호 선생 초청 사경 특별전'은 12월 20일까지 계속된다. (02)2011-1960 조동섭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7일개강

2009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4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최종석(금강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다도학과(30명) 불교미술학과(30명) 불교한문학과(30명)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사찰음식문화학과(30명) 요가삼밀학과(2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8년12월 21일~ 2009년 1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일시 2009년 2월 7일(토) 오후5시(동산불교회관)개강
불교한문학과,불교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장례문화학과,사찰음식문화학과,요가삼밀학과: 2009년 3월2,3,4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문종순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4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겨울반)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9년 1월 7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문종순 법사
6.교 재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7.입 학 금	50,000원(3개월)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9년 1월 10일 - 1월 16일 [6박 7일]	우 또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1월 10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월 16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방한쇼울,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눈 내린 날의 수덕사 눈이 내려 감춰진 스님의 발자국

수덕사에 눈이 온다. 마당엔 발걸음 하나 없고, 보탑(寶塔)에 매달린 풍경(風磬)들만 눈보라 속을 헤매고 있다.
쌓인 눈이 길을 감추고, 겨울바람은 길을 찾아 허공을 떠돈다. 저 멀리 향운각(香雲閣)이 눈 속에 홀로 서있고, 조인선원(祖印禪院) 죽문(竹門) 앞에는 스님이 비를 들고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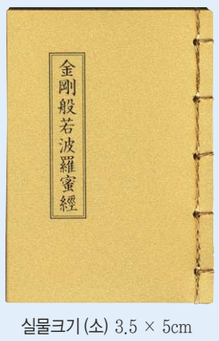
향운각으로 오른다. 백색의 숲엔 겨울이 깊어가고, 홀로 걷는 발걸음은 고요하기만 하다. 관세음보살상 앞에는 스님이 서있다. 거세던 눈발이 잦아들고, 바람에 실려 온 마른 잎들이 마당에 뒹군다.

산 아래로 눈 덮인 수덕사가 보인다. 수덕사에 머물다간 굵은 이름들과 그들이 남긴 결정적 순간들이 오늘도 산문(山門)을 지키고 있다.
산을 내려간다. 다시 만난 나뭇가지가 손을 내밀고, 문득문득 들려오는 산새소리는 고요를 물고 날아간다.

잦아들었던 눈발이 다시 거세진다. 700년 산 대웅전은 눈보라 속에 서있고, 관세음보살과 긴 얘기를 나누던 스님이 법당 앞을 지나간다.
내리는 눈이 스님의 발자국을 지우고, 감춰진 발자국 위로 겨울바람이 지나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외형 넓혔지만 투명 재정·인력 확충 과제로

2008 부산불교계 결산 2 – 타종교 비해 예산 배정 적지만 성숙 단계 접어들어

사회복지 분야

2007년 12월 7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을 복구하기 위한 불교계의 자원봉사 행렬이 올해까지 계속 이어졌다. 수덕사에 불교계 재해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모였고, 스님들도 소매를 걷고 사고현장에서 방제작업에 동참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로 법당에서 배운 자비를, 보살행을 통해 태안 앞바다와 사회라는 도량에서 실천에 옮겼다. 하지만 우리 불교계는 총 수입의 45% 가까이를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타종교에 비해 열악한 제도와 예산 배정을 갖고 있다. 올 한해 '제2의 IMF' 위기설로 침체된 경기와 여러 사회병리현상에 시달려 삭막해진 중생의 가슴 속에 따뜻한 자비의 감로수를 뿌려준 부산불교계 사회복지 분야를 정리한다.

#복지관 개관·위탁운영 봇물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이 속속 문을 열었다. (사)늘기쁜마을(이사장 지현)은 총 사업비 9억여 원을 투입해 어르신 공경의 도량 '환희정'을 개원했다. 남해 화방사도 재가노인지원센터 '화방동산'을 완공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던 복지관을 위탁 받아 새롭게 개관하고 운영에 들어간 곳도 늘었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경남 거창군으로부터 '거창군 삶의 쉼터'를 위탁 받았다. 이곳은 노인과 여성, 장애인 통합 시설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교육 및 복지,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재)내원청소년단(이사장 정련)도 부산 서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구덕청소년수련관을 8월 개관했다.

이들 불교사회복지기관은 공적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한편, 종단과 사찰, 포교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교적 특성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저소득가정 실질 지원

학교폭력, 가출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등으로 요약되던 아동청소년복지가 올 한해 실질적인 지원과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강화됐다. (사)내원(이사장 정련)이 운영하는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랑의 교복전달식'을 갖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복을 맞춰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재)범어청소년동네(이사장 정여)는 전문직업 체험프로그램 '판돌이V'에서 오륜정보학교(구 소년원)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파티플래너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자립 돕는 노인복지

노인복지 또한 도시락 배달, 의료봉사 말벗과 같은 단순 자선활동 수준을 넘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이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해주는 프로그램이 늘었다. (사)금강(이사장 원행)의 마산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행정지킴이, 숲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실버바리스타, 지하철택배 등 어르신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사)불국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이사장 정관)도 공익형 지하철 지킴이와 은빛 치매어르신 봉사, 복지형 노인학대예방교육사업 등을 운영했다. 봉사활동이 아닌 전문 인력으로 상해,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매월 일정한 임금도 지급한다.

#지역사회 보호 및 영역 확대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적, 물적 자원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활발해졌다. (사)불국토(이사장 정관)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사)늘기쁜마을(이사장 지현)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사)혜원(이사장 원허)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락배달, 생계비 지급, 김장김치 및 연탄, 보일러 기름 지원, 의약품 지급, 청소와 세탁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역사회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피고 있다.





좌측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삼계탕데이 행사, 마산 금강노인복지관 실버바리스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김장나누기 행사 모습.

2008년 성숙 단계로 접어든 부산불교사회복지는 '자비심과 이타행'이라는 초발심을 잃지 않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 확보 및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이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5대 적멸보궁 10보1배 순례

부산 불광사 보광 스님 1월 1일 출발



"언젠가는 오직 신심만으로 3보1배, 10보1배의 기도를 하는 시절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6월 설악산 봉정암을 10보1배 참회기도로 순례해 화제가 된 부산 초읍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사진)이 2009년 1월 1일부터 5개월간 '5대 적멸보궁 10보1배 대순례기도'를 떠난다.

불광사 앞마당에서 출발해 양산 통도사를 거쳐 강원도 정선의 태백산 정암사, 영월 사자산 법흥사, 평창 오대산 상원사, 인제 설악산 봉정암에 차례로 오른 뒤 다시 부산 불광사로 돌아오는 멀고 먼 여정이다. 한겨울에 강원도로 떠나는 대순례기도에 건강을 해칠까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스님은 "1년 전부터 준비해온 건데 아직도 말리는 신도들이 많지만 춥고 고단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맞기까지 우리의 거만함을 참회하고, 원망보단 이해와 화합을 통해 새해엔 다함께 힘내자는 발원으로 떠날 것"이란 의지를 다졌다.

하루 8km를 2000번의 절과 셀 수 없이 많은 걸음으로 150일간 장장 750km의 대장정 동안 잠과 공양 모두 길 위에서 이뤄진다.

"텐트와 침낭, 밥 지을 수 있는 코펠과 버너, 부식거리 등 모두 짊어지고 가며 특별히 위험한 곳이나 인연이 닿는 절을 만나면 하룻밤 묵어갈 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사전에 협의를 한 사찰은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단 한곳도 없다. 스님은 오직 기도를 위해 떠나는 순례이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0보1배 기도 순례를 보광스님이 처음 떠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의상 대사는 경주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1보1배를 해 관세음보살을 친견했고, 경봉 대선사는 봉정암까지 3보1배로 순례한 기록이 있다. 스님은 "난 끊어졌던 전통을 이어 부처님 도량을 밟는 고승의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에서 불자를 불러들이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그게 포교다"란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대순례기도를 준비하는 보광 스님은 벌써 다음 순례를 계획 중이다. "다녀와서 몸이 회복 되는 대로 제주도의 사찰들을 10보1배로 순례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10보1배 기도를 원하는 일반인이나 단체는 일정 중 언제든 동참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날 출발 위치와 적멸보궁 도착일 등을 수시 확인할 수 있다. (051)809-1420 **박지원 기자**

2009년 준비하는 범어사

2008 범어사의 밤 개최해

범어사의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09년을 준비하는 범어사 식구들간 화합의 장이 열렸다.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정여)는 12월 9일 오후 6시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2008 범어사의 밤'을 봉행했다. 본말사 스님 및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불, 총무국장 도관 스님의 2008년 범어사 경과보고, 시상 및 감사 · 공로패 전달, 전계대화상 흥교 스님의 격려사, 범어사 이윤희 신도회장의 축사, 주지 정여 스님의 인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상식에서는 본말사 주지스님 및 신도단체, 사회복지법인, 금정중학교 등 약 50여 명에게 감사 · 공로패가 수여됐다. **박지원 기자**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말사 주지스님 등에 감사·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 열려

동련 12월 13~14일

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동련(이사장 지현)은 12월 13~14일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제46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햇살 같은 희망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 지역불교 어린이지도자, 학인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등 스님의 사회로 입재식을 갖고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의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며 진정한 도반',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의 '신나는 율동',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인성 스님의 '우리는 불자다: 불제자 만들기 프로젝트 20' 등 본격 교육에 들어갔다.

14일에는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의 '찬불가 율동', 동국대학교 불교상담학 김경일 교수의 '행동수정의 원리와 기법, 바람직한 행동을 만드는 방법', 나라HRD 엄민영 대표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한층 심화된 전문 강좌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회향식에는 제3회 천진불의 미소 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박지원 기자**

임효 작품전

신심을 예술로 승화해 화폭에 담아낸 미술전이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에서는 12월 8~14일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 스님의 뜻풀이 천수경을 동양화 화폭에 그려낸 임효 화백의 작품전이 열렸다.

이번 작품전에는 대행 스님의 시화집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에 수록된 동양화 50여 점이 전시됐다. 임 화백이 직접 제작한 한지에 석채 등을 이용한 수묵화 작품들로 명상, 귀의, 무아, 깨달음 등에 관한 의미를 정갈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박지원 기자**

미륵존불 개산비 제막법회

한국미륵불교 무량사서

한국미륵불교 총본산 고성 대무량사에서 '당래교주 자씨 미륵존불 개산비' 제막법회가 12월 8일 열렸다.

이날 제막법회에는 종정 법련 스님, 종회의장 만오 스님, 총무원장 송봉 스님 등 대덕스님과 기관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막법회는 사미계수계법회 후 봉행됐다.

종정 법련 스님은 "몸과 마음을 제도해 육도사생 삼계를 해매는 인간은 업을 닦고 소멸시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제도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또한 총무원장 송봉 스님은 "불기 2547년 8월 1일 한국미륵불교종단 설립, 불기 2548년 2월 28일 사단법인 창립 이래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한국미륵불교가 번성한 모습에 종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국미륵불교 종도들께서 미륵십선을 닦고 열심히 수행정진해 수량무궁하시고 자비광명하신 미륵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하루속히 하생하시기를 기원하며, 종단의 번성발전과 미륵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미륵존불 개산비 제막법회 모습.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2008년 11월 28일 부터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해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당되는 분은 악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불공 마쳐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평생 부자가되게 축원불공을 마친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전북 후원회원간 네트워크 구축"

지구촌공생회 전북에 첫 지부 개설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개소식에서 우진 스님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제구호활동 단체인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가 첫 지부를 전북에 개설하고 본격적인 지역활동에 들어갔다.

지구촌공생회는 12월 4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전북지부 개소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고문 우진 스님(김제 흥복사 주지)을 비롯해 권두삼 관장(전북불교회관, 前 김제시 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진 스님은 전북지부장 원광 스님을 대신한 환영사에서 "지구촌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며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는 전북도내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아동·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지구촌공생회는 전북지부 개설을 계기로 전북지역 내 800여 후원회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원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구호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자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사찰전통음식 전문가 강옥실 선생(조선대 전통음식 발굴위원)의 도라지정과, 머위조림 등 27가지 사찰음식 시연이 곁들여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2004년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이 설립한 단체다. 캄보디아 케냐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등에 학교를 세워주는 교육지원 사업, 먹는 물 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국제개발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진행중인 '생명의 우물 1000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800여 개 재래식 우물을 조성해 오염된 물로 인해 질병이나 죽음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 지역문화 선도해야"

반야사회복지연구소 '나주 비전 토론회' 개최



12월 8일 나주 심향사 부설 반야사회복지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원광 스님이 봉행사를 하고 있다.

종교편향 논쟁은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교적 차원의 대응이 종교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이런 가운데 지역종교계가 나서 계층·이념·종교갈등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 부설 반야사회복지연구소는 12월 8일 심향사 설법전에서 '나주 미래·의식·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나주사암연합회장 효공 스님을 비롯해 강인규 의장(나주의회), 심운기 이사장(나주교육진흥재단), 강대영 목사 등 나주지역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광 스님은 봉행사에서 "나주의 제반 문제에 대한 고찰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해답을 찾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제는 종교계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기여해, 새로운 문화중심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효공 스님도 인사말에서 "현대사회는 첨단과학과 과도한 물질풍요의 시대로 삶의 질은 발전하였지만 정신적인 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나주지역 종교계가 지역발전 방향과 비전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나주의 교육 문화 의식 환경 복지 농촌 화합 등 7가지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강대영 교수(광신대)는 주제발표 '나주시민 화합으로 가는 길'을 통해 "다양한 계층 세대 이념 지역 간 갈등은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이제 종교계가 앞장서 시민을 위한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자 교수(동신대)는 주제발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심리상태'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박창욱 前 교장(나주 금성중학교)은 '나주 교육의 발전방안'을 통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제도로 농어촌특례입학제도를 지적했다. 박 씨는 "나주는 이 제도에도 들지 못하는 지방도시다 보니 인근 광주광역시나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인근 학교로 우수학생들이 유출되고 있다"며 "종교기관 등이 나서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등을 펼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봉환면 옥산분교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김준혁 사무국장(나주문화원)이, '상생의 길'을 주제로 고대우 이사장(나주새마을금고)이, '영산강을 살리자'를 주제로 김범웅 대표(푸른나주21)가 잇달아 발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중 건강 지키기 나서

장성 백양사 정진 대중에게 무료한방진료



백양사 스님 등 사부대중은 12월 11일 무료건강검진을 받았다.

무자년 동안거 정진 중인 사찰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가 실시됐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12월 11일 서울 강남구 미래본한의원(원장 조남경)의 도움으로 정진 중인 대중 100여 명에게 의료진료를 실시했다.

백양사 관계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진료를 펼쳐 대중들의 건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판소리 태극권 즐기는 위풍당당 노년

서원노인복지회관 어르신 잔치



12월 9일 전주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에서 어르신 축제가 열렸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때,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축제를 펼쳐 눈길을 끈다.

금산사 복지원(대표 원행) 산하 서원노인복지회관(관장 덕림)은 12월 9일 전주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에서 '위풍당당 우리들의 축제'를 주제로 어르신 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원혜 스님(남고사)을 비롯해 송하진 전주시장, 조지훈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08년 한 해 동안 복지관을 이용한 300여 어르신들은 판소리, 태극권, 요가 등 13개 팀으로 나뉘어 갈고 닦은 실력을 뽑냈다.

금산사 복지원 대표 원행 스님의 축사를 대독한 원혜 스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건강하고 알찬 노년을 즐기시라"고 당부했다.

덕림 스님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복지관을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불교교육원 원장 이순규 박사

"한국불교 미래 교육불사에 있어"



이순규 교수(서남대 의과대학병원·사진)는 광주전남지역 재가불교의 대부로 불린다.

서남대 의과대학병원 교수로 진료와 강의에 바쁜 이 교수를 늦은 시간 병원 근처에서 만났다.

"불교문화에 애정을 갖고 쉼 없이 달려왔는데 어느새 불교계 원로라고 불리더군요."

이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광주불교교육원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불교교육과 문화 운동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단체다. 이순규 교수는 초대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 2대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에 이어 3대 원장에 취임했다. 광주불교교육원은 현재 불교문화대학대학원, 성보해설사 과정 등을 운영중이다.

"출가와 재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말로만 외칠 뿐 하화중생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불교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하는 이 교수는 "교육불사만이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희를 앞둔 이순규 교수의 불연(佛緣)은 1959년 의과대학 재학시절 전남대에서 현공 윤주일 법사의 '불교학 개론' 교양과목 강의를 들으며 시작됐다. 윤 법사의 강의를 듣던 이 교수는 부처님 가르침의 매력에 흠모돼 주저 없이 불교에 입문했다.

전남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61년 이순규 교수는 전남대 의과대학 불교학생회를 창립했다. 1962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창립될 때는 초대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어 이 교수는 상인 스님(광주 관음사 주지)과 함께 '불교 보문회'를 결성했다. 불교 보문회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불교유치원인 보문유치원이 설립됐다. 불교 보문회는 청소년, 청년회 등으로 포교의 발을 넓히며 대중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단체다.

광주에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1년에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을 맡아 대불련 전 남지부장으로 봉축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동수 열사와 함께 봉축행사를 진행했다. 김동수 열사는 1981년 계엄군에 의해 도청에서 산화했다.

이순규 교수는 지금도 당시 생각을 하면 눈시울이 젖는다.

"동수 부모님과 함께 5·18묘역에 가 동수의 주검을 확인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 후 '김동수 열사 추모사업회'를 도맡았다. 조선대에는 추모사업회가 건립한 김동수 열사의 추모비가 있다.

이순규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 후 남도불교문화연구회를 결성, 불교문화운동에 매진했다.

남도불교문화연구회로 시작된 이 교수의 불교문화에 대한 애정은 광주불교교육원에서 나타난다. 광주불교교육원이 진행한 문화유적 답사만 75회, 강좌는 셀 수 없이 많다. 이 교수 사저에 있는 몇 십만 장에 달하는 문화재 슬라이드 필름이 그의 불교문화에 대한 애정을 증명한다.

이 교수의 마지막 바람은 불교교육 사업이다.

이순규 교수는 "세계는 현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종교를 찾고 있다. 그런 종교가 바로 불교"라며 "전쟁이 없는 평화, 자연과 융합하는 종교가 불교인 것에 불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올겨울 추위, 난방비 걱정 끝!

냄새없고 전기료가 부담없는 태성전기난로로 해결하세요!


NS-76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2.5kW.약: 1.2kW.
• 회전기능 : 좌우 90도
• 높이조절 : 상하. 135㎝ ~ 100㎝
• 중량 : 약 8.5kg
• 크기 : 반사경(60㎝) 높이 : 135㎝

●산업용(공장, 기업체) 20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5kW×8시간=1,358원
(안전인증번호) NS-7600 : HH07142-2008D
특별할인가: 19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태성원통형 고열량 / 카본히터
사용장소/공장용·업소용·농업용·사무실용


NS-78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1.8kW.약: 900W.
• 회전기능 : 좌우 90도
• 높이조절 : 상하. 135㎝ ~ 100㎝
• 중량 : 약 6.5kg
• 크기 : 반사경(54㎝)높이 : 135㎝

●상가용(15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kW×8시간=978원
(안전인증번호) NS-7800 : HH07142-1004C
특별할인가: 17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강력난방
국내생산
1년간 A/S


NS-7000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난방비 90%절약!!!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kW×8=978원


NS-7200

태성전기 난방기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NS-7200(적용면적 : 5평형)
열량 / 1.8kW • 사이즈 / 355×660mm • 무게 / 3.5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kW×8=978원

◀NS-7000(적용면적 : 10평형)
열량/ 2.9kW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9kW×8=1,575원

100% 국내산 /중국산과 비교불허!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무소음 / 무취 / 무연

일반히터는 히터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주 사용처 : 사무실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 / 주점 / 팬션)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태성전기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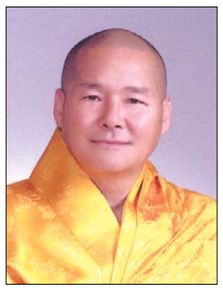
www.tsheater.com / www.태성난로.com 태성전기난로 : (NS-7000) 98,000원 / (NS-7200) 78,000원 문의전화 080-001-0022 입금계좌 :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택배비 2,800원 소비자 부담)

우리 종단을 말한다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현오 스님

"자각각타 각행원만 가르침아래 포교"

"승방 · 공한지 · 성읍 · 항맥 · 부락 · 마을 중의 어디에 있거나, 들은 바와 같이 부모 · 친척 · 선우 · 우인 등을 위해 힘자라는 데까지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듣고 나서 기뻐하여 다시 부처님을 대신해 가르침을 설할 것이며, 그것을 들은 사람 역시 기뻐하여 부처님을 대신해 가르침을 설해서 차례차례로 영향을 미쳐갈 것이다." (법화경)


현오 스님.

한국불교법륜종(종정 유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각타(自覺覺他)하고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가르침을 받들고 전불자들을 대상으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상단예불 각단예불 불공시식 등 불교의식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종단은 창종 직후부터 '호국선열 6 · 25전쟁 군경민 수륙고혼 천도대법회' '예수시왕생칠재 및 영산대재' 등 다양한 법회를 봉행하고, 1992년 월간 <법륜종보>를 창간해 문서포교에 앞장선 결과 현재 100만여 신도들이 법륜종풍 선양에 매진하고 있다. 2001년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장병 6500명을 대상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하는 등 군포교에도 한창이다.

인터넷통해 불교 쉽게 알수 있도록 길 열어

법도생(傳法度生)하고자 1988년 11월 30일 창종했다. 역사적으로는 선종 제일조인 가섭 존자로부터 연원된 석옥청공 선사의 법통을 이어받고, 태고보우 국사의 법맥을 면면히 계승하고자 한다.

법륜종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花衆生)의 시대적 사명감과 원력으로 총본산 보현정사(전남 목포시 용해동)를 포함 종단 산하 200여 사찰에서 250여 스님이 수행 ·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단의 내실을 다지는 방편으로 1989년 2월 경기도 봉덕사에 제1기 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9월 충남 보명사에 종단 중앙연수원을 개원하는 등 종단 승가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2001년 불교의 식교육원을 개원,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자들의 신행생활 지원에 힘쓰고 있다.

법륜종은 불자들이 보다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beopryun.org) 일반자료실 코너를 통해 사찰예절, 불자의 자세와 행동(가부좌 · 합장 · 삼배법) 등을 동영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외에도 △초심자를 위한 불교생활 기초교리 △부처님 전에 삼배하는 이유 △오체투지하는 법 등 불자들이 궁금해 할 법한 정보도 제공한다.

앞으로도 본 종단은 종단 소속 스님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국가 · 사회 및 신도들을 위한 다양한 법회를 통한 전 종도의 화합으로 불국토 건설 이바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041)734-5371

정리=김진성 기자

천태 재가불자 1200명 동안거

12월 구인사 설법보전서 결제식 봉행

경제 불황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추운 겨울을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천태종 재가불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한달간의 동안거에 돌입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2월 5일 충북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제96회 무자년 동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교무부장 유정 스님의 사회와 책임부전 화산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이번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동안거 입제 재가불자 1200여 명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천태종도 2000여 명은 12월 5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동안거 결제식을 거행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바로 알고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며 "추운 겨울 마음자리를 잘 정해놓고 수행하라"고 법문 했다.

이어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결제사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며 "번뇌 망상을 거두고 본래의 참 성품을 찾기 위해 '반야의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는 관음보살의 서원을 돛대로 삼아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서방극락 세계가 십만억불국토를 지난 자리에 있다 하지만, 칠일칠야 동안 일심으로 염불한다면 능히 다다를 수 있다'는 <아미타경>의 법문을 언급하며 "오늘 결제에 임한 대중들은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에서 당당한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안거에 참가한 재가불자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설선당, 인광당 4 · 5층 등에서 한 달간 기숙하며 매일 12시간 수행정진 한다. 안거를 마친 신도들에게는 이수증이 수여되며, 해제식은 2009년 1월 4일 오후 10시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된다.

천태종이 매년 여름과 겨울 봉행해온 재가불자 안거는 다소 기복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신행형태를 탈피하는 계기가 됐다.

또 매번 1000명 이상의 재가불자가 참석함으로써 천태종도들이 일상 속에서 관음정근을 닦고, 신심과 수행력을 높이는 집중수행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천태종은 구인사 재가안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도들을 위해, 같은 기간 전국 말사 단위로 매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 30분까지 정진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경제 한파 속 각 종단도 살림 긴축

태고종 등 2009년 예산 동결 · 소폭증가

고용율 · 실질 임금 감소, 대출금리 상승 등 잇따른 경제 한파로 인해 유래 없는 불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각 종단도 살림긴축에 나섰다.

태고종 종앙종회(의장 인공)는 12월 11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96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하고 내년 종단예산을 65억 842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동결에 가깝다. 총무원의 복지후생비, 법인운영비 중 수송비 예산 등이 증가했으며, 교육기관지원비 등이 감소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도 내년도 예산을 2008년 대비 4억9000만원 증가한 110억 8184만원으로 확정했다. 증액된 부분은 신도 포교 및 홍보분야 3억원, 승려 및 사회복지비 2억원 등이며, 신규 사업을 최소화해 재정을 긴축하고 2011년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에 대비해 기념사업비를 소폭 증가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2009년 예산을 137억 9900만원으로 확정, 지난해(182억 6000만원)에 비해 약 44억원을 삭감했다. 2008년도 예산의 경우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던 반면 2009년 예산에는 빠진 것으로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이외에도 관음종 예산인상률 5% 내외 예정, 총지종 예산 1% 인상 등 대부분의 종단이 2009년 예산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소폭증가로 확정했다.

김진성 기자

대한불교미타종 월정 대종사 종정추대

12월 7일 신촌 거구장서 추대법회 봉행



대한불교미타종은 12월 7일 거구장 컨벤션센터에서 월정 종정추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미타종 종정 추대법회가 12월 7일 신촌 거구장 컨벤션센터에서 봉행됐다.

신임 종정 월정 스님, 총무원장 회암 스님, 권성우 재단이사장,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건우 공동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법회는 △봉행사 △신임종정 행장소개 △추대패 및 불자 증정 △종정법어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미타종 제2세 종정으로 추대된 월정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광명이 우주에 충만하지만 중생계는 여전히 번뇌에 속박되고, 윤회의 미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보배와 같이 생각하고, 자비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등 부처님 말씀에 의존해 살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월정 대종사는 1981년 벽암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한 후 1992년 미타종 교육원장, 1999년 미타종 총무원장, 2000년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 이사 등을 역임하고 2008년 대종사 품계를 품수 받았다.

(02)2242-1049

김진성 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송"

연합불교방송의 날 기념법회 봉행



12월 10일 열린 '연합불교방송의 날' 기념법회.

연합불교방송(대표 향덕 · 율산 천만사 조실)이 12월 10일 충북 옥천 명가에서 '연합불교방송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세계불교승왕청 승왕 인왕 스님(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연합불교방송회장 신풍 스님(대한불교대원종 종정)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연합불교방송(www.cbc108.co.kr)은 1999년 개국한 후 다양한 종단의 법회 및 스님들의 법문을 동영상으로 제작, 방송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영상포교로 불교대중화에 앞장서왔다. 해외 시청자들을 위한 영어 일본어 등 5개국어 번역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새로운 100년을 꿈꾸다"

진각복지재단 10주년 기념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은 12월 8일 W컨벤션센터에서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자리에서 회정 정사는 "진각복지재단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진각종의 서원과 수행이 회향되는 복지구족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3회 진각복지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제3회 진각복지대상에는 △전승법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장 △옥인어린이집 도승실 원장 △금호어린이집 이미희 원장 △본심어린이집 민행숙 원장 △나리어린이집 남경희 원장 △신내어린이집 김선옥 원장 △옥인어린이집 김영숙 원장 △삼양어린이집 정승아 원장 △장위실버복지 황은미 센터장이 수상했다.

이상언 기자

공 고

"대한불교 총화종" 종도님들에게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 총화종을 진심으로 애종하고 아끼는 종도님들께, 교묘하게 등기이전 된 창신동 사옥(종단재산)을 되찾기 위해 **"대한불교총화종 재산환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회 사무실 :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사정리 564번지 정혜사 (031-531-7749)

◆ 위원장 : 민호 (011-9894-7236)

◆ 위 원 : 법경. 법광. 법오. 설오. 대오. 남오. 혜성. 반공. 운산

대한불교총화종 재산환수 대책위원회 일동 합장

수 제 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4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해 서울과 부산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서울지역 강의 (장소 : 서울 조계사 근처)
- ○ 개강일시 : 1월 5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부산지역 강의 (장소 : 부산 초량동 부산컴퓨터과학고 정문 앞)
- ○ 개강일시 : 1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목탁 지참)
- ○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3.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4. 신청방법 : 전화접수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신분증 사본)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733-1959

"부처님 은혜 갚으려면 부처님 뛰어 넘으세요"

강 사 :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
주 제 : '벽암록' 제11칙 '황벽 주조한'
일 시 : 2008년 12월 9일 저녁 7시
장 소 : 서울 기원정사 법당
주 최 : 불천강경협회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기원정사(회주 성파, 02-736-0367)에서 재가불자 수행의 모델이 될 '불천강경법회(不千講經法會)'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약 70분간 진행된다. 〈화엄경〉과 〈벽암록〉을 교재로 매주 번갈아 가며 진행되는 도심 속 마음 수련회다. 법당에 자리한 불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법계에 귀의하는 향수해례(香水海禮)를 시작으로 강연이 이어졌다.

강사로 나선 신규탁 교수는 '불천강경법회'의 취지를 이렇게 말한다.

"불교는 이웃 종교에 비해 현대적인 포교가 늦게 마련됐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재가법회는 아예 없었고 개인 불공 위주였지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재가불자 법회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회에서는 반드시 부처님 말씀과 조사스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분들의 손에 실제 생활 속에서 불조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안내 지도를 쥐어드려야 합니다."

〈화엄경〉 〈벽암록〉을 교재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묻자 신 교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한국불교 전법의 계보는 태고보우 선사를 중흥조로 하는 선(禪)의 전통에 있으면서, 이와 함께 화엄의 교학으로 선을 돕는 법성종(法性宗)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회에서도 교재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실천하기가 어렵지,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불자들은 마음을 깨치고 이와 함께 보현행을 해야합니다."

이날 법회 주제는 〈벽암록〉 가운데 제11칙 황벽 스님이 이야기 하신 '황벽의 술지게미 먹는 놈(黃蘗酒糟漢)'이다.

#禪만 있고 선사가 없구나

중국 북송 시대에 편찬된 〈벽암록〉이 전하는 진실은 '실제로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나라 때 활동하던 여러 선사께서 제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소재로 설두중현 스님이 〈설두송고〉를 만드셨고, 이 〈설두송고〉를 원오극근 스님이 선방 수좌들에게 강의했습니다. 이 강의가 나중에 모여 〈벽암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오 스님의 제자 대혜종고 스님은 "선어록을 말로 해석해서는 선의 밝은 도리를 깨우칠 수 없다"며 이 책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문자에 매이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경책이겠지요. 그 뜻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황벽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술 찌꺼기나 먹고 진짜 술을 먹는 듯 구는 놈들이다. 이처럼 수행을 한다면 언제 깨닫겠는가? 당나라 온 천지에 선사가 없는 줄 너희들은 아는가?"

황벽 스님이 이렇게 소리치자 어떤 스님이 "여러 총림에서 대중을 지도하고 거느리는 자는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은 "선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선사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답합니다.

황벽 스님이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다가 언제 깨닫겠는가 꾸짖고 계시죠. 그러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었고, 이에 스님은 제대로 된 선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집안의 내력을 보면, 임제 선사의 스승이 바로 황벽 선사이고, 황벽 선사의 스승이 백장 선사이고, 그 위의 스승이 마조 선사이고 남악회양이고 육조혜능입니다.

#스승의 대기대용(大機大用)

젊은 시절의 황벽 스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황벽 스님이 젊은 날 백장 스님 처소를 방문했는데, 백장 스님은 한 눈에 젊은 수자가 참 쓸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황벽 스님이 그곳을 떠나 강서 땅에 백장 스님의 스승인 마조 스님을 뵙겠다며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은 "마조 스님은 돌아가셨네"라고 답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원오 스님은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마조 스님을 뵙겠다고 한 말이 과연 열반하신 것을 알고 만나 뵙고자 한 것일까? 모르고서 만나 뵙고자 한 것일까?"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벽 스님은 "복이 없고 인연이 적어 꼭 만나 뵙고 가르침을 청하고자 했으나 뵙지 못했다"며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께 하셨던 말씀을 전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이 두 번 마조 스님을 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백장)가 마조 스님을 뵙자 스님이 불자(拂子, 선종의 장엄구이자 전법의 증표)를 곧추세우셨지. 그리고 물으셨네."

"이것이 불자로서의 작용인가? 불자를 떠난 작용인가?"

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술지게미가 아닌 진짜 술이겠지요. 이 '참맛'은 불자와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불자와 무관하게 보여주려 한 행위일까요? 마조 스님은 선상 모서리에 불자를 걸어 놓으시고는 한참동안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백장아. 너는 앞으로 두 입술을 나불거리며 어찌 중생을 구제하려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이 불자를 뺏으려 했고 마조 스님이 다시 불자를 곧추세우며 제자 백장 스님에게 "이것이 불자로서의 작용입니까? 불자를 떠난 작용입니까?"라고 되묻습니다. 백장 스님은 그 불자를 선상 모서리에 다시 걸어 놓지요. 그러자 마조 스님은 위엄스럽게 한 차례 소리를 꽥 질렀고 그 소리에 백장 스님은 3일 동안 귀가 멀었다고 합니다. 백장 스님은 황벽 스님에게 "그대도 이 훗날 마조 스님의 법을 계승하지 않겠는가?" 묻습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은 "싫습니다. 이제야 스님의 대기대용(마음의 틀)을 알았습니다. 스승을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불법 문중에서 참선하고자 한 자들의 대가 끊길 것입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스승을 뛰어넘어야만 그것이 스승님에게 은혜 갚는 것이다"라고 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스승 부처님께 은혜 갚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보다 더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은혜 갚습니다.

황벽 스님이 하루는 백장 스님에게 "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의 등불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은 아무 답이 없습니다. 황벽 스님은 "앞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자답하여 서원을 세웁니다. 이 말없는 대답이 하늘을 뚫고 지축을 흔듭니다. 위대한 가르침은 언어가 끝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지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말이 지시하는 내용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 자체에 얽매이죠. 그 말의 속뜻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라

황벽 스님과 제자 임제 스님과의 만남에도 사연이 깊습니다. 임제 스님이 황벽 스님 회하에 있을 때 목주 스님이 수좌로 있었습니다. 목주 스님이 어린 임제 스님에게 "그대는 왜 큰 스님(황벽)께 법을 구하지 않는가?"라고 연유를 묻자, 임제 스님은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목주 스님이 시키는 대로 "어떤 것이 불법의 뚜렷한 대의입니까?"를 묻다가 황벽 스님에게 몽둥이만 세 차례 맞고 돌아옵니다.

임제 스님은 인연이 없다 여기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고자 황벽 스님을 뵙게 되는데, 목주 스님은 미리 황벽 스님에게 살짝 귀띔해 임제가 뛰어난 제자임을 전합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은 "나도 알고 있다"고 답하지요. 황벽 스님은 임제 스님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바로 고안 여울가에 주석하는 대우(大愚) 스님을 뵙도록 하라"고 일러줍니다.

임제 스님이 대우 스님을 뵙고 몽둥이질만 당한 하소연을 하자 "황벽 스님이 노파심이 간절해 그대에게 사무치게 수고한 것을 어디서 잘잘못을 따지는가"라며 호통 칩니다. 그 순간 임제 스님은 홀연히 크게 깨우칩니다. 그리고 "황벽불법무다자(黃壁佛法無多子)"라고 말하지요. 전거를 찾아보면 '황벽의 불법이란 분명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절하지 않고 단도직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분명함이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선 수행자들이 여러 가지로 평창하기도 하고 선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하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 이 소식을 보여주기 위해 술지게미만 먹고 술을 먹은 줄 착각하는 중생들에게 회초리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짜 술을 먹고 술맛을 봤다 말해야겠지요. 남이 설명해 놓은 맛을 보고 불법을 맛보았다고 여기는 세간인들을 일깨우는 바가 큽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물었을 때, 말로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인생은 네가 직접 살아봐야지 누가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선사의 스승들께서 불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자가 물었을 때 호통 친 것은 네가 직접 살며 깨우쳐야 할 네 몫이라는 점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삶은 우리 당사자의 실존적인 몫입니다. 당사자 본인의 직접 체험을 권하는 것이, 〈벽암록〉 제11칙 '황벽의 술지게미 먹는 놈(黃蘗酒糟漢)'에서 전하는 핵심입니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 "문자에 매이지 말고 마음의 문 열어 선도리를 알아라
> 술지게미 먹고 술 먹었다 착각하지 말고 직접 깨쳐라"



서울 기원정사 법당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불자를 대상으로 강경법회가 열린다. 〈화엄경〉 〈벽암록〉을 통해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말씀을 삶에서 직접 구현하고자 하는 열의가 뜨겁다.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무선마이크 무료보시 합니다!
2008년 12월 ~ 2009년 1월 中 앰프, 스피커 설치 사찰에 한함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음질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죽을 각오로 참선 하면

법흥 스님 (송광사 회주)

불교는 자기 마음안에서 찾는 관심일법
번뇌를 끊고 반드시 피안에 들겠다고 기도해



법흥 스님 1931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대구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영 미래사에서 3년간 은사 스님을 모시고 공부. 그 후 동화사 금당선원 · 도봉산 망월사 · 오대산 상원사 · 김천 직지사 · 문경 김룡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행정진. 1974년부터 77년까지 송광사 주지, 1984년 송광사 유나 역임. 이후 34년째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2008년 대종사 법계를 받았다.

송광사에 들어서자, 우뚝하게 버티고 있는 조계산의 늠름한 기상과 훤칠하고도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당우들, 거침없이 쭉쭉 뻗어 내린 골기와 하며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남성미가 느껴진다. 법성도 형식을 띤 가람배치로 인해 비를 맞지 않고도 온 도량을 다닐 수 있을 만큼 기와지붕들이 귀를 맞대고 있어 조계산에서 내려다보면 아기자기한 맛도 있으련만, 송광사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백척간두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고야 마는 서릿발 같은 기상이 느껴졌다.

지금으로부터 800여년전, 고려 때 보조 지눌(普照知訥)스님께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통해 당시 타락한 고려 불교를 바로잡아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한 곳이 바로 송광사이다. 지눌 스님의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은 마음을 바로 닦음으로써 미혹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그 방법으로 선정과 교학을 같이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시하였다. 즉 정과 혜는 한마음에 통일되어 항상 균형을 지녀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지눌의 결사운동은 정법(正法) 불교로 복귀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당시 불교계를 혁신하고 재건하기 위한 선언서였다.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불교가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송광사는 지눌 스님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국사(國師)를 배출한 곳이기에 청청한 그 기상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근래에 와서는 현대 불교사에 큰 획을 그은 효봉 선사께서 주석하셨던 곳이기도 하다.

효봉 스님의 상좌인 법흥 스님은 송광사 화엄전 방우산방(放牛山房)에 주석하고 있다. 주석처 이름은 월정사 외전 강사였던 스님의 대학 은사 조지훈 선생이 머물던 '방우산장'에서 따왔다. 법흥 스님의 거처는 작은 불교도서관이다. 동국역경원에서 편찬한 한글 대장경, 고려 대장경, 신수대장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경전만으로도 한 벽면을 채우고도 남았다. 거기다가 선교 강의에 참고할 일본서적과 조지훈 전집 등 일반 대중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이 서가를 차지하고 있다. 스님은 방우산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책을 건네주시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흥 스님은 어릴 때부터 신심이 깊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소풍을 가면 인근 절에 들러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곤 했다. 대학시절에는 학교 근처의 안암동 개운사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했을 정도로 신심이 남달랐다. 대학을 졸업한 뒤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취직보다는 출가에 더 비중을 두었고, 부모님이 다니던 문경 대승사를 찾았다. 마침 산내 암자인 묘적암에서 일타 스님이 홀로 정진하고 있었다.

일타 스님의 권유로 하루에 3500배씩 사흘 동안 일만 배를 올린 뒤 출가를 결심했다. 일타 스님이 정성스레 머리를 깎아주었고, 묘적암에서 석 달 동안 일타 스님을 모시면서 공양주노릇을 했다. 일타 스님은 큰 절에 가야 배울 것이 있다면서 대구 동화사에 주석하고 있던 효봉 스님을 찾아가라고 일렀다.

효봉 스님은 법흥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얼굴이 중 상이고 사주에도 불도가 들었는데 왜 이제까지 속세에 있었느냐"며 흔쾌히 출가를 허락해 주셨다. 8년간의 장좌불와(長坐不臥)와 오후불식(午後不食) 등 치열한 정진으로 큰 깨달음을 이루고 출가 12년 만에 송광사 조실에 추대됐던 선가(禪家)의 전설과도 같은 효봉 스님으로부터 출가의 허락을 받았기에 법흥 스님은 그 당시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효봉 스님은 흘러내린 솟농을 긁어모아서 심지를 박아 다시 불을 밝혔어요. 걸레도 너무 짜면 빨리 해진다고 살살 짜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중 됐으면 참선밖에 더 있느냐? 강사가 죽을 때 후회하며 죽는다.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운다 해서 생사를 해탈하느냐? 평범하고 미혹한 범부를 고쳐서 부처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 죽을 각오로 참선하라는 말씀을 늘 하셨지요."

스님은 여기까지 왔으니 법문을 들어야 한다면서 첫째는 왜 불교를 믿어야하는 지를 설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인생고를 해탈하고 피안인 극락에 가는데 있어요. 생멸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종교가 불교요, 사람 사람마다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자력으로 피안에 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빛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설교하셨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일체법을 등불로 삼을지언정 남을 믿거나 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들딸을 공부시키고 먹고 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신뢰하고 애착한 내 부모와 처자도 어느 날 죽음 앞에서는 앞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합니다."

스님은 부운거사의 시 한 구절을 읊어주시면서 가족에 대한 착도 부질없음을 깨우쳐주었다.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되 집착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처자와 권속이 삼대같이 걸려있고
금은과 옥백 보물 태산같이 쌓였어도
죽음에 다달아서 내 한 몸만 홀로 가니
이것도 생각하면 허망할사 뜬구름일세.

"자기가 위하는 사회, 국가, 인류도 결코 자기의 이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며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부모의 인연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기 마련입니다. <법화경>에서도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생멸이 있으되 마음은 생멸이 없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육신을 끌고 다니는 마음, 이 주인공을 찾는 것이 불교이며, 참선입니다. 견성을 하였다 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번뇌의 불꽃이 사라지니 멸도(滅道)요, 자신의 자성을 보았으니 견성입니다. 불교는 자기 마음 안에서 찾는 관심일법(觀心一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흥 스님은 29살에 출가를 하였으니 늦깎이 출가인 셈이다. 늦은 출가를 만회하기 위해 혹독한 수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송광사 선원 · 동화사 금당선원 · 양산 통도사 보광전 · 합천 해인사 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정진했다. '무자(無字)화두'를 들고 도봉산 망월사 · 오대산 상원사 · 김천 직지사 · 문경 김룡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을 했지만 진전은 없고 앞이 컴컴할 뿐이었다.

그래서 택한 것이 기도와 주력이었다. 법흥 스님은 오대 적멸보궁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기도 도량을 돌며 일심으로 기도했다. 해인사에서는 성철 스님의 권유로 삼천 배를 시작해 340일간 17만 배를 올렸고, 또 340일 동안 하루 4번 1시간씩 법당에서 마지를 올리며 기도를 올렸다. 그때 기도 발원은 오로지 '자신과 부모님과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의 해탈' 이었다.

"많은 신도들이 불보살님께 자신의 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건 기도가 아니지. 진정한 불자라면 번뇌를 끊고 반드시 피안에 이르겠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옳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에 시주 많이 하고 스님들이 축원해 준다고 해서 극락 가는 것이 아니라, 극락은 번뇌를 여의어야 갈 수 있는 곳임을 알아야 해요."

스님의 법문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막힘이 없다. 송광사의 역사와 역대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 은사 효봉 스님의 일생과 조지훈 선생의 문집 등을 말씀하시는데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다. 법흥 스님에게 사형이 되는 구산 스님은 "자네는 전생에 경전을 통달한 유명한 강사였을 것 '이라고 부러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일체유심조’ 깨달아

선지식을 찾아서 법흥



워했다”고 한다. 특히 날자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부처님의 말씀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했다는 ‘아난존자’에 비유되기도 한다.

스님은 요즈음 돈 때문에 천륜마저 어기는 세태에 대해, 이혼을 결혼하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다.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의 인연과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십천겁(十千劫)이요, 형제의 인연은 구천겁(九千劫)이요, 부부의 인연은 팔천겁(八千劫)이요, 일가친척의 인연도 칠천겁(七千劫)이라 하셨어요. 그러니 나와 인연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얼마나 지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도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기 마련이니 모든 것이 연기의 원리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생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엮어 나가야 돼요."

법흥 스님은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라면서 마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다.

“마음은 상이 없는 무상(無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만물을 지배하지요.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이 정토가 되기도 하고 슬픈 고해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이 마음을 갈고 닦고 기르는 공부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修心)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養心)이요,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用心)입니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지배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정토에 갈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청정(淸淨)한 마음 즉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임제 스님은 청정심이 곧 부처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맑을 때 부처의 마음이 되는 것이며, 내 마음이 더러울 때 축생의 마음이 되는 것이지. 광명정대(光明正大)한 마음, 탐진치가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둘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만 지녀도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십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들여다보고 수행해 나가야 한단다. 수행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것이 ‘심우도(尋牛圖)’라면서 설명해 주셨다. 소를 찾는 그 과정을 열 개의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서 ‘십우도(十牛圖)’라고도 한다. 십우도의 첫째 그림은 소를 찾아 나서는 심우(尋牛)로 시작한다. 그 다음은 소의 자취를 보는 견적(見跡), 소를 발견하는 견우(見牛), 소를 얻는 득우(得牛), 소를 길들이는 목우(牧牛), 소를 타고 돌아오는 기우귀가(騎牛歸家), 소를 잊어버리는 망우존인(忘牛存人), 자신마저 잊는 인우구망(人牛俱忘), 맑고 깨끗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반본환원(返本還源), 마지막 열 번째는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에 깨달음을 베푸는 입전수수(入廛垂手)이다.

“마지막 입전수수(入廛垂手)의 게송을 보면 ‘사립문 닫고 홀로 앉으니 천성(天聖)도 알지 못하네. 자기의 풍광(風光)을 묻어 버리고 선현 따라 밟은 길도 모두 져버렸다. 표주박 차고 거리에 들어 지팡이를 끌고 집집마다 다니며 스스로 붓다를 이루게 한다’고 하잖아요. 불교는 자력의 종교이기에 스스로 부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우도’는 가장 현대적인 선어록이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법흥 스님은 예까지 왔으니 선물을 주어야겠다면서 서가에서 미리 준비해 둔 신간을 여러 권 빼오셨다. 스님은 불일서점에서 좋은 책을 한 가득 사다놓으셨다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다. 무거워서 다 들고 갈 수 없다면서 두어 권을 내려놓자, 멀리 길 떠나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먹이지 못하고 보내는 것처럼 스님은 참으로 섭섭해 하셨다.

법흥 스님의 설명을 떠올리면서 송광사 승보전에 그려진 ‘심우도(尋牛圖)’를 다시 한 번 둘러보았다. 물 절로 흐르고 꽃 절로 붉게 피어 아름답고, 나무잎새 절로 단풍들어 땅으로 돌아가니 자연은 시시비비가 없다. ‘저 잿빛 이끼 청청히 자라거든 내 피도 젊어져 새 봄에 다시 참회하리라’는 어느 시인의 시구를 읊조리면서 들어가 보지도 않은 조계산을 빠져나왔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3〉 석주 큰스님

강석주 큰스님은 오유지족(吾有知足)한 대비보살이다. 190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사익재 글방에서 한학을 배우고, 9촌 아저씨를 따라 서울 필방에서 일을 보게 되었다. 선학원 남전스님께서 글씨를 잘 쓰셨기 때문에 붓심부름을 다니다가 14세에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6년 동안 행자생활을 거쳐 범어사 강원에 들어가 6년, 오대산 상원사, 금강산 마하연, 덕숭산 정혜사, 묘향산 보현사 등 선방에서 또 6년을 지내는 동안 효봉 · 청담 · 혜암 선지식 등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다.

스님은 46년 경봉 · 용담 · 대의 스님 등과 함께 불교개혁운동에 앞장섰고, 49년 동산 스님께 비구계를 받고, 51년 김해 은해사 주지가 되었다. 53년 효봉 · 동산 스님 등과 함께 불교정화촉구결의대회를 갖고 이듬해 대의 스님과 같이 정화운동을 발기했으며, 58년 불국사 주지가 되었다. 60년에는 사태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이 되었다가 61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을 지내면서 운허 스님과 함께 현 동국역경원의 전신인 법보원을 설립해 불교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지금도 만해 스님의 스승 용담 스님께서 번역한 〈선가구감〉 〈한글 범망경〉 〈금강경〉 〈보현행원품〉 〈유마경〉 등을 가지고 있다. 운허 스님은 이때부터 〈부모은중경〉 〈승만경〉 〈금광명경〉 〈무량수경〉 〈능엄경〉 〈화엄경〉 〈열반경〉 〈법화경〉을 번역하여 유명하였고, 탄허 스님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 매일같이 수십 명의 손님을 치뤄야 할 정도였다.



나는 이 당시 선학원에서 책이나와 출판기념회를 한다든지 법보시가 있으면 도반들과 함께 선학원에 들려 자주 뵈었다. 당시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으로 계셨지만 항상 짧은 배잠방이에 하얀 띠를 두르고 소매를 걷고 후원일을 하고 계셨다.

선학원은 원래 남전 · 도봉 · 석두 세 스님이 3000원씩 돈을 내어 창건하였으나, 뒤에 성원 · 용성 · 만공 스님이 동참하면서 전국 79명의 선사들이 모여 선학연구회를 발족하면서 불교정화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한국불교 지성인치고 들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서당에서 익힌 글씨와 남전 스님의 선서(禪書)까지 곁들여 글씨가 ‘봄 바람 가을 달’처럼 밝고 시원하다. 많이 있어도 혼잡하지 않고, 하나를 들고 보아도 외롭지 않다. 그 속에는 눈 서리와 같은 계율과 따뜻한 사랑의 자비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서나 명예를 위해서는 한 작품도 쓰지 아니하면서도 불사를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대중 절 불사나 군법당 불사를 위해서 수백 장, 수천 장 쓰시는 것을 보았다. 붓글씨 때문에 대부분 맨발로 지내셨고 적삼을 벗었다가 손님이 오면 민망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았다. 특히 절 주련을 한글로 쓴 것은 스님으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다.

동국대학교 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는 종비생제도와 승가학과를 만들어 스님들에 대한 학문 탐구의 길을 터놓았다. 77년 조계종 포교원장 소임을 맡을 때는 승려의 자질향상을 위해 중앙교육원을 신설하였고 포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79년 돈암동 보현사에서 중앙승가대학을 시작해 85년 개운사 학교가 생길 때까지 성라암 비구니대학과 합쳐지하 1층 지상 3층, 480평 건물을 지어 능력 있는 혜성 스님에게 물려주었다. 한번은 불교신문을 보시고 연락하여 가니, “돌아가신 법사스님 책을 낸다면서 장하다”하고 일금 30만원을 주시고 금강선원 기로원 건립할 때는 100만원을 보시해 주셨다.

해방 후 우리 불교계의 소망이 역경 · 도제양성 · 포교였는데, 스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실천하였다. 단지 불교정화운동 때 3대 7의 비율로 싸웠는데, “가능하면 대처스님들의 권속에 대해서도 나갈 길을 만들어 놓고 쫓아냈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실수가 많았다”고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였다.

항상 만족할 줄 아는 대비보살…정화·역경·포교의 ‘선봉’

모 연 문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 도량에 법당을 확장함에 있어 여러불자님께 불사를 구하게 되어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에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래 사진은 본승이 홍천부근을 지나다 물이 맑고 깨끗해 손을 씻다 발견한 돌로써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에 나오는 선재동자상과 흡사하여 법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신 불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 도량이 천년을 이어나가는 사찰로 불사를 이루게 불자님들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 감악산 관음정사
주지 석 서화 합장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 1동 147-9
전화 : 031)859-0674 / 011-9246-833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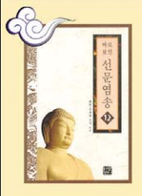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에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선의 묘미 증감 없음에 있어”



㊻ 다선일여

중국인들이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다경>을 지은 육우(陸羽, ~804) 때부터 일반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흔한 일을 ‘다반사(茶飯事)’라고 하듯이 중국인들에게 차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하나입니다. 선승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조주 선사 ‘끽다거’ 차로 무심 · 무집착의 세계 보여줘
차향처럼 선의 세계도 그윽해 표현하기 어려워 ‘다선일여’

당말(唐末)의 조주 선사(778~897)는 워낙 차를 좋아해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융숭하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말하자면 차(茶) 법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끽다거(喫茶去, 차 한잔 드시죠)’라는 말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다선일여(茶禪一如)’란 ‘차(茶)와 선의 세계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다선일미(茶禪一味)’라고도 합니다. 차와 선의 맛이 똑같다는 뜻인데, 음식과 음식의 맛이 똑같다면 이해가 되지만, 차와 선의 맛이 같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대체 차 맛이 어느 정도이길래 선과 같다는 것일까?

먼저 차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작설차(雀舌茶)’란 그 뜻이 차 잎이 참새(雀) 혓바닥 정도만 했을 때 따서 만든 ‘차(茶)’라는 뜻입니다. 작설차에는 곡우 전에 따서 만든 우전차(雨前茶)와 세작(細雀, 작은 잎), 중작(中雀, 보통), 대작(大雀, 큰 잎)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우전차와 세작이 가장 좋습니다.

참새 혓바닥 정도 자랐을 때 따서 만든 세작(細雀, 작은 잎)이나 우전차를 70~80도의 물에 우려서 찻잔에 담으면 빛깔과 향과 맛과 아주 그윽합니다. 한 모금 입에 넣으면 그 느낌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오!’하는 감탄사 밖에는 별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직접 달여서 마셔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냉난자지(冷暖自知)’라고 합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고 더운 지는 직접 만져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인데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괜한 호사치레라고 타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차향은 우전차나 세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도 있습니다. 원두커피를 잘 내려서 한 모금 입에 넣으면 커피 향이 입 안에 가득합니다. 그 커피 향을 당신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오감으로 느끼기는 해도 막상 뭐라고 표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선일미(茶禪一味)’ ‘다선일여(茶禪一如)’란 차의 향도 그윽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선의 세계도 그윽해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미(一味), 또는 일여(一如)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세계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세계’이고 ‘언어도단(言語道斷,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차시(茶詩)를 하나 감상해 볼까 합니다.

조주 선사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차를 대접했네.
趙州道箇喫茶去
하지만 그는 한 방울도 입에 댄 적이 없네.
一滴何曾濕口脣
조주가 수없이 차를 달여 마셨지만 여전히 차향은 남아 있고
趙州喫去尙留香
육우가 수 없이 달여 마셨지만 양(量)은 하나도 줄지 않았네.
陸羽煎來不減量

이 시(詩)는 차의 세계와 선의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1, 2구에서 조주 선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했지만 정작 그는 한 방울도 입에 댄 적이 없다는 것은 무심, 무집착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차를 대접했다면 당연히 그 역시 차를 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잔도 마신 적이 없다는 데서 무심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조주 선사가 마음에 ‘한 잔’이라도 마셨다는 생각이 남아 있다면 그의 ‘끽다거’는 화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선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 4구는 더욱 좋습니다. 선승 조주와 다성(茶聖) 육우가 평생 동안 끓여 마셨는데도 여전히 차 향이 남아 있고 양(量)도 하나도 줄지 않았다는 데서, 마치 <반야심경>에 나오는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더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諸法空相 不增不減)”는 구절을 연상케 합니다. 선의 묘미는 이런데 있습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오?”

㊻ 떡장수 할머니

덕산 스님 일깨운 떡장수 할머니의 ‘삼세심 불가득’
일체 차별경계 초월해 무심으로 사는 도리 일깨워

우리가 ‘점심 먹자’고 할 때의 ‘점심(點心)’이란 말에는 두 가지 어원이 전한다.

하나는 중국 남송 때 한세충(韓世忠)이라는 장군의 아내였던 양홍옥(梁紅玉)의 말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금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양홍옥이 손수 만두를 빚어 나눠주었다. 하지만 군사가 많아서 넉넉히 나눠줄 수 없자 “만두의 양이 많지 않으니까 마음(心)에 점(點)이나 찍으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기충천한 송나라 군대는 10만 대군을 맞아 8000의 병력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점심’의 또 다른 어원은 선종어록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인 ‘떡장수 할머니(老婆)’에게서 유래했다. 용담숭신(龍潭崇信, ?~850) 선사의 우바이 제자로 추정되는 할머니는 덕산선감(德山宣鑑, 780~865) 선사를 한 수 지도해 준 ‘점심 공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덕산의 몽둥이(德山棒)’로 유명한 덕산은 20세 때 구족계를 받고 율장을 배웠다. 그리고 <금강경>을 깊이 연구해 ‘주금강(周金剛)’ 또는 ‘주금강왕(周金剛王)’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30세가 된 어느 날 그는, 남쪽에 가면 “마음이 곧 부처이다”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서 그 본성을 보게 해 부처가 되게 한다(直指人心 見性成佛)”는 돈오선 수행자들을 혼내주기 위해 <금강경> 주석서(疏抄)를 메고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마침 그가 여주(澧州)에 이르자 점심 때가 돼 떡집에 들어가 주인 할머니에게 점심으로 떡을 주문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물었다.

“메고 온 것이 무엇이오?”

“<금강경> 주석서요.”

“내가 스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대답을 하면 떡을 거저 드리겠소. 만약 대답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 떡을 사 드시오.”

덕산 선사가 자신 있게 물으라고 하자, 할머니가 물었다.

“<금강경>에 설하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點)을 찍겠습니까?”

덕산 선사는 말문이 막혔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점을 찍을 수 없고, 현재는 일초도 기다리지 않고 흘러가 버리니 실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점을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 할머니는 용담숭신 선사가 주석(住錫)하고 있는 용담(龍潭)을 안내해줘서 덕산 선사는 그곳을 찾아갔다. 어느 날 밤 용담 선사가 물었다.

“어째서 돌아가지 않는가?”

“어둡습니다.”

이에 용담 선사가 호롱불을 켜서 덕산에게 주었다. 덕산이 받으려는 순간 용담 선사가 훅 불어 꺼버렸다.

이에 덕산이 엎드려 절을 하니 용담 선사가 다시 물었다.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덕산은 지금부터 노 선사의 말씀을 의심치 않겠나이다.”

덕산은 이윽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

“용담(龍潭)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래인데 막상 와 보니, 못(潭)도 없고 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찌합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그대는 지금 용담에 와 있느니라.”

이 말에 덕산은 문득 깨우침을 얻어 30여 년간 스승 곁에 머물면서 보임하다가 법을 이어받았다.

이 일화에서 떡장수 할머니는 알음알이를 자랑하던 덕산 스님의 아상(我相)을 꺾으며 ‘얻을 바 없는 진리(無所得法)’에 대한 분발심을 일으킨 위대한 선지식 역할을 했다.

할머니가 화두로 던진 ‘삼세심(三世心) 불가득’ 공안은 “삼계가 무법인데 어디서 마음을 구하랴!(三界無法 何處求心)”(벽암록)라고 한 반산보적 선사의 공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일체의 만법은 무자성(無自性)이기에 텅 비어 공(空)하다고 하고, 또 무법(無法)이라고 하며, 인연화합으로 생한 법이 본래는 생한 바 없기 때문에 무생(無生)임을 설한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여래를 보리라”(<금강경>)고 설한 것처럼 일체의 차별경계를 초월한 무심으로, 늘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며 살아가는 도리를 일깨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 **‘승만경’ 독송=**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7시~9시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승만경> 독송을 한다. 승만부인 10대원 독송, 前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의 <승만경> 강의와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02)722-2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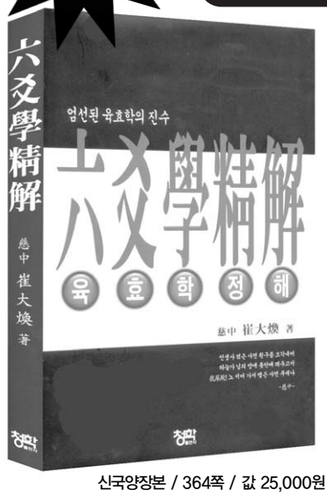
● **‘12연기와 위빠사나’ 법회=**한국위빠사나선원이 2009년부터 월 1회 대구, 경주에서 ‘12연기와 위빠사나’ 법회를 개강한다. 대구 법회는 첫째 주 일요일 대구구도회에서 진행되며 경주 법회는 첫째 주 월요일 경주 배동 정각사에서 열린다. (02)512-5258

● **한달 집중수행=**연방죽선원은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24일까지 봉화 담마로카에서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법주 스님, 바다 스님이 지도하고, 수행참가 인원은 7명으로 일주일 이상 참가 가능자만 신청 가능하다. (010)3214-1255

● **위빠사나 · 사마타 수행 지도=**붓다선원은 12월 25~29일 연기 지장사에서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김열권 법사는 경전에 따라 개인에 맞는 사마타(선정 · 止)와 위빠사나(지혜 · 觀) 수행법을 지도한다. 동참비는 10만원. (041)868-3119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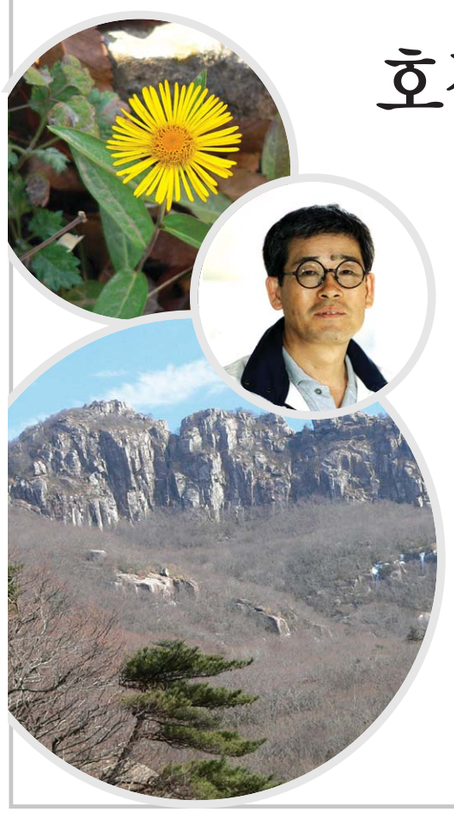
이 시대에 앞서가는 전통 침뜸 의학(동양의학, 경락 경혈학) 초급반 모집
침뜸은 고령사회에 가장 탁월한 의술이다.
체질 개선의 예방 의술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 치료 의술
만성병 퇴행성 질환에 탁월한 치료
언제나 어디서나 자가 치료 가능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다
세계적으로 침술 활용 확산
우리 나라 전통의술
전국은 지금 침.뜸에 열풍중
본인이나 가족중에 중풍,당뇨,고혈압,각종성인병질환,심혈관질환,순환계질환,어깨저림,척추질환,전립선,부인병질환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동양의학과 경락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 대체의학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자신있게 적극 권합니다.
가정에서 응급 처치법으로 필수 !!
● 과정 : 초급(침구기초이론) 3개월, 중급(취혈 및 진단학) 3개월, 고급(임상실습) 5개월
월 · 수반, 화 · 목반 오후 2시 ~ 5시, 저녁 7시 ~ 10시. 매월 초 개강【수시모집】
자세한 수업내용과 시간은 상담 문의 바랍니다.
중의침구사 과정, 양성지도자 과정, 연수과정 모집
중의침구사자격증 획득반, 의사고시반 자격증 초급반 모집
목원 아카데미 MOKWON ACADEMY 서울시 중구 신당동 377-143 진빌딩 301호(지하철 3호선 1번출구 100m)
TEL 02)2233-8803 / FAX 02)2231-8878

六爻學精解
육효학정해
화제의 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엄선된 육효학의 진수!
초보에서 완성까지!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목차부터 배우기 쉽도록 배열이 잘 되어 있으며 육효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본 학문을 연구하거나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국양장본 / 364쪽 / 값 25,000원
동방대학원대학교 육효학 전문가 과정 교수 최대환 저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육효학정해〉 저자 직강 !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청학출판사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108 사찰 생태기행_산사의 숲을 거닐다(가을1) 김재일 지음 | 지성사 펴냄 | 1만7000원



호젓한 숲길에서의 여유



우리나라 산림의 지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 바로 사찰 숲이다. 1929년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우리나라 숲과 나무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뤄졌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사찰 숲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정리해 결집한 것이 <조선 수목쭉류 분포도>다. 8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 산림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숲의 표본이 파괴되고 있다. 정부의 개발지상주의 정책으로 세수원 확보를 위한 개발 사업이 사찰 숲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대형 불사 등 불교 내부의 문제 요인에서도 기인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더 이상의 사찰 숲 환경 파괴는 막아야 한다.

저자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선조들로부터 받은 맑고 넉넉한 사찰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사명감을 안고 사찰 숲의 현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을 7년 동안 준비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40대 초반에 문화 및 환경운동을 시작, 2002년 3월 '사찰생태연구소'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8개 사찰의 숲 생태를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진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했다. 산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세부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관찰이 용이한 식물부터 조류와 곤충, 어류 그리고 동물의 순으로 각기 산속 숲에 어떻게 터를 잡고 살아가며, 개체 수가 늘고 줄어드는 추이는 어떠한지 등을 살폈다.

2003년 폐종양 수술과 재발, 이후 항암치료를 받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의 정진은 계속 됐다.

생태기행을 하면서 저자는 "나무는 심기만 한다고 다 잘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무는 물리적 생육조건과 사람의 정성으로 크는 법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천연덕스럽게 자란 산사의 숲을 찾을 때마다 옛 스님들의 무위자연의 손길이 새삼 놀라웠다"고 말했다.

저자는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 및 동식물의 멸종이 걸린 구체적이며 상징적인 번뇌이자 화두이기에 '108'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 기록대상을 108곳 사찰로 정했다. 108곳 사찰 생태기록이 우리나라 산림 기록으로 후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는 일념으로 7년간의 짧지 않은 여정 끝에 10권의 시리즈 중 그 첫 편을 이번에 펴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승가에서의 삶의 단상들



빈곤한 者의 초상
정각 스님 지음 | 운주사 펴냄 | 8500원

출가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사념들을 잔잔한 필치로 엮은 에세이가 나왔다.

<빈곤한 者의 초상>은 정각 스님(원각사 주지 · 동국대 겸임교수)이 1989년부터 여러 잡지에 게재했던 짤막한 글들을 모아 한 권으로 엮어 낸 책을 개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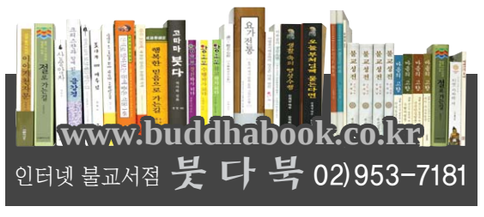
포교 활동에 정진하면서도 8년째 독도 지키기 운동에 정성을 쏟고 있는 정각 스님의 책은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다. 스님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사랑 및 사념의 발자취인 까닭에 스님은 이 책을 '사랑과 사념의 팡세'라 총괄적으로 이름 지었다.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마음의 숲
2	스님도 군대 가나요	지장	클리어마인드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	일아 역편	민족사
5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6	인과경	현담	선
7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8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9	뜰앞의 잣나무	정찬주	미들하우스
10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염화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뜻있는 삶으로 승화하는 자세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스님 지음
문학의 숲 펴냄 | 1만1500원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무소유> <오두막 편지> <홀로 사는 즐거움> 등 많은 산문집을 펴내 일반인들에게 불심을 전해온 법정 스님(前 길상사 회주)이 4년 반 만에 새로운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를 갖고 돌아왔다.

풍요로운 삶속에서 심리적 빈곤감을 느끼고, 나와 상대의 외형적 소유를 비교하며 '~라면 ~했을 텐데…'라는 가정으로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주었음을 믿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은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이 존재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위기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당한 삶의 길을 제시한다.

"흔히 이 육신이 내 몸인 줄 알고 지내는데 병이 들어 앓게 되면 내 몸이 아님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내 몸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을 치료하면서 나는 속으로 염원했다. 이 병고를 거치면서 보다 너그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다."

지난해 겨울 호흡기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병상에 머물렀던 법정 스님은 노년의 아름다움과 나이 듦의 의미, 생로병사의 애환을 순간순간 뜻있는 삶으로 승화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연주의 사상가이자 단순하고 청빈한 삶의 실천가인 법정 스님은 출가 이후 생의 대부분을 산중 오두막에서 홀로 수행하며 지냈다. 소유와 발전만을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 선택한 가난과 간소함속에서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길을 제시해 왔다.

<아름다운 마무리>에는 얼음을 깨어 차를 달이고, 채소 모종을 사다 심고 가꾸는 스님의 산중 삶부터 제철이 돼도 찾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며 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좋은 책과 독서의 의미 등 모두 56편이 담겨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아름다운 마무리'의 의미에 대해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 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나은 기자

한인동포의 아메리칸 드림 성공기



엉뚱한 역마살 인생
김병택 지음 | 1만2000원 | 이채 펴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한인 동포의 성공 과정을 담은 책이 나왔다.

"초등학교 퇴학 후 하는 일 마다 되지 않았다"는 저자 김병택은 갖은 역경을 겪으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6 · 25전쟁 뒤 동두천에서 탄피를 줍고, 해인사 육주사 등지를 돌며 무술수련 등을 하다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운동화 종합 대리점을 30년간 경영했다.

2대째 의사였던 부친의 뜻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이었던 저자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국 최초의 불가마 · 불한증막을 도입했다. 한국식 찜질방인 킹스파&사우나(King Spa & Sauna)는 당시 뉴욕타임스에 소개되는 등 웰빙 문화의 기수로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책은 자신의 어려웠던 청소년기를 돌아보며, 힘겨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한다.

이나은 기자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1>

부처님 생애와 불교 세계관 바로 알자

(이어서) 다섯째, 인연(因緣)은 요즘 말로하면 동기(動機)의 뜻이다. 첫째는 청법자(請法者)의 자세(姿勢)를 서술한 부분이니, 법을 청하는 자세가 여법해야 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청법자의 동기(動機)를 서술한 부분이니, 법을 청하는 동기가 여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자설(自說)은 묻지 않았는데도 법을 설하심이니, 첫째는 법의 개요를 안 뒤에야 청할 수 있는 새 법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중생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를 보이시려고 청치 않는 벗(不請友)이 되어 주심이다.

일곱째, 본사(本事)는 전생에 겪으셨던 일을 서술한 부분이니, 첫째는 부처님의 일이요, 둘째는 제자님들의 일이다.

여덟째, 본생(本生)은 전생에 태어나셨던 일을 서술한 부분이니, 첫째는 부처님들의 일이요, 둘째는 제자님들의 일이다.

아홉째, 방광(方廣)은 방정(方正)하고도 광대(廣大)하다는 뜻이니 대승의 교설을 지적하는 말이다. 첫째는 광대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방정하기 때문이다.

열 번 째, 미증유(未曾有)는 처음 보는 일이란 뜻으로서 불보살의 신통하신 면을 묘사한 부분이니, 첫째는 법 자체가 드높기 때문이요, 둘째는 법의 기능이 광대하기 때문이다.

열 한 번 째, 비유(譬喩)는 알기 어려운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까운 예를 들어 알리는 방법이니, 첫째는 지혜로운 이에게는 먼 사례를 들어, 추측해서 알게 하고, 어리석은 이에게는 눈앞의 사례를 보여서 보면서 알게 하기 때문이다.

열 두 번 째, 논의(論議)는 토론한다는 뜻이니, 첫째는 이론이 복잡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논리의 가닥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 십이인연 중 제삼(第三)의 수기(授記)와 제구(第九)의 방광(方廣)과 제십(第十)의 미증유(未曾有)는 대승의 이론이다. 따라서 소승경론에서는 제외(除外)된다.

◇경전속의 世界(1)

인간이나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공간(空間)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간(時間)의 추이(推移)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라도 변화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출가성도하시고 전법도생하시다가 열반에 드시고, 그 뒤를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갔던 숱한 대화와 크고 작은 사연들, 역시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엮어진 소산물(所産物)이다.

이들 소산물에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챙겨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등 무수한 차별이 있고,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은 차지하고 궂은 것은 피하려는 공통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현명한 위정자(爲政者)는 백성들의 그러한 심리를 잘 이용하여 신상필벌(信賞必罰)의 법칙으로 다스렸고, 내교(內敎)에서는 중생들로 하여금 사악취선(捨惡趣善)케 하시려니, 길흉화복(吉凶禍福)과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법칙을 시설하신 것이 이른바 경전 속의 세계관이다.

이러한 세계관에 근거하여,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이른바 불국토설(佛國土說)이다. 불국토설이란 우리의 오늘이 비록 예토(穢土)이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수행하여 자기의 심성을 밝히고, 중생들을 보살피고, 국토를 장엄하는 등 종교의 삼대요건을 완수한다면 이 땅 그대로를 타방(他方)의 정토와 같은 불국토로 만들 수 있다는 신앙이었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의 선인들은 열심히 포교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상당부분 껴안았고, 백성들 또한 불교가 자신들의 기댈 곳이라는 생각에 하등의 이의가 없었던 어느 시기에는 이 땅을 터놓고 불국토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으니, 향등처처개기불(香燈處處皆祈佛), 간곳마다 등불 밝혀 부처님께 공양했다는 말로, 이 땅이 불국토라고 불렸다는 증거가 충분하건만 요즘은 난데없는 '성시'라는 것이 등장하여 이 땅이 더 이상 불국토일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로 다가 오고 있다.

기위(旣爲) 승산(勝算)이 없을 바엔 미리 투항(投降)하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기사회생(起死回生)이란 말에 중지(衆智)를 모아야 한다. 아직도 대다수 건전한 지식층(知識層)에서는 우리민족의 피와 살이 되어 준 불교계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이 연재를 읽으시고 경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필자인 월운 스님께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527-1954.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❼ 된장야채죽과 동치미

공양주할머니에게 배운 환상의 비결

지난 가을에 참가한 선정수련회에 대한 감회가 남달라, 올 겨울에도 참여했다. 새벽녘, 툭툭 밤을 떨구던 성전사 옆 밤나무는 내게 '놓는 법'을 일러줬건만, 마음의 짐은 여전히 묵직하기만 하다.

모든 것을 털어낸 밤나무는 허허로운 자태를 뽐내고, 법당의 부처님도, 작은 뜰의 사리탑도 변함이 없는 듯 그 자리다. 수행자들을 엄히 이끌어가려는 지도스님의 비장함도, 공양주할머니의 낡고 닳은 몸빼 바지도 여전한데, 구면이라 반가움이 입에 걸린 그 미소만큼은 더욱 밝고 환하다.



성전사에서 된장야채죽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동치미의 비법을 전수 받았다.

고된 수행처에서 불변하는 행복의 시간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밥시간일 게다. 이번 메뉴도 아침에는 죽공양이고, 저녁에는 떡과 과일, 그리고 점심은 밥이다. 지난번 수련회 때, 미역죽의 감회를 잊지 못한 나는 이제나 나오려나 그제나 나오려나 아침마다 절로 기다려진다. 이튿날 아침, 드디어 나왔다. 이번에는 죽도 죽이지만 옆에 곁들인 동치미의 맛이 그야말로 '죽인다'. 그 시원 달달함을 들이킬 때만큼은 머릿속 마음속을 정신없이 휘젓던 그 숱한 망상도 온 데 간 데 없다. 이제는 동치미에 필이 꽂혀 아침 밤낮으로 동치미다. 떡과 과일로 대신하는 저녁공양에도 음료를 대신해 동치미를 한 대접씩 들이키니, 옆의 수행자들이 묘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스님들의 음식 이야기를 연재하던 시절, 죽과 동치미의 힘으로 버텼다는 한 선방스님의 이야기가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던 삼일 째 아침, 모양새로만 보아선 제목을 파악하기도 힘든 정체불명의 죽이 나왔다. 일단 시금치와 콩나물이 드문드문 보이나, 그 함량으로 보아선 시금치죽이라고도 콩나물죽이라 하기에도 무리다. 맛은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던 아욱죽과도 비슷하니, 무언가 살캉살캉 씹히는 맛과 구수함이 일품이다. 미역죽에 이어 '선정의 죽' 2탄이라 할 만하니, 수행 일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양주할머니에게 그 정체와 비법을 물었다.

"양분섭취를 고루 해야 하니께 오만 것을 다 넣었는디. 하도 여러 가지라 기억도 언뜻 안 나네. 그러니까 김치 쫑쫑 썰어 넣고, 시금치 삶아 넣고, 또 감자, 호박, 당근, 콩나물, 고사리 삶은 거, 찰옥수수 삶은 거…"

손가락을 펴서 하나하나 짚어보니 열손가락도 모자랄 지경이다.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그저 야채죽이라는데, 살짝 도는 불그스름한 빛깔과 구수함의 원인은 무엇일는지.

"그게 된장을 살짝 풀어 그려. 많이 풀면 떫으니까 쌀에 물 붓고 색깔만 돌게 조금만 넣는겨. 일곱 식구라 하면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넣으면 딱 맞아. 야채는 쌀알을 만져봐서 반쯤 익었다싶을 때 넣는데, 살짝살짝 볶아서 넣고 팍팍 끓이는겨. 그리고 된장하고 소금으로만 간해야하네. 조미료는 일절 안 되는겨."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보니, '된장야채죽'에 깃들여진 정성에 다시 한 번 감복이 되고도 남음이다. 수련회 때마다 정성이 담긴 죽 공양을 선사하는 할머니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된장야채죽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동치미의 비법 또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 표정만으로도 심보를 척하니 읽어낸 할머니가 흔쾌히 동치미강좌에 응한다.

"우선 두 가지여. 오래 두고 먹을 건 통무로 하는데, 금방 먹는 동치미는 무를 나붑나붑하게 썰어 소금에 살짝 절여 놓는겨. 무가 팔뚝만한 게 2통이면 소금은 한 움큼만 끼얹어서 이틀을 놔둬. 그러면 폭 절면서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생기거든. 그때 양파랑 대파를 넣고 물을 붓는겨. 하룻밤만 지나면 먹을 수 있재."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미역죽과 된장야채죽, 그리고 오만 망상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동치미, 그것도 모자라 그 맛의 원인을 꼼꼼히 짚어준 할머니가 스승만 같다. 지도스님은 원인과 조건으로 맞물려가는 연기와, 몸과 마음의 실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르시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랴. 그 대신 공양주할머니와 죽과 동치미의 실체와 원인, 조건만큼은 조목조목 따져봤으니 그것만으로도 황송한 행복이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❾



침향 '숙결' '충루' '생결' '탈락'으로 등급

<본초강목>에는 침향의 등급을 매기는 방법을 침향의 생성 원인 별로 각각 숙결, 충루, 생결, 탈락 4가지로 분류해 소상히 설명해 놓았다.

그 중 가장 좋은 품질 등급인 숙결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생성된 것으로 가장 향이 좋고 약성도 뛰어나다. 숙결로 생성된 침향은 자연 상태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숙성이 완료된 향으로 최고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그 다음은 충루 등급. 충루는 자연적인 풍수해나 흰개미의 공격, 해충들의 공격으로 인해 몸통부분에 상처를 입어 생긴 수지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침향이다. 충루 등급은 해충 등에 의해 심재 부분에 구멍이 생겨난 것을 수지가 그 상처 부분을 감싸며 생성된다. 그래서 보통 침향의 모양이 보다 얇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 생결은 침향 나무에 드릴 등으로 인공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수지생성을 유도해 침향의 수지를 얻는 방법으로 인공재배로 생산되는 침향은 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탈락은 말라 죽은 나무에서 수지가 나와 굳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필자가 확인한 결과 고서에 적힌 내용과는 좀 다르다. 실제 침향은 침향나무가 생존해 있을 때 생성되고 침향나무가 죽게 되면 침향수지 생성이 중단된다. 그래서 탈락이라는 분류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능인향당 연구진의 연구 결과 침향나무가 죽으면서 제대로 생성되지 않은 침향의 수지는 숙성은커녕 그 때부터 나무 및 침향수지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향은 점점 퇴화된다. 그런데 침향수지 보다는 나무의 분해속도가 빠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침향수지의 농도가 점점 짙어져 보일 수 있는 것을 마치 죽은 상태에서도 침향수지가 생성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

능인향당 연구실에서도 이점을 확인 한 바가 있다. 수지 생성이 완성되기 전에 죽은 침향나무 수지로 선향을 만들어 본 결과, 충분히 수지가 나와서 조건을 다 갖춘 침향으로 제조한 침향 선향은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더 숙성돼 향이 좋아지고 그윽해지는 반면, 이런 탈락 침향의 수지로 만든 선향은 더 이상의 향의 숙성이 없었다. 그래서 향이 퇴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덜 삭은 목질부분에 의하여 좋지 않은 향이 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다.

결론은 죽은 상태에서 수지 생성이 완성되기 전의 침향은,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오히려 자연분해되는 과정이 우선이고 결국 그것은 가장 중요한 향과 약성의 조화가 깨진 본래의 침향과는 거리가 먼 그냥 덩어리라는 이야기이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처음에 침향 선향의 생산을 시작했을 때 각 침향을 등급별로 생산했는데 그 중 탈락 등급의 침향은 시간이 갈수록 향이 퇴화됨을 확인했다. 그냥 내놓는다 해도 뭐라 할 이는 없지만 스스로 약속한 바 진실한 공양용 향을 만드는 것이기에 용납지 않았다. (02)3663-6777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❹ 두통과 어지럼증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집착·성내는 마음에서 발병… 두뇌밸런스로 치유

 # 항상 머리가 무겁고 때론 어지러운 증상

요새는 날씨 탓인지 사회분위기 탓인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눈에 띄게 많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는 이명 현상을 겪는 대부분 환자들은 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병원상 어떤 검사로도 그 원인이 정확히 시각화되지 않는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인데 답답할 노릇이다.

두통의 종류는 크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일차성 두통의 경우 특별한 원인은 없으나 긴장이나 신경성 원인들로 인해 편두통이나 뒷골 등이 당기는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며, 이차성 두통은 비염이나 어떤 외상 혹은 기질적 이상 등으로 인한 두통이다.

 #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병의 원인

<유마경(維摩經)>에서는, "병이 생기는 것은 모두가 나라는 집착에서 기인한다. 전도된 생각이 마음의 커다란 병이며 반드시 이것을 떠나야 한다"고 해 놓지 못하는 집착에 대해 경계한다.

<불설불의경(佛說佛醫經)>에서는 병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열 가지로 얘기한다.

"사람이 병을 얻는 것은 열 가지 인연이 있는 것이니 첫째 오래 앉아 있기만 하고 밥을 먹지 않으며, 둘째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으며, 셋째 근심과 걱정을 하며, 넷째 피로가 극도에 달하며, 다섯째 마음껏 음탕하게 놀며, 여섯째 성을 내며, 일곱째 대변을 참으며, 여덟째 소변을 참으며, 아홉째 상풍(上風)을 제지하며, 열 번째 하풍(下風)을 제지하는 것 등이다. 이 열 가지 인연으로부터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제시하는 병의 원인을 정리해보면 사람의 집착하는 마음과 근심, 성내는 마음, 음탕한 마음, 사람의 성품, 그리고 제 때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등과 이러한 조건들이 발병한 때(계절별)의 환경에 따라 근원을 달리해 병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이는 곧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스트레스와 잘못된 음식습관 등과 같은 맥락이다.

 # 두통과 어지럼증의 원인과 치유

심리적으로는 예민하거나 만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된다. 육체적으로는 첫 번째 자율신경계를 조율하는 대뇌가 불균형해 지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불균형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정상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기에 만성두통을 유발한다.

두 번째 소뇌 기능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거나 운동을 거의 안하고 너무 지나치게 과로한다거나 하게 되면 결국 뇌기능 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좌우 뇌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은 당연한 증세이고 후각의 예민함이나 울렁거림, 땀이 나거나 춥거나 하는 등의 증세까지 생긴다.

이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어느 한 가지만 해결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심신의 불균형을 조절해 본인이 지닌 심리적 기질과 스트레스 원인 분석을 통한 마인드 힐링(mind Healing) 치유, 한약과 침 치료, 뇌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이어테라피(ear therapy) 등을 겸비해야 한다. 기혈 흐름을 조절하고, 오감자극 치유법 및 간단한 훈련을 통한 좌우 뇌의 밸런스와 소뇌와 평형기관 자극을 통해 양쪽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 항진된 소뇌 기능을 정상화시킨다.

이어테라피는 순수한 물리학 원리에 따라 효력이 발생된다. 가벼운 압력(굴뚝효과), 불꽃이 움직이면서 이어캔들(ear-candle)에서 발생되는 진동파는 고막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준다. 이 원리를 통해 발생하는 따뜻한 온도는 귓속과 앞 이마, 비강을 억누르는 압박감을 해방시켜 쾌적감을 북돋아준다. 치료하는 동안에 신비스러울 정도로 긴장감이 풀린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무거운 머리,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날 때 가볍고 즐거운 세상에서 건강한 삶은 계속될 수 있다. (02)576-7575 (계속)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바라오페라단 08년 정기연주회

22일 中大 아트센터서 '화음'

'하염없이 아낌없이 온화한 여정 속에 육바라밀을 행한다.'

바라오페라단(단장 귀영)은 12월 22일 저녁 7시 30분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 바라오페라단 송년음악회를 연다. 불교방송 가릉빈가합창단(회장 구옥희, 김정남)이 찬조 출연해 세속의 희로애락을 20여 곡에 달하는 불법의 하모니로 전한다.

바라오페라단은 실력있는 젊은 음악가들의 진취적이고 섬세한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일반대중들은 물론 음악애호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국내 정상급 오페라단이다. 사찰과 산사음악회 현장에서 공연하며 불교음악문화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가연숙 기자**



이정재 · 김소연 · 소유진 등 대거 출연
12월 24~28일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

연극 '햄릿'으로 뭉친 동국대 출신 연예인의 아름다운 보현행

이정재, 김소연, 소유진, 전혜빈, 남성진 등 동국대 연극학부 출신 연예인들이 모교 발전기금 모연을 위해 연극 '햄릿'으로 뭉쳤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으로 400년 넘게 각광받으며 욕망으로 인한 행위가 미치는 인간 존재의 윤리와 자아 충돌을 파헤친 '햄릿'이 12월 24~28일 단 5일간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선보인다. 방송 연예계 활동으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스타 배우들이 '모교사랑'을 화두로 회합한 특별한 만남이다.

대학 발전기금 모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는 이번 공연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결실이다. 이들은 12월 9일 가진 제작발표회에서 "공연 수익금 가운데 1억 5000만원을 동국대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출연진 전원은 개런티 없이 작품에 참여한다. 새로운 방식의 선진적 기부형태인 도네이션(Donation) 문화를 제안하게 될 이번 공연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교 발전을 위해 개인의 능력을 기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연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색다르다. 자연적인 요소 '물'을 통해 은유와 상징으로 색다른 연극언어를 선보인다. '물'이라는 상징적인 도구를 통해 배우들의 피부에 닿았을 때의 육체적인 체험은 심리적 정신적 감정으로 극대화 된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독백과 어머니에게 호소하는 장면에서는 무대 위에 비가 내리고 오필리어가 물에 빠져 자살하는 장면에서는 불교의 해탈을 표현한다. 현실에 드러나는 심리묘사를 극대화 시키는 장치로 활용될 '물'은 종교적인 의미로 끊임없이 인물들을 정화하며 연극무대가 지닌 제한된 한계를 실험한다.

신영섭 예술감독(동국대 연극학부 교수)은 "햄릿을 정화의 의미로 접근하고자 한다. 복수극은 셰익스피어가 극작한 당시 유행하던 맥락인데 그것이 햄릿에게는 복수, 어머니에게는 욕정, 왕에게는 사랑으로 비춰진다. 이 모든 욕망과 분노를 정화하는 장치가 바로 '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젊은 감각으로 접근한 연극 '햄릿'이 시각 효과와 조명 그리고 압축된 대사와 어울려 마치 영화를 감상하는 느낌을 전달"할 것이라며 "관객과 교감하게 될 상상력의 묘미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햄릿 역할을 위해 영화(기방난동사건) 홍보 이외의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연습에 매진하는 이정재는 물론 오필리어 역할의 김소연, 소유진, 전혜빈의 3인3색 연기도 볼거리다. 소유진은 "2달 넘게 쉼 없이 오필리어를 연구하고 연습했다. 점점 더 배역에 충실해지려고 노력중이며 관객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싶다. 배우가 지닌 성격을 최대한 자제해 정숙하고, 사랑스러운, 순수한 오필리어에 충실한 인물로 호흡하려 한다"고 전했다.

연극 '햄릿'은 이해랑예술극장의 개관 축하공연이기도 하다. 동국대는 연극학과 교수를 역임한 故 이해랑 교수의 뜻을 이은 이해랑연극재단(이사장 이방주)이 기부한 20억 원으로 이해랑예술극장을 개관했다. 특히 '햄릿'은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효시로서 故 이해랑 선생에 의해 1951년 국내 최초로 연출됐으며 1989년 그의 마지막 연출작이다.

인간이 지닌 한(恨)의 정서, 복수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잔인한 살인을 둘러싼 복잡한 철학적 사색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연극 '햄릿'. 겹겹이 층을 이룬 각종 상징들은 비밀스럽고 복합적인 인간 감정을 백 마디 말 보다 더 절묘하게 표현하며, 강렬한 긴장감과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잔상과 감동을 동시에 남길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품은 결코 언어로 한정할 수 없는 무한 감동이 이번 작품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석 5만원 (02)2260-3671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윤이상 작곡상 음악회 대구 수성아트피아서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현대중공업, 울산대학교가 후원한 'USP 쳄버 오케스트라 초청 국제 윤이상 작곡상 기념음악회'가 12월 21일 오후 5시 대구 수성아트피아 무학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윤이상 선생(1995-1917)의 'Rencontre(1986)'와 '현을 위한 '융단(Tapis pour cordes, 1987)'을 비롯해 지난해 대상 수상작인 중국 작곡가 왕린 작곡(Lin Wang)의 'La…de la mémoire -sihoūettn fur sechzehn Înstrumente'가 연주된다. 윤이상평화재단은 국제 윤이상 작곡상을 널리 알리고 그 수상 곡을 소개해 국제적 수준의 음악창작과 재생산에 기여해왔다. 이 콩쿠르는 2년 마다 개최되며 2009년부터는 윤이상의 작곡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의미로 그 명칭을 '국제 윤이상 작곡상'으로 변경한다. 전석 1만원 (02)723-0364

가연숙 기자

불교중앙박물관 전시공고 '僧-위대한 구도자'展 등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08성보박물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전시 계획을 공고했다. 백양사, 해인사, 월정사, 용주사, 통도사 박물관장 및 학예실장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성보박물관 연보 제작과 2008년도 전시 및 2009년도 전시 계획, 現 성보박물관 실태 조사, 성보박물관협회 발족을 위한 안건이 주제에 올랐다.

종단 산하 성보박물관의 현황과 활동을 결산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2주년을 기념해 '僧-위대한구도자'展을 열기로 밝혔다. 승보(僧寶)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승단으로서 대중을 교화하는 역할로써의 참 의미를 스님의 출가에서 입적까지 유물을 통해 조명하는 전시다. 뿐만 아니라 '돈황벽화 모사'展은 내년 7월 중순 전시로 예정됐으며 벽화의 대가들이 선보인 모사도 60여 점이 전국을 순회한다.

한편 12월 19일 11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박물관협회 주최로 '종교박물관'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불교를 필두로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 박물관과 대학 박물관 등 총 30여 박물관이 참여한다. **가연숙 기자**





울등보살 불등거사 <26>

구성 : 김흥인



참깨를 볶아서 심은 사람 [백유경(百喩經)]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깨를 날로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 그래서 깨를 볶아 먹었더니 매우 맛있어 볶아서 땅에 심어 키운 뒤 맛난 것을 얻는 것이 좋겠다' 고 생각했다. 그래서 깨를 볶아 심었으나 볶은 참깨에서 싹이 날 리 없었다.
세상 사람도 그러하다. 보살로서 오랜 겁 동안 어려운 행을 닦다가, 그것이 즐겁지 않다 하여 '차라리 아라한이 되어 빨리 생사를 끊으면 그것이 차라리 쉽겠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처의 결과를 구하려 하던 것이 끝내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것은 저 볶은 종자가 다시 날 이치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다.

옛 판화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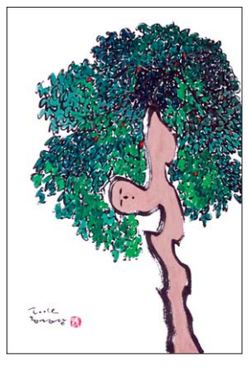
불도징이 신이한 행적을 보이다
도징신이(圖澄神異)



고판화박물관소장 〈선씨원류(鮮氏源流)〉중 도징신이(圖澄神異)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고승 불도징이 폭군 후조왕 석륵을 감화시켜 그가 무슨 일이든 반드시 자문을 받아 행하며 스님을 '대화상'으로 존중했다는 본문 내용을 왕과 함께 나란히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도징은 중앙아시아 쿠처(龜玆: 庫車) 출생, 중국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에 활약한 승려로 불도등(佛圖澄), 부도징(浮圖澄)으로도 불렀다. 북인도 카슈미르 등지에서 수학, 310년 뤄양(洛陽)에 이르러 여러 가지 신이(神異)한 행적을 보이며 불교의 덕을 넓혔다. 뒤에 북방 민족을 통일한 후조왕(後趙王) 석륵(石勒)의 신봉(信奉)을 얻어 고문이 되고, 군정(軍政)에도 참여해 그의 패업(覇業)을 도와 더욱 신임을 얻었다. 이어서 석호왕(石虎王)에게도 깊은 존숭(尊崇)을 받아 역내(域內)의 절에서 조정(朝政)에 참여했다. 폭군이던 석륵과 석호를 교화시켜, 그때까지 허용되지 않던 한인(漢人) 출가를 허락하도록 힘썼으며, 문화 수준이 낮은 북방민족을 교화해, 불교를 민중 속으로 펴나가는 데 공헌했다. 38년 동안 893개 절을 건립, 중국 초기불교 발전의 중심이 됐으며, 수백 명의 문하생 가운데서 도안(道安), 축법태(竺法汰), 법화(法和), 법상(法常) 등 동진(東晉)시대를 대표하는 승려를 배출했다. 본문에 '영가 연간에 낙양에 유각했을 때 석륵이 하북 지방에 군대를 주둔시켜 백성들을 죽이는 것으로 힘을 뽐냈다. 불도징은 그의 군영을 찾아 미리 전쟁에서 길흉을 결정해 주니 석륵은 도징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에 도징은 석륵을 교화해 부처님을 받들게 하고 학살을 줄여 형벌을 면제케 했다' 고 한다. 공포에 떨던 백성들이 불도징이라는 활불에 의해 죽임을 면하고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다.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의 마음을 부처님의 감로수로 바꿔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한 조사스님의 역할이 그리워진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우담바라의 꽃은 피고…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6월에도 피고 7월에도 피더니
올 봄에 활짝 피었다 진, 진달래가
다시 꽃을 피웠다.

아~ 저 꽃은 무슨 일로
지금 다시 피어있는가
홀로. 피었는가…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 30,000원)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鄒陽學會 會長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자안내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의식처 조성의의.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백발백중「구단구궁법」
저자 법화스님 직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직업,성격, 명운 척척 들어 맞춘다.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과거 10년, 미래 10년을 꿰뚫는다.
◆ 2주 완성
당신도 2주후 『최강자』가 될 수 있다.
부산자비원 051)554-6040
010-9399-7442

제대로 만든 사주프로그램
명리보감
命理寶鑑
정확한 용신
정확한 만세력
사주, 육효, 대정수, 자미두수
양택풍수, 궁합, 작명, 택일
고객관리, 해외출생자사주
제품구성 :
정품CD, USB락, 사용설명서, 명리보감책자
www.goodcycle.com
Tel. 02-3472-5933
H.P. 010-9273-5850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퇴마 심령 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부인병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나쁜기운을 빼면 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각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건강 · 역학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심신 평생 무병 건강법
구궁 당주역 간편 비법
건강도원 신불정사 무구 합장
☎052)264-8183
011-855-8180

북한, 조선족여성보호센터
㊣ 어려움에 처한
북한, 조선족 여성
보살펴 드립니다
070-7769-848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30년 전통 역학 특별지도
① 특별개인지도 3명 선착순
② 재택수업 30명 장애불자무료
③ 백여권저서와 창교주.종정지도
④ 후계자. 종단임원.
불사인연 기다림
010-2693-7712 합장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보 살 선 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도서관 추진위원회
010-7625-4455

참선기도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단 몇분만 모시겠습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청강사
016-9506-5706

부전소임을
원합니다
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9204-0040

지리산 무각
큰스님을 찾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윤사장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며 운명직전인
한 신도님이 꼭 뵙기를 청하오니
빠른시일내로 연락주십시오 - 보현
010-5262-5545

경북지역 천년
고찰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27-06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광주 남한산성
011-212-9810

비구니 스님 되실분
(초보자 교육해줌)
평생 서울시내 사찰에서
생활할수 있음
나이제한 없음
010-7262-3338
서울시내 사찰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아름답고 좋은 서해 바닷가 절
(조선족 원함)
041)673-2333
011-289-4174

비구니 사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40-50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향림사
053)854-21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 원함)
▷정릉
02)917-3363

조그마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과
처사님 모십니다
(1종 면허소지)
055)863-4143
011-392-6885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유경험자 우대)
▷김해
010-4580-2323

공양주
(노보살님도 가능)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산지역>
011-9917-22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송파동
010-3088-31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041)836-50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 ~ 60대 이하)
▷포항 대보면
054)284-8954,8924
011-521-8924

공양주 보살님
종무원 모십니다
(숙식가능자)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경남
010-5698-8769
055)275-5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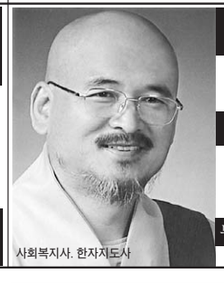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 ~ 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주간반 · 야간반(월요일 7시부터 10시 까지) 정규반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힘을 세게하는 초능력요법 탄생
● 세계 최고의 염력과 천기를 운용. 생명에너지 발생(31년간 연구)
● 정신병, 관절염, 당뇨, 위장병, 오십견, 신경통, 두통, 탈모증, 신병 (아주간단히치유 무료체험)
● 모든 운동선수(골프, 야구, 역도, 축구.....)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분 상담
● 병원치료로 효과가 없는분 무료상담
광명사 氣 연구소
054)974-4788 / 010-9554-5149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어떠한 문제점도 28숙 기도로 다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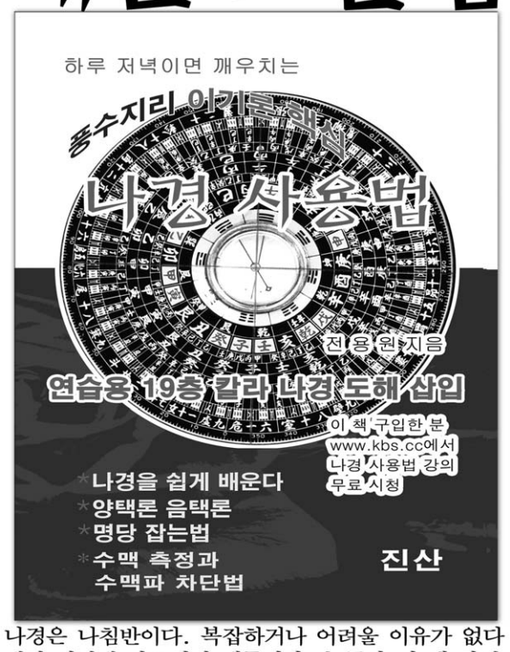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출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괜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울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 주문전화: 1688-1137 한국역학협회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룡척도 있습니다

육갑납음풀이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오행육갑 납음속에서 가장 단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갑납음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궁금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내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총판 : 법우당
02)994-4437~8

왜 「효사육임복변집」(좌정용) · 「효사육임산책」(휴대용)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완결판" 이어야 하는가?

아무나 흉내낼 수 없고, 흉내내서도 안되는, 고복자 효사만의 적중도와 효과성을 제고시킨 쉬운(易) 활용서이기 때문이다.

▣ 위 신간 「복변집」 · 「산책」 · 「천역집CD」 교환대상 특별 조건

1. 지난 2000년부터 2008년 8월이전에 발간 판매된 鼓卜子曉史 저술 각종 육임학습 · 활용서 전부를 대상으로 함.
2. 입금 · 반품 확인 후 교환신청 도서 발송함.
3. 기존 육임서 구입가격의 고 · 저가를 불문함.
(예 : 육임래정비법 30만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250만원 모두 동일하게 해당 됨)
4. 특히 「효사활인천역집Ⅲ」 CD교환은, 락키 · CD 반품 수령후 1:1 방식으로 「완결판」을 교환 발송함.

▣ 효사 육임CD 활용 프로그램 (임상용)

●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CD	450만원	● 효사육임산책 CD	25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CD	100만원	● 효사숙사주 CD	70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 CD	100만원	● 월영도 CD	50만원
● 매화역수 CD	50만원	● 도사에게 물어봐 CD	50만원
● 활인상담 길흉성부단정 CD	50만원	● 효사 육임 학습강의 CD (96개)	80만원

한 국 육 임 학 회 www.taotemple.net 총재 고복자 효사

서울본회 02-833-8683 담당 : 임근홍 (우리1002-037-559214 정용철) 부산지회 051-908-8683 담당 : 진민경 (농협 121059-56-023257 진세리)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위치 : 강릉부근
● 법당 : 24평	● 법당 : 28평	● 법당 : 20평
● 요사 : 24평	● 요사 : 28평	● 요사 : 30평
● 부지 : 560평	● 부지 : 167평	● 부지 : 480평
● 가액 : 6억	● 가액 : 10억	● 가액 : 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망좋은 바닷가	● 위치 : 양산시내(5분거리)
● 총 대지 : 약 2700평	● 대지 총평수 : 52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법당(와가) 25평
● 요사채 20평+10평+10평	● 요사채(2동) 50평
● 바다전망 최고,사찰 뒷편 산(공원)	● 도량주변 산세,풍광 최고
● 텃밭 300평	주차장 및 마당넓은 절
● 양도가 : 9억	● 양도가 : 6억5천만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소재
● 부지 : 400평
● 법당,요사 : 컨테이너 2동 설치
● 가액 : 2억 2천만원
● 특징 : 토목공사 정기 상수도 공사 완공 1억 2천만원 소요됨 산밑에 위치한 명당터로 주지스님 신변관계로 급히 양도코자 합니다

● 위치 : 경남 창녕읍 소재
● 부지 : 800평(종교용지)
● 법당 30평(목조 단청)
● 요사 2동 80평
● 기타 : 종각, 석탑, 석등
● 가액 : 3억5천만원(2억까지 융자가능)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서울 010-5828-04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7백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50-4899
053)522-6487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흥룡부락 해발 300고지
● 도선국사가 점지한 흥룡도강형의 명당 육관 손석우씨가 세번 찾다가 못 찾은 터(천장비지)
섬진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경관
● 대지:1,247평(사찰터와 묘자리가 같이 있음)
● 평당 : 8만 5천원(절충가능)
011-9310-6780

대사찰급 안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1-1번지
● 자연환경: 일월산 밑 칠성봉에 대미륵불 발견 천년생 약수터 전면에 하천 주변은 칠보석 암벽지대
● 조성환경:대지2700평을 토목공사 완료 고급관상수 와 약재목 식재 골프잔디밭, 칠보석 축조된 연못,사원내 포장도 심야전기 난방 40미리수도관
● 사찰규모: 대웅전 70평,요사채 90평,산신각 8평 기타건물 3동 불연성건물 별장같은 사찰을 안내합니다. ● 가액 : 6억원
● 대 미륵불 계신 임야 11000평 무상증여합니다
011-538-221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3층건물중 2층
● 총평수 42평(법당,방2개,공양간)
●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즉시법회가능(꼭 하실분만 연락)
011-506-2282
053)759-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천호동 15분거리
대도로변 50m 야산접
● 대웅전, 지장전
● 동굴산신각, 요사채 및
폐도로 2000평 점유
● 가액 : 10억원
010-9164-1253

포교당 안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2)887-2138
010-7104-484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방 3칸, 시설비 약간
답사 후 절충
● 전세 2,000만원
02)934-3352

포교당 안내

● 위치 : 온양 역세권
(도심 포교원)
● 가액 : 임대보증금+
시설비포함 = 2,100만원
월 35만원
● 시설 A급, 포교원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0-2220-4144

사찰 전세 및 양도

● 위치 : 서울 평창동
● 대지 : 221평
● 법당 36평, 천불전 25평
산신각 6평, 종각 6평
건평157평(실평210평)
요사채 지하1층 지상 3층
● 전세 : 7억, 매매 : 30억
010-5004-3935

도심(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평수 : 110평
● 법당 : 약60평, 삼존불(동불),
불단, 삼성단(원목)등
● 요사 : 약50평,방3개,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 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
바다에서 나오는 생수(용궁)
● 대지 252평, 전 800평(임대)
● 법당 (목조신축) 12평
요사채 황토기와집, 거실,
부엌, 방 5개(등기필)
● 조립식 1동,감나무,밤나무,
매실100그루
● 가액 : 1억 3천만원,전세가능
018-406-30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 총 2123평
(종교부지165평)
●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양도가 : 2억 3천
010-5430-39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2천만원(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사찰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선바우산 소원바위 절터
● 평수 :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
● 대한민국 최대 와불의
산이 있고 산세 수려함
문의전화 011-822-0347
010-9258-3459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내
● 평수 62평
● 삼존불, 탱화 등
모든 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보증금1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2074-93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 평수 : 약50평
● 보증금 : 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 삼천만원
● 즉시법회 모든시설 완비
010-5364-0038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이전관계로 양도함. 등기 337평
● 한옥토굴 27평 방 2개
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가액 : 7,500만원
010-8868-9407
054)673-6496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평수 56평, 법당, 방 3,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6739-64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 총대지 약 407평
● 법당1, 요사채2, 주방 거실,화장실
● 가액 : 9천 8백만원
● 집기,비품필요하신분 별도 양동함
시설비 2천2백만원
011-439-90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60-2번지
소요산 지하철역에서 3정거장 소요
4차선 대로에서 2분. 산밑 앞이 트임
● 대지 350평, 임법당 50평
● 주차 여러대 완비. 텃밭 용이
전원주택 토굴로도 가능
● 즉시 입주 가능
● 전세 : 5,000만원
011-9128-20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구 달서구(두류산 뒷편)
● 3층건물중 2층 30평(주차편리)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 2개 주방시설,
● 보증금 300만원 월30만원
모든시설 1500만원
(답사후 호조건 절충가)
● 즉시법회,시설완비,
역학하실분 가능
● 종단가입 사찰등록 무료알선
011-520-8525

포교당(급)안내

● 부천역에서 도보 약 15분
● 특징 : 3층건물중
2층 80평.시설A급 신도 많음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전세도 가능
● 금액 : 상담후 절충
사정상 급매
010-8264-7000

사찰운영(동참) 하실분 모심

1. 위치 : 경주
2. 규모 : 사찰건평 350평
3. 신도 : 약 2000명
4. 약간의 재력이 있는
처사, 보살, 대 환영
010-7249-0377

임법당(사찰 수준급)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읍 중심가
● 평수 : 50평, 10대 주차 공간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용왕탱화 지장보살 후불100불
● 모든 시설 완벽,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1-402-1664
033)661-2915

포교원 안내

● 위치 : 천안시 신부동
● 도로접. 2층 건물 중 2층 독채
● 평수 : 25평
● 삼존불, 보증금 100만원, 월20만
시설비 400만원(즉시법회가능)
010-9282-5885
010-7121-588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중심가
지하철 도보로 5분거리
● 평수 : 20평, 임법당 외 방 3개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답사후절충가능)
※스님 공부 관계로 시설비 저렴하게 드림
● 무속인, 역학인 가능
010-4303-1694

사찰부지안내

● 위치 : 해운대구 반여동
산 139-8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66㎡
● 가액 : 4억 5천만원
주인직접 010-9242-26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 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용왕당 각 1평
요사 3채 75평
● 가액 : 1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1-9571-171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진주 사천경계지점
● 법당 요사채 산신각 용왕당
● 부지 : 800여평
● 특징 : 대작불사할수 있는
최고의 도량
● 가액 : 5억
010-3670-4412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심리
산 580-4번지
● 총평수 : 임야550평
● 가액 : 3,000만원
010-5777-479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 방2칸, 공양간,
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238-39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경북도청부근
대구역,중심가 3분거리
● 평수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보증금 2000만원, 월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5층 스님실 25평 포함
- 월 45만원 추가
● 구조 : 최신건물 A/V有. 아미타 삼존불
● 지장,삼성,신중,사천왕탱화, 500인등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0-9598-9117

사찰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대구 근교
● 대지 : 568평, 건물 3동(가건물)
● 특징 : 계곡접, 저수지
노송 풍수, 수려함
● 교통 : 대구시에서 20분거리
성주대교 7분거리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
017-804-1234
053)627-12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원주시 문막읍
버스정류장 신호등사거리앞
● 2층 약 30평
● 삼존불, 각 탱화, 집기,
생활도구일체
● 교통편리, 유동인구 많음.
즉시법회가능
● 운명 감정하시는 스님,
법사, 보살님 환영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7-274-08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부지 : 370평	● 대지 : 90평
● 법당 : 10평	● 법당 : 18평
● 요사 : 5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권 시내
● 평수 : 대지 400평 ● 내용 : 법당, 요사채, 창고
● 특이사항 : 주위가 대형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둘러쌓여 포교적지임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1-269-909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기장대변입구 주공 아파트앞
2층 건물중 2층 옥상사용
● 평수 : 35평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7223-5677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제물포앞 4층 3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 절충가능
010-4773-147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탄방동 ● 평수 약40평
● 법당1 작은방1 주방 마루
● 휴식공간 황토및원목으로 지은집
고가구의 토속적 실내외 건물
● 포교당과 찾집으로 적합
●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011-2243-9776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법당 25평
방3, 욕실, 주방
● 아미타 삼존불, 집기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 2000만원
010-4662-10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대지 120평
● 건물 임법당 20평, 후원채따로 있음
방4개 아미타삼존불. 집기일체양도
● 가액:1억1천만원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 평수 : 4천평 ● 가액 : 3억원
● 법당, 삼존불, 시설완벽함
물좋고 산세수려한 기도처, 명당
010-4547-0023

지리산자락에 공부하기 좋은땅

찾는분 연락바랍니다
● 평당 5만원 1500평
010-2020-5742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5>
(修習止觀坐禪法要)

제8장 각지마사(覺知魔事) ④

마군과 부처의 경계는 평등한 하나의 모습

或作種種好惡之音聲 作種種香臭之氣 作種種好惡之味 作種種苦樂境界 來觸入身 皆是魔事 其相衆多 今不具說 擧要言之 若作種種五塵 惱亂於人 令失善法 起諸煩惱 皆是魔軍 以能破壞平等佛法 令起貪欲 憂愁 瞋恚 睡眠等諸障道法 如經偈中說

欲是汝初軍 憂愁爲第二 饑渴第三軍 渴愛爲第四 睡眠第五軍 怖畏爲第六 疑悔第七軍 瞋恚爲第八 利養虛稱九 自高慢人十 如是等衆軍 壓沒出家人 我以禪智力 破汝此諸軍 得成佛道已 度脫一切人

앞에서 말했던 귀신마와 천자마는 퇴척귀 마군을 두고 말한 것이다. 갖가지 좋고 싫은 음성을 조작하기도 하고, 갖가지 냄새의 기운을 조작하기도 하며, 갖가지 좋고 싫은 맛을 조작하기도 하며, 갖가지 괴롭고 즐거운 경계를 조작하기도 하는 등 다섯 종류의 경계로 찾아와 사람의 몸을 감촉하는데 이것이 마군의 일이다.

마군의 일은 그 형상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금 모두 설명하지 않겠다. 요점만 말해본다면 오종 경계를 조작하여 사람들을 뇌란시키면서 선법을 잃게 하고 번뇌를 일으켜 생사에 유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마군이 평등한 불법을 파괴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과 근심과 성내는 마음과 수면 등을 일으키게 하여 도법을 장애한다.

평등법은 여래의 설법이고, 평등하지 못한 법은 외도 천자마가 지배하는 것이다. 가령 탐욕과 근심과 성내는 마음 등은 평등하지 못한 법이다.

마군에 대해 경전의 게송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욕구는 너의 첫 번째 마군이고, 근심은 두 번째 마군이며, 목마르고 배고픔은 세 번째 마군이며, 목마르듯 탐애하는 것은 네 번째 마군이고, 수면은 다섯 번째 마군이며, 공포는 여섯 번째 마군이고, 의심과 후회는 일곱 번째 마군이며, 성내는 마음은 여덟 번째 마군이고, 이익과 헛된 명성은 아홉 번째 마군이며, 잘났다고 뽐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것은 열 번째 마군이다.

이와 같은 여러 마군들이 출가인을 짓누르는데, 출가인은 선정지혜의 힘으로 마군을 꺾어 조복받아야 한다.

마군은 비록 수행인을 놓아주려 하지 않으나 수행인은 마군이 도달하지 못한 처소에 이르게 되면 바로 위없는 정각을 성취하고 청정하여 걸림없는 실상의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

이로부터 동체 대비심을 일으켜 대자비심과 두려움 없는 정신으로 일체미혹하고 전도되어 고뇌 받는 중생을 광대하게 제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불도를 성취하고 나서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였다.

서로 버리고 취하는 마음이 끊어진다면 마군의 경계에서도 불도를 깨우치게 돼

行者旣覺知魔事 卽當卻之 卻法有二 一者修止卻之 凡見一切外諸惡魔境 悉知虛誑 不憂不怖 亦不取不捨 妄計分別 息心寂然 彼自當滅 二者修觀卻之 若見如上所說種種魔境 用止不法 卽當反觀能見之心 不見處所 彼何所惱 如是觀時 尋當滅謝 若遲遲不去 但當正心 勿生懼想 不惜軀命 正念不動 知魔界如 卽佛界如 若魔界如 佛界如 一如無二如 如是了知 則魔界無所捨 佛界無所取 佛法自當現前 魔境自然消滅

앞에서는 마군의 일이 발동했을 때 물리치지 않는다면 마군에게 미혹과 혼란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 설명했고 여기에서는 마군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 밝히고 있다.

마군을 물리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지 수행을 닦아 물리치는 방법이다. 외부에서 찾아온 일체 감정을 위배하고 순종하는 모든 마군경계를 보면 그것은 허망하여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근심과 공포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취하고 버린다는 마음도 내지 말아야만 한다. 오직 마음이 적연하면 마군은 스스로 소멸된다.

그 예를 들면 천태지자대사가 천태산 정상에서 수행을 할 때 마왕이 대사의 친척권속과 사랑하는 부모로 변하여 찾아왔다. 대사는 그것이 마군의 경계임을 알고 오직 실제의 이치를 깊이 사념하고 공적한 경지에 마음을 안주하여 일체가 모두 허깨비의 변화임을 통달하여 본래 보는 바가 없었다. 그랬더니 오래지않아 마군이 물러났다고 한다. 이는 온전히 지 수행으로 모든 마군을 물리친 경우이다.

두 번째는 관 수행을 하는 것이다. 지 수행을 해도 물러나지 않으면 즉시 바라보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야만 한다. '보는 자는 누구이며 보이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관조하면 존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 안과 밖으로 찾고 구하여도 끝내 얻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마군이 수행인을 뇌란시키겠는가. 이와 같이 관 수행을 하면 오래지않아 마군이 사라지게 된다.

이 몇 구절의 의미는 특히 주의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마군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령 지지부진하면서 마군이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과 의식을 전실되게 해야만 한다. 사대가 본래 공적하고 오온은 주재자가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고 한 생각이라도 두렵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한다.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행 정진하여 정념이 요동하지 않아 사견과 정도를 통달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군과 부처의 경계가 하나의 이치로 여여함을 알고 하나가 여여하면 두 가지가 여여하여 평등한 하나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마군의 경계라고 해서 버릴 것도 없고 부처님 경계라고 해서 취할 것도 없다면 불법은 자연히 목전에 나타나고 마군의 경계는 스스로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사견이 정도를 간섭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에 정도가 환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경지에 이르면 설사 마군이 찾아와 뇌란시킨다해도 마군의 일을 빌려서 불가사의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마군이 바로 청정 본연한 법계여서 마군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부처의 경계가 나타난다. 이 둘은 분별심일 뿐 실제 이치에선 상대적인 차별이 없다. 이처럼 마군과 부처의 경계에서 버리고 취하는 마음이 끊어지면 부처가 없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본성이 상주한다. 그 때문에 불법이 자연히 목전에 나타나고 마군의 경계는 스스로 소멸한다고 하였다.

알아야할 것은 중생들은 모두가 취하고 버리고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마군의 뇌란을 받아 생사에서 해탈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마군이 외부에서 찾아와 사람을 뇌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허망한 분별심으로 자신을 뇌란시키는 것이 된다.

만일 마음속에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마군과 부처가 하나로 여여한 경계라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한다면 마군의 경계에 나아가서 도를 깨우치게 되는데 이것을 근본법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옹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5) 연기즉공무아(緣起卽空無我)

'아함경'에서는 십이연생의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원시사상은 인생론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주론은 인생론 가운데 한 부분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아함경'에서는 우주론에 대해서 따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양철학의 특징은 하나의 절대법을 마음밖에 따로 건립하여 일체제법을 생기한 근원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수립한 '십이연생론'은 자기 생명이외의 객관적 우주의 실체를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중시되는 것은 일체제법을 일으키는 상호관계성과 그 요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책임소재가 자신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서양철학과 크게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유정들의 삶은 최초의 일념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상호동시적인 관계성속에서 단절하지 않고 상속 유지될 뿐입니다. 불교의 이와 같은 인연관이야말로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살피지 못했던 오묘한 이치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세간이 생기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절대적인 주재로서의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조론(神造論)'을 펴기도 하고, 또 어떤 학파에서는 물질이 진화하여 인류로 발전하고 그 인류가 다시 진화하여 마음과 지혜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유물론(唯物論)'을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세간의 실상을 십이연기로 설명하여 그 곳엔 어떤 주재자도 없는 무아라고 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절대신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또 '무명'으로부터 '행'이 일어나고 '노사'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우리의 내적인 인식활동을 따라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유물론도 아닙니다.

객관의 사물을 실체로 집착하는 유물론자들은 창조신을 부정하고, 또 이와는 반대로 유심론자들은 우주창조주로서의 절대 주재자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연생론은 유심연기론(唯心緣起論)일 뿐입니다. 이 점이 불교가 위대하게 부각되는 가장 특징적인 사상입니다.

세간연기의 실상이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신이나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도 바로 자신의 내면적 반조를 통해서 이 세계는 무엇을 따라서 일어났고, 그 세간은 다시 무엇을 따라서 소멸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유심연기'로서의 인연생기이기 때문에 바로 현실목전의 당체에서 자성이 공적한 연기즉공(緣起卽空)으로서 중도(中道)의 이치일 뿐입니다.

■정리=張如舟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북종선에서 남종선으로 주도권 교체 거사들 역할 커

<24> 선사(禪師)문하의 거사들(5)

수년 걸쳐 진행된 활대 무차대회 남돈북점 기치 성립
왕필·장만경·송정·왕유·장설 거사 신회 선사에 귀의



신수(神秀)-보적(普寂) 계통의 북종선(北宗禪)이 제도(帝都)로부터 위세를 떨칠 때, 남방에서는 같은 동산법문(東山法門) 출신인 혜능(慧能) 선사 문하로부터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대거 배출됐다. 그 가운데 제도로부터 혜능 선사의 남종선(南宗禪)을 선양하는 계기를 만든 이가 바로 하택신회(荷澤神會) 선사였다.

신회 선사는 출가 이전에 유가와 도가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이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3세 출가 후에는 형주(荊州) 옥천사(玉泉寺) 신수 대사 문하에서 3년 동안 북종선을 수학했다. 때문에 신회 선사는 북종선을 깊게 이해하고 있었다. 대족(大足) 원년(701) 신수 대사가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칙명으로 입경한 이후, 신회 선사는 남하해 조계(曹溪)로 가서 혜능 선사의 제자가 됐다. 신회 선사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왕유(王維) 거사의 <능선사비(能禪師碑)>에 "신회 선사가 만년의 혜능 선사를 만나 중년에 이르기까지 도(道)를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비록 늦게 혜능 문하에 들어왔지만, 혜능 선사의 입적시까지 시봉해 혜능 선사의 십대제자의 반열에 들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혜능 선사의 남종선을 크게 선양한 이는 바로 신회 선사다. 근대에 돈황(敦煌) 사본(寫本) 가운데 최초로 신회 선사의 저작을 발굴하고, 수차례에 걸쳐 그에 대한 교감(校勘)을 진행하여 편찬한 호적(胡適) 선생은 <신회화상유집(神會和尙遺集)>에서 신회 선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혁명가, 인도선(印度禪)의 훼멸자(毁滅者), 중국선의 건립자, '가사전법(袈裟傳法)'이라는 위조의 역사를 건립한 자, '서천이십팔조(西天二十八祖)'의 위사(僞史)를 최초로 세운 자, <육조단경(六祖壇經)>의 소재를 최초로 제공한 자, 역사를 조작해 혁명의 무기로 사용한 최대의 성공자가 바로 신회 선사이다."

이러한 호적의 평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체로 신회 선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다. 이러한 신회 선사의 활약은 당연히 그 배후에 선사를 지지한 영향력 있는 사대부 거사들의 작용이 있어 가능했다. 따라서 신회 선사에게 귀의한 거사들에 대해 살펴본다.

혜능 선사 입적 후, 개원(開元) 8년(720) 신회 선사는 황제의 명령으로 남양(南陽) 용흥사(龍興寺)에 주석했다. 이때 그곳의 태수 왕필(王弼)과 현령 장만경(張萬頃) 거사의 귀의를 받아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했고, 남양지방의 교화를 크게 일으켰다. 왕필과 장만경의 구체적인 행적은 분명하지 않지만, <신회어록(神會語錄)>에 두 거사와 신회 선사와의 문답이 보인다. 거사와 선사의 문답을 볼 때, 두 거사의 불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사들의 지지는 신회 선사가 남종선의 선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것으로 짐작된다.

개원 21년(733), 남양지방으로부터 비롯된 북방의 관료사대부 거사들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신회 선사는 활대(滑臺; 현재 河南省 滑縣) 대운사(大雲寺)에서 '무차대회(無遮大會)'를 개최하며 신수 · 보적의 북종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과 '육조현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기에서 신회 선사가 주창한 논리는 바로 "사승(師承)은 방계(傍系)이며, 법문은 점수"라는 것이고, "혜능 선사의 남종이야말로 달마~혜가계 남천축일승종(南天竺一乘宗)의 참다운 계승자"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선사는 달마 대사가 법통의 신물(信物)로서 '가사(袈裟)'를 전수했고, 그것이 혜능 선사에게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이러한 신회 선사의 주장은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달마-혜가계와 도신-홍인의 동산법문이 교류했다는 역사적 근거는 현재의 사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법통의 증거라는 '가사'도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활대의 '무차대회'의 사정은 독고패(獨孤沛) 거사에 의해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에 자세히 기록됐다. 이는 돈황에서 발견된 <신회어록>에 게재돼 있다.

독고패 거사의 서문에는 "제자는 신회 화상의 법회에서 화상과 숭원법사(崇遠法師)가 여러 이치들을 두고 논쟁하는 것을 보고는 이 책을 지었는데, 개원 18~20년(730~732)의 3년 동안 그 의론이 확정되지 않아 책을 완성시킬 수 없었다. 의론하는 바가 모두 다르니 이제 개원 21년에 논쟁한 내용을 발췌해 한 권으로 묶는다"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보자면 활대의 무차대회는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됐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유명한 '남돈북점(南頓北漸)'의 기치가 세워지고, '남종'과 '북종'의 대립이 발생했다.

천보(天寶) 4년(745), 병부시랑(兵部侍郎) 송정(宋鼎)은 신회 선사를 청해 낙양(洛陽)의 하택사(荷澤寺)에 주석하도록 한다. 이로서 세상에서는 '하택(荷澤) 선사'라고 호칭하게 됐는데,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실린 선사의 전기에 따르면, "천보 4년 양종, 남종의 혜능 선사의 돈교와 북종의 신수 대사의 점교[南能頓宗北秀漸教]를 획정하고, <현종기(顯宗記)>를 찬술해 세상에 성행했다"고 한다.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신회 선사는 낙양의 하택사에서 매달 법회를 열어 대중을 위해 설법하되 청정선(淸淨禪)을 타파하고 여래선(如來禪)을 세웠고, 조계(曹溪)의 요의교(了義教)가 낙양 전역에 퍼지고 하택의 돈오교리(頓悟教理)를 온 천하에 성행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찍이 신수 · 보적의 북종선에 귀의했던 수많은 거사들이 다시 신회 선사에게 귀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왕유(701~761) 거사는 본래 북종의 신수 · 보적 선사에게 귀의했지만, 신회 선사가 낙양에 머물자 신회 선사에게 귀의한 열렬한 남종선의 예찬자다. 왕유 거사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유마힐(維摩詰) 거사'를 추종해 호를 '마힐(摩詰)'로 했다. 개원 9년(721)에 진사에 합격하여 벼슬이 감찰어사(監察御使), 고부랑중(庫部朗中)의 고위관직을 역임했다. 무엇보다도 거사는 선시(禪詩)로 유명하다.

거사의 시 세계는 북종선을 추종했을 때와 남종선에 귀의했을 때의 시경(詩境)이 상당히 달라 흥미롭다. 예를 들면 거사의 전기 작품인 '향적사를 지나며[過香積寺]'라는 시에서 가운데 "해질녘 사람 없는 못 가에서, 편안히 선정에 들어 독룡을 제압한다[薄暮空潭曲, 安禪制毒龍]"는 두 구절이 있다. 이 구절에서 '독룡(毒龍)'이라는 망심(妄心)을 '안선(安禪)'이라는 점수(漸修)의 수단으로 '제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수심간정(修心看淨)'을 제창한 북종선의 사상적 자취가 엿보인다.

거사는 40세에 신회 선사를 만났다. 그 이후의 작품인 '조명간(鳥鳴澗)'이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사람은 한갓진데 계수나무에 꽃이 떨어진다. 밤은 고요하고 봄 산은 적막한데, 달이 뜨니 산새가 놀라서, 봄 개울에서 때때로 우는구나[人閑桂花落, 夜靜春山空, 月出驚山鳥, 時鳴春澗中]."

이 시는 사물의 움직임과 소리로 오히려 공적한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동(動)'과 '정(靜)' 속에서 생명의 율동을 포착하고 파악해 표현한 것이다. 한 없이 광활하고 고요한 가운데 명월이 홀연 떠올라 천지에 은근히 빛을 뿌리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으니 오히려 이에 스스로 '두려운" 산새가 움직인다. 산새가 "봄 개울에서 때때로 우는[時鳴春澗中]"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운치를 이룬 표현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견심(見心)" 혹은 "견성(見性)"의 묘제(妙諦)를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한다. 이는 명확하게 '명심견성(明心見性)'을 제창하는 남종선의 품격을 느끼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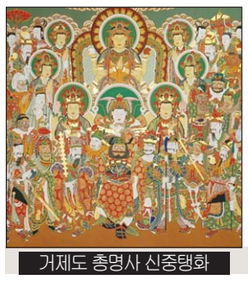
북종선의 절대적인 지지자였으며, 신수 선사의 입적 후 <대통선사비(大通禪師碑)>를 찬술했고, 세 황제를 모시며 30여 년간 대정(大政)을 맡았던 장설(張說) 거사 역시 신회 선사가 낙양에 머물자 신회 거사에게 귀의했다. 특히 거사는 신회 선사의 '무념(無念)' 설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신회 선사와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에 따라 당시 사대부의 고위관료 사이에 '무념' 설법이 크게 유행했다.

이렇게 왕유, 장설 거사와 같은 고관들이 신회선사에게 귀의하자 수많은 사대부 거사들이 줄지어 신회 선사에게 귀의했다. <신회어록>에는 예부시랑(禮部侍郎) 소진(蘇晉) 등 당시 고위관료들의 이름이 20여 명이 등장하는데, 그들과의 문답은 불교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수준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사대부 거사들의 귀의는 신회 선사의 '육조혜능현창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했고, 결국 '남종선'이 북종선을 밀어내고 제도불교의 주류를 이루게 했다. 더욱이 '안사(安史)의 난'이 발생해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신회 선사는 이른바 '향수전(香水錢)'을 모아 군비(軍費)를 돕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펼쳤다. 난이 평정된 후 공적을 인정받은 신회 선사는 숙종(肅宗)의 귀의까지 받았다. 결국 남종선이 중국 천하를 석권한 계기가 됐음은 당연하다. 당시 제도불교에 있어서 북종선과 남종선의 주도권 교체에는 거사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엿보인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공 고

大韓佛教傳統 曹溪宗 전 총무원장 능인

성명 : 이상용 법명 : 능인
성명 : 이규상 법명 : 해일

상기 2인 스님은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헌종법에 의거 총무원장직을 박탈하고 영구제적 되었기에 이를 공고함

중앙연수원장 : 법 전
교 육 원 장 : 지 도
호 계 원 장 : 해 봉
중앙선원장 : 명 등
원 로 회 : 지도스님 일동

2008년 12월 10일

중앙종회 의장 덕신 운암

공 고

◆ 법 명 : 법 광
◆ 성 명 : 이 재 복
◆ 승려번호 : 2546-1206
◆ 사 찰 명 : 대원정사
◆ 소 속 : (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 직 위 : 대원정사 주지
◆ 주 소 :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상기인은 본 종 대원정사 주지직을 수행하면서 본종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승려로서 풍기를 어겼기에 본 종 징계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1일자로 제적 하였음을 공고함.

불기 2552(2008)년 12월 1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징계위원회 호계원장 용 암



우주 삼세가 그대로 공해서 문이 없도다!

순간순간이 정진이 되려면

질문: 정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스님께서,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공부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정진으로 항상 이어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냥 생활선법(生活禪法)이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모든 것을 그냥 내 주인이 그렇게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주인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해라. 이런 것이 참선입니다, 그냥.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여건에서 세 가지 단계로 내가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발견을 못했으면 진짜 공부를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저녁에 남이 다 자고 조용한 틈을 타서 한 30분이라도 앉아서 '이놈아, 네가 너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을 해 주느냐?' 이거죠. '당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만이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똑바로, 직속 들어가는 관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좌선도 되지만 그게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 못했을 때 지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살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 한해선 특히 더하고, 스님네들도 역시 그렇고요. 우리가 이 도리를 발견하려면요, 첫째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다 거기서 나오고 빚어지는 거거든요. 뭐, 관습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굴려서 놓아야 떨어지죠. 거기에서 예전에 살던 그 습성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하거든요. 그걸 한번 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습성이 다 떨어지지 못하면 인정을 못해요, 하늘에서. 한울 중심에서 인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열쇠를 받지 못해요. 그걸 해인(海印)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통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인과의 습성, 인연들과 살던 그 습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대로 자꾸 하지 말고 한번 굴려서 놓되, 그 마음이 분기해서 탁 나오더라도 안으로 상대방을 생각해라 이겁니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언제나 내 생각으로써 나의 기준으로써 잣대를 삼지 말고, 한번 내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돼 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 습성이 차차차차 없어지죠. 그리고 둥글어지고 둘로 보지 않게 되고, 그래야 빨리 그 몸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천도재상에 음식을 놓지 않는지?

질문: 다른 절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보면 돌아가신 이를 위해서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왜 선원에서는 음식을 차리지 않고 초와 향, 꽃과 과일에 둥근 떡만 놓는 것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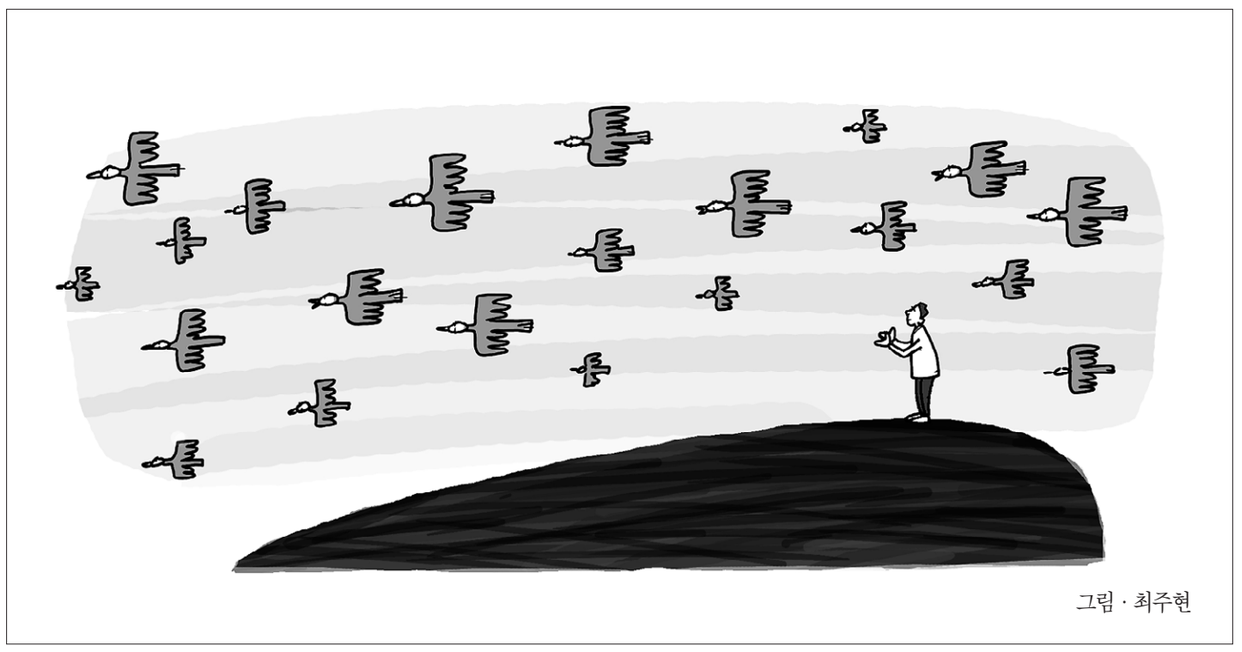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변: 천도재를 지내는 데 왜 반찬도 밥도 안 해 놓고 그러느냐? 이거를 말씀하신다면 이 떡은 그냥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라 우주를 삼키는 떡입니다. 그 떡 하나에는 모든 일체 생물이 다 들어 있는 떡입니다. 그것은 모든 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밥상을 놓고 반찬을 차려 놓는다면 앞서 살던 습이 도로 성한단 말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집을 원하는 거, 자기 몸뚱이 아끼고 이러는 것이 그냥 다 합쳐져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식이 감동해서. 그러니까 그 의식을 벗기기 위해서 안 보이는 데서는 설법을 하고 보이는 데서는 그런 뜻으로써 상을 차려서 그렇게 해서 그 의식이 다, 모든 것이 멸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안팎에서 지내 주는 거죠. 안과 밖을 다 그렇게 해 드리고 또 자손들도 이 공부를 하니깐 자손들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사를 지낼 때 그렇게 안 차려 놓는 원인은 영령들이나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일을 나갔다 하더라도 떡 가게에다가 전화해서 맞춰서 놓고 저녁에 일하고 퇴근하고 오다가 그거 찾아 가지고 와서 지내면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떡은 전체가 먹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이나 초나 뚱그런 떡이나, 사람이 식구가 많으면 셋을 놓고 지내고 나눠 먹고 또, 적으면 하나만 놓고 하고. 하나가 삼백 개도 될 수 있고 백 개도 될 수 있고, 백 개가 하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영령들은 체가 없기 때문에 위패를 해 놓는 원인이 거기 있죠. 거기에 응접을 해야만이 아시니깐요. 그래서 이 우주떡이라는 것이 말로만 우주떡이 아니라 우주의 삼세가 다 들어 있는 우주떡입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실이나 모두가 현실의 한 떡에 들어 있다는 뜻을 보이지 않는 데서 설합니다. 그냥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 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영령들을, 조상님네들을 다 이렇게 리드해 보세요. 집안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상님네들도 마음이 흥락해서 좋으니까 가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마음 하나가 천지를 건지는가 하면 마음 하나가 천지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공법(空法)이라야지 그냥 법이라고 한다면 잘되고 잘못된 걸 딱 따져서 이거는 지옥으로 보내고 이거는 천당으로 보낸다 이런다면 부처 될 자격이 없죠. 왜냐? 그 잘못된 사람도 본래 잘못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망이 때린다 하더라도 일깨워서 사람 되라고 해 줘야지 그 말과 뜻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건지는 거고 저래도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살아 있을 때에 너무 뱀을 많이 잡아서 먹었다, 개구리를 많이 잡아 먹었다, 이런 사람들 가끔 내가 봅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뱀이 꼴리듯이 그렇게 죽는가 하면 그 뱀에 자기 모습을 수없이 또 만들어 놓습니다, 새끼들을 낳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 모습을 언제나 벗겠습니까, 또. 생략해서 뱀으로만 얘길 했는데 전후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살생하지 말라. 깨치지 못한 사람은 살생하지 말라. 깨친 사람은 살생을 해도 살생이 아니고 건지는 거다. 만약에 깨친 사람이 소를 건질 때에 소고기가 들어온다고 그것을 안 먹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한 점 먹어서 만약에 소가 환토가 된다면 그건 의당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사지내고 천도시키고 하는 데에 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한 번 한다고 해서 뱀의 허물을 그냥 벗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통해서 많이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해야, 많이 들고 나면서 이런 거를 알아서 차차차차 그것이 벗어나게끔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단박에 부처님도 건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건져 주기만 하면 뭘 합니까? 뱀의 습이 있어서 자꾸 글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뱀의 습을 벗어 주기 위해서 그 차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해라. 꼭 안 죽이면 안 될 때는, 닭이나 뭐라도 안 죽이면 안 될 때 그때는 주인공에다 맡기고 해라. 그러면 자기는 죽인 사이가 없고 안에서도 죽인 사이가 없다. 왜?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없다' 는 뜻을 아십니까? 반야심경(般若心經)에도 있듯이 하나도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어요.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모두가 고정된 게 없어서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했다고 하죠. '우주 삼세가 그대로 공해서 문이 없도다.' 하는 셈이나 같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배우는 것은 배우려고 무조건 무심으로 그냥 묻고 질문하고 이러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걸 따지고 이걸 따지고,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내 탓이니 네 탓이니 하는 거는 공부하는 데 아예 지름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이고 싶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질문: 저는 항상 좀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남이 잘되면 같이 기뻐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알면서도 좀 고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요?

답변: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걸랑 '시기 안 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으세요. 또 즐

☞26면으로 계속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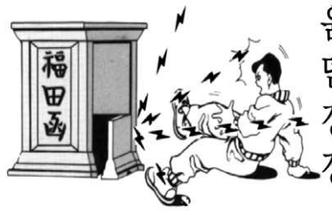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제 8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 초급반(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반(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반(3개월) :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특 수 반 :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살풀이 연화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 · 목 오후 3시 ~ 5시
본원은 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근기에맞는 스님들을모시고 여법하게봉행하여 드림.
전통범음범패전수원 원광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buddhanews.com

나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잘라서 먹어 봐라!

☞25면에서 계속

거운 마음이 생기걸랑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해서 감사해!' 하고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거기다가 놓으세요. 이게 바로 똑 부러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거길 믿으면 스스로 잘되게 이끌어 갑니다. 댁은 그냥 어느 한 개체의 물건과 같은 겁니다. 로봇 있죠? 로봇에게 어떠한 물건을 움직이게 할 때는 시키는 누군가가 단추를 눌러서 그 몸뚱이가 움죽거리듯, 지금 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잘 가게 해서 감사해!' 또, 어디가 고장이 났다 이런다면 '고장이 나게 한 것도 너니까 고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자꾸 해 보면 나중엔 힘이 생기게 돼요. 힘이 생기게 돼서 '허허,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한들 저쪽에 해로울 것도 없고, 잘될 것도 없는데 괜히 내 생각으로 해서 나만 괜히 그렇게 됐구나.' 하고 아마 뉘우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좋아도 거기에 감사하게, 또 나빠도 거기에 '네가 한 거니까.' 하고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랬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오신통이라는 그 작자가 바로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그 능력을 한데 합해서 그냥 컴퓨터라고 이름 해도 좋다.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다시 거기다 입력을 하니까 그릇이 비더라. 자꾸자꾸 그릇이 비고 또 비고 또 비고, 그러는 대로 자꾸 입력을 하니까 완전히 해말갛게 그릇이 비더라. 그래서 아주 밝게 자기라는 놈이 등장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거를 팔자 운명이라고 하고, 현실에 나오는 거를 되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팔자 운명이 붙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나고 그러는 것도 이게 알고 보면요, 몸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성 · 업보성 · 세균성 · 영계성 · 유전성입니다. 그것이 다섯 가지가 포함돼서 많으냐 적으냐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냥 병들어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해야 원수를 갚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기에 속아서 자꾸 그 마음을 나오는 그대로 쓰니까 힘들게 죽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팔자 운명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놓으면 그대로 만사가 태평입니다. 팔자 운명이 자꾸 없어지니까요. 팔자 운명이 없어지고 새 물로다가 그냥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하는 대로 현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할 겁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무조건 믿고. '화내는 것도 너 아니야? 화 안 나게 해!' 해도 좋습니다.

보시를 하려다 다른 데 쓴다면

질문: 스님께서 대중법회 중에 스스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를 해야겠다고 정한 보시금을 우선 급하니까 급한 데 먼저 쓰고 나서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보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건은 받고 물건값을 주려다가 다시 받아오는 경우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대통령도 자기가 만든 법은 지켜야 되는 것과 같은 도리로 비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되돌려 놓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 물론 돌이 아닌 까닭을 알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무명에서 벗어나서 여여하게 다스리고 구족(具足)한 사람들은 그것을 따질 필요도 없죠. 그러나 지금 배우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꼭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때에 따라서 어려워도 우리가 이건 참 감사하니깐 시주를 해야겠다 이러고 떼 놓지 않습니까? 떼 놓고 있다가 그 이튿날이고 언제고 이거 돈이 급해서 쩔쩔매다가 아이구, 어디 가서 꿀 데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서 꾸어 쓴다 이런 생각으로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물건을 산 값입니다. 이 돈을 시주를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물건을 산 겁니다. 그럼 물건은 가져오고 물건 값은 도로 빼앗아 온다면 그건 그 물건 사 왔던 걸 도로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이나 내 삶, 부처님,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잘 알아서 정성껏 새 돈으로 바꿔서, 이건 정성이니까 미리 아예 이렇게 떼어 놔라 이래야지 무턱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집어서 이렇게 해 놓고 도로 갖다 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그것을 왜 그렇게 내가 일러 주느냐 하면 십 몇 해 전에 영등포에 사는 사람이 공업을 새로 시작을 한 사람인데 그저 요만한 하꼬방처럼 해 놓고서 사글세를 들어서 있으면서 먹고 살 양으로 무슨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 물건이 영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이그, 그냥 시주를 부처님 앞에 해 봐야겠다.' 그러곤 시주를 그때에 오만 원인가?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얼만지. 그래서 시주를 하려고 그거를 이불 갈피 속에다 넣어 놓고는 턱 나왔는데 아, 그 물건을 하는 데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다 보니까 그걸 도로 갖다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물건을 되찾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 물건을 그냥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돈 낸 것 그냥 다 줘 버리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와 가지고는 울고불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왜 시주는 했다 도로 빼앗아 갔어?" 이랬더니 "아이고, 애들 학교에 뭘 내는데 그걸 낼 게 없어서 그냥 쩔쩔매고 물건도 하는 데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그거 되면 바로 또 넣어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로. 이거는 부처님 법이 자체가 그대로, 그대로 법이지 절대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유가 거기 붙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경험을 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러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둘 아닌 관찰을 할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혜향(慧香), 즉, 마음의 혜향이라면 해탈향(解脫香)도 할 수 있고,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게 마음 그대로인데 이거 해 가지고 사는 것만 알았지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러니깐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일러 줬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그 무명 속에서 벗어날 줄 안다면 결국은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그 도리를 아주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아무 지장이 없을 테죠? 또 그렇게도 하지 않을 거고요.

문 아닌 문을 찾으려면

질문: 문 아닌 문을 찾되 문 아닌 문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찾는 것이며 그 문 아닌 문 안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몸뚱이로서는 문을 꼭 찾아서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음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마음이 나가죠?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 갔다 와 보세요. 어디로 나가야죠? 마음이 문을 찾아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야 될까요? 난 여기서 저 건너 내 방이 있는 데를 가려면 그냥 벽도 봇장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가지는데 말입니다. 저 건넌방 가는 것이나 지구 전체를 도는 사이가 같은 사이에요. 다른 우주나, 태양에, 또 다른 혹성에 간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생각 딱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몸속에서 수없는 입자가 만약에 벽도 없고 봇장도 없이 그냥 나간다면, 문도 없이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두고 '천백억화기 때문에 그걸 부처라고 이름했고, 공덕이라고 이름을 했죠. 공덕! '일산(日傘)의 공덕은 크고 작음도 없이 그렇게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자기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그 주인공이 문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이라야 되는 거지 딴 구멍은 없어요. 과거, 미래를 둘 아니게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문은 그 문밖에 없어요.

진리를 부르는 이름이 다른 이유?

질문: 화두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교라고 생각됩니다. 큰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인공을 잡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선방에서는 '이뭣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어떤 선지식은 '내가 누구인가?' 했고 또 어떤 이는 '내가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깨치신 분들마다 화두의 표현이 다른 것을 볼 때 이는 무슨 도리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 같은데 표어가 다른 것은 시대나 법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 점에 대하여 여쭈고자 합니다.

답변: '이게 뭣고?' 하고 그 이름만 생각하고 직설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굴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건 '그대로 수박을 잘라서 먹어라.' 이겁니다. 그대로 수박을 잘라서 먹는다면 바로 영원히 먹일 씨도 나오고 또한 맛도 알고 그럴 테니까 '잘라서 먹어라' 이런 겁니다.

그 많은 이름을, 그 많은 공안을 다 놓고, 못 믿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깐 상대성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부처가 있는 줄도 알았지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없는 거 아닙니까? 무효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잘라 먹어 봐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공' 하면 전체 한데 합쳐진 주인공입니다. 개별적인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나 외부로나 모든 게 한마음으로 뭉쳐진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공(空)해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틀림없이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나무는 전체 뿌리를 믿어라. 네 나무는 전체 뿌리에서만이 너 나무가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 살 수 있다. 너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형성돼서 심부름꾼으로 있지 않은가.' 이런 걸 믿고 무조건 놓아라. 무조건 믿고 거기에 맡겨 놓아라 이런 겁니다. 맡겨 굴려라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있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름을 가지고서 굴리다 보면 십 년이 가도 그만, 이십 년이 가도 그만, 삼십 년이 가도 그만입니다. 먹어 봐야 맛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저런 이름의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벗어나서 그대로 믿고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으로써 나의 기준으로써 잣대를 삼지 말고

한번 내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돼 봐라

그러면 그 습성이 차차차차 없어진다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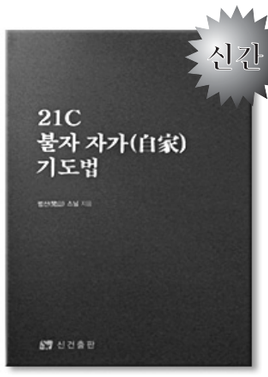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한국불교조계종 입종안내



한국불교조계종은 청정한 종단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화합종단입니다. 우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여 해탈 열반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탁마하고 수행정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인류평화통일에 동참합시다.

행자 모집합니다

■ **구비서류 :** · 주민등록 초본 1부 · 이력서 1부
· 사진 5매 · 사찰내외부사진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합장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문의 : 032)518-1588. 011-9524-8080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영남불교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 집 학 과	강 의 내 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화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중급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법 (대령,관욕,시식등)	수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전문반	짓소리,전통예능등 통합반	목	2시~5시	20명(1년)
작법무반	바라,나비,사찰학춤	금	2시~4시	30명(6개월)
국악기반	태평소,단소,대금 (영산회상,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6개월)

◆ 개 강 일 : **불기 2553년 기축년 양력 2월 3일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기숙승방 운영(선착순 우선):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s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 이수자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생명 나눔 실천 기금 및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 051)327-5095



불자 세상보기

이 광 헌
동국의대 정신과 교수

도박중독, 잘 대처하고 있나?

최근 도박과 관련된 유명연예인이 연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다. 거기에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거액의 인터넷 도박을 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2% 정도가 도박 중독인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4% 정도가 도박중독에 빠져있다는 보고가 있다. 도박 중독은 심각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도박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에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상태가 되면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도 도박과 관련해 쉽게 거짓말 하고 짜증이 늘고 심지어는 난폭한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최근의 여러 가지 연구들은 중독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닌 뇌질병임을 밝혀냈다. 인간의 쾌락이나 충동을 담당하는 회로가 선천적으로 부실하거나 어릴 때부터 잘못 형성된 경우 쉽게 중독에 빠진다는 설명이다. 쾌락을 담당하는 뇌는 특정한 자극이 들어오면 다량의 쾌락물질을 분비하고 다시 더 강력한 자극을 찾게 된다. 이 회로에 작용하는 도파민을 비롯한 여러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도박중독은 더 이상 마음이나 의지의 병이 아닌 뇌의 병인 셈이다. 물론 성격적인 요인도 있다. 늘 새로운 자극, 좀 더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는 탐닉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도박 외에도 술이나 약물 등 여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현실도피적인 사람들이나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범죄형 도박꾼, 정신질환으로 인해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도박이 더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는 더 커지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경우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도박에 투자한 돈 때문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또한 우리 사회가 도박을 부추긴 면도 없지 않다. 도박이 허용된 나라일수록 도박중독자가 많다는 연구가 있다. 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 출입 도박장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마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도박장 개설 허가를 원하고 있다. 소탐대실하기 십상이다.

과천이나 제주도에 가면 멀쩡하게 일해야 할 시간에 택시기사, 회사원, 영업사원 할 것 없이 자기 일 제쳐두고 경마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뿐인가? 경륜 경정 오락경마 바다이야기 성인오락실 인터넷게임 등 공식 · 비공식적인 도박은 우리사회에서 너무나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조문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야할 매스컴도 도박 분위기를 띄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도박 관련 영상물, 드라마가 넘쳐나고, 심지어는 미화하기까지 한다. 폭력이나 도박 등 좋지 못한 영상물을 보면, 내용이 아무리 권선징악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해도 결국 청소년이나 그런 것을 동경하는 사람에게는 뇌리에 새겨져서, 기회가 되면 그런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 학습이론가들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도박중독은 최근 의학의 발달로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많은 치료법이 개발돼 큰 발전이 있었다. 특히 약물치료 부분에서 일부 항우울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쓰이는 일부 약물이 도박에 대한 욕구와 갈망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환자나 가족이 스스로 다른 환자들의 도박중독 치료를 돕는 단도박 친목모임도 있다.

너그러운 어머니와 마음씨 좋은 아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자의 빚을 갚아주고 도박을 그만두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가족들의 행동은 마치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자식에 대한 애처로움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잘못 내 모습으로 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4 인내, 용서하는 자비에서 나온다

출가하겠느냐

결혼 생활 33년째가 되는 이씨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소문 나 있다. 비결을 묻자 “우리도 남들 겪을 일 다 겪고 살았어요. 그런데 의지할 것이 있었거든요.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견디게 해주는 단단한 버팀목이 있었어요”라고 답했다.

이씨는 어려서부터 불자인 어머니를 따라 항상 절에 다니며 컸다고 한다. 산중의 그 절에 한 큰스님이 계셨다. 아기 때부터 보아온 스님은 이씨를 딸처럼 자상하게 가르치고 이끌어주었다. 이씨는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갈 때마다 봉사했고 경전과 참선공부를 열심히 했다. “고등학생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스님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너 출가할 생각은 없느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씨는 깜짝 놀랐다. 절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한 번도 자신이 스님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었던 것이다. “스님,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있든 열심히 부처님 법에 따라 살 거예요.”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다. 이제 그 절에는 방학 때만 가게 됐다.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다 성실한 사람을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스님의 선물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던 날 스님에게 그 사람과 함께 갔다. “스님, 결혼할 사람이에요.” 스님은 반가와 하며 청년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 참 좋은 인연이구나” 그리고는 “내가 줄 것이 있으니 두 사람 좀 기다리시게” 하더니 다른 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스님은 오지 않았다. 이씨는 좀 걱정이 돼 ‘무얼 주신다고 할 때 사양할 것을, 괜히 어른께 누를 끼쳤나’ 싶었다. 염주나 경전을 주시겠지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았다. 왜 이리 오래 걸리시는지 걱정이 됐다. 한 시간도 훨씬 지났을 때 방문이 열렸다. “여기 있네, 결혼 선물” 하며 스님이 내놓은 것은 커다란 한지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온통 글씨였다. 종이 위에 참을 인(忍)자가 가득한 것이 아닌가. “인(忍)자만 108번을 썼네. 뜻을 아시겠나.” 이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스님은 “보통 인(忍)자를 참는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지. 그러나 이 글자에는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비심이 없으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나. 용서하지 않고는 진정한 인내가 되지 않는 법이야. 꼭 명심하게. 하루 108번이라도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게. 그럼 행복하게 잘 살 걸세.” 이씨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스님이 직접 써 주신 108번의 용서, 인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스님은 “결혼 축하하네. 이제 출가하는구먼” 하고 미소지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출가하는군. 그래, 출가해 수행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살라는 말씀이었다. 그 마음이라면 무엇을 못하랴 싶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그 108개의 인(忍)은 가보처럼 거실에 걸어두었다. “정말 수 없이 보게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애들이 속 썩이고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면 가만히 정좌하고 앉아서 인자를 떠올렸어요. 그럼 속상한 마음이 신기하게 가라앉더군요.” 그래도 화가 나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는 “부처님,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고 나면 가벼워졌다. 해마다 정초에는 부부가 스님에게 인사드리러갔다. 스님의 신년인사 말씀은 언제나 “인자 하나만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야”였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 이씨는 그 액자 안에, 글씨 안에 스님과 부처님이 계신다고 느끼게 됐다.

결혼 25주년이 되던 은혼식 때 스님에게 찾아갔다. 뜻밖에도 스님은 축하한다는 말 대신 “그래, 출가한지 25년이 됐구먼. 그동안 잘 정진해왔네”했다. 이씨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버렸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저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용서해왔는지 몰라요. 스님 말씀처럼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왔고, 처사와 시댁식구들, 아이들, 정말 용서, 용서, 인내, 인내의 세월이었어요.”

용서하고 인내하는 자비로 이루어진 이씨의 결혼생활은 아름다운 수행정진의 시간이었다. 부처님께서 “남의 잘못을 보면 예전 몰랐을 때의 내 모습으로 돌 아니게 보고 자비심을 내라”고 하신 것처럼, 서로 잘못을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인(忍)자가 우리 가정에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자비로 경제한파 극복을

어느새 거리에는 구세군의 종소리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진다. 한 해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유래 없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맞은 겨울은 몸보다 마음이 더 춥다. 증시의 폭락과 반등, 각종 사건사고 등 연일 우울한 뉴스만 듣는 심정은 몰아치는 삭풍보다 더 썰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추위보다 이웃의 추위를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시절이다. 해 저문 거리에서 언 몸을 구부리고 잠을 자는 노숙인과 의지할 곳 없이 외롭고 막막한 노년을 보내는 독거노인은 물론 졸지에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취업을 못해 불안해하는 청년들까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추운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삭막한 겨울을 훈훈하게 하는 소식이 있다. 불교계 복지단체들에 따르면 경제 한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과 이웃돕기 성금 등이 줄지 않고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기부문화의 정착과 관련단체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 등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기부도 늘어났지만 개인들의 소액 기부가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남의 어려움을 돌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개인의 소액기부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더불어 살려는 자비의 마음이 그만큼 확산됐다는 것이다. 올 겨울 불자들의 자비불심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더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주목하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잠재력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불교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유산을 창출해냈고 그 가치를 세계로 전하는 일이 당면 과제다.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템플스테이다.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 방황은 그침이 없다. 물질이 만능이 아니고 정신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그래서 서구의 학자들이 일찌감치 동양의 선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선불교뿐만 아니라 사찰에서의 생활 자체도 고도의 정신문화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인식되면서 불교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화전통이 웰빙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템플스테이는 정신의 휴식이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은 문화 아이콘이다. 거기에는 마음의 쉼을 통한 인간 근원에 대한 절실한 구도가 담겨 있고 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의 길이 있다. 또 만생명과 더불어 청정한 삶을 누리는 지혜를 배우는 길이기도 하다.

템플스테이를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불교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시도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세계적인 가치로 승화시키는 단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미나가 보다 많은 개선점과 제안, 새로운 아이템을 수확하기를 기대한다.

화제의 신간
新 토정비결
2009 년(己丑年) 천년 약속 평생운세
내 운명, 내 운세는 내가 본다!!
21세기 新개념의 평생운세! 토정식 백광비결

현대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실생활에 맞는 운세풀이로
결혼이나 재혼을 앞둔 남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법과
후천적인 운명의 행운을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 저술하였다.
역술학의 성전...
지금바로 펼쳐보십시오!!
白珖(백광) 지음 / 신국판 / 352쪽 / 정가 15,000원
전국서점 판매중!
21세기 新 개념의...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새 시대에 세계의 의학계를 선도할 '사주명리 한방처방학'이 드디어 출간, 세상에 나왔다!

전통 한의학과
음양오행학을 연결!!!
新 한의학 이론을 체계화!!
누구나 신개념의
한방처방이 한눈에 쏙쏙!
徐昇煥 지음 / 4×6배판 / 양장본 / 상권 880쪽, 하권 680쪽 / 각 권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비석도 없는 망국의 황자 이곳에 잠들다



초라한 의친왕의 묘(아래). 의친왕 묘를 지키는 입을 벌리고 있는 고석의 석호(위).

64 의친왕 이강·김수덕 여사의 묘

의친왕1877. 3.30~1955. 8.15(79세)
김수덕 여사 1881 ~ 1964(84세)

2008년 8월 9일, 전북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나주 임씨 고택 사랑채에서 도난당한 '금사정(錦沙亭)' 현판이 회수됐다. 이 마을 최모씨(65 · 여)가 나주 임씨 고택 대문 앞에 놓여 있는 현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훔쳐간 현판을 범인이 범행 장소에 놓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범행 흔적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이 현판은 고종 셋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李堈) 공의 친필로, 고택 주인 임광순(71)씨에 의해 도난 신고됐다. 이 현판은 임씨의 5대조인 증조부의 아호를 따 1919년에 건조된 사랑채에 가로 140cm, 세로 40cm 크기로 걸려 있었다.

의친왕이란 존재가 잠시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다. 영친왕이 묻힌 홍유릉 뒷편 한적한 끝자락에 위치한 의친왕과 왕비 김씨가 잠든 합장묘에는 비석도 안내판도 없다. 두 개의 망주석, 조그마한 혼유석, 장명등이 전부다. 홍유릉 관리소에 근무하는 친절한 청년의 안내가 없었다면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었다. 왕조의 최후는 이렇게 쓸쓸하다.

1955년, 의친왕은 한국전쟁의 참화 후유증으로 어수선한 중에 79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200여만 명이 죽은 난리를 겪은 후라 의친왕의 죽음을 챙겨 줄 세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유지에 가매장됐다가, 서삼릉 한 자락으로 옮겨져 방치됐다가, 왕비가 있는 이곳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홍유릉 뒷편으로 이장됐다. 의친왕의 5녀 이해경씨의 노력으로 1966년 부모를 한 곳에 합장했다. 왕조를 포기하고 독립을 위해 젊음을 불태운 왕조의 후예는 지금 세상의 관심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져 누워 있다.

"하루는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사동궁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의친왕이 잠들어 계신 서삼릉을 찾았다. 그러나 그때 나의 놀라움은 형용할 길이 없었다. 물론 추운 겨울 날씨 탓에 묘소의 주변이 삭막하게 느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서삼릉의 광경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아프게 했다.

그 당시 묘소에는 봉분이 두 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오른쪽은 아버지 의친왕의 묘였고, 왼쪽은 아버지를 낳으신 할머니 장귀인(張貴人)의 묘였다. 그리고 두 분의 묘 가운데 '장귀인(張貴人)'이라는 커다란 비석이 있었으며, 왼쪽 묘 앞에만 상석(床石)이 하나 있었고, 석등(石燈)은 세 동강이로 부러져 땅에 뒹굴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 묘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었다. 그 묘가 바로 의친왕의 묘라고 설명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묘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아무리 가매장(假埋藏)이라지만 모자(母子)를 부부(夫婦)처럼 같이 모시고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 義親王> 중에서 : 이해경 지음 1997년 6월 20일 발행, 도서출판 眞 .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 중국에 망명한 지사들은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 망명정부를 세울 궁리를 했다. 이상설, 신규식, 박은식 등은 신한혁명당을 만들고 민족 독립을 구심시키려면 고종황제를 망명시켜 받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의 외교부장 성낙형을 국내에 침투시켰으나 활동 중 발각되고 말았다. 하지만 고종이 아니더라도 왕족 중 누군가를 받들어 민족 구심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1910년대 독립운동의 특색이었다.

그 두 번째 시도가 고종황제의 셋째 왕자요 순종황제의 아우인 의친왕 이강을 상해로 탈출시켜 옹립하려는 대동단 사건이다.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인 1919년 11월 10일 아침, 당시 조선총독부 고위 경찰 간부 지바가 조선 귀족 감시를 맡고 있는 사복경찰관들을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하고 있는데 제3부 경위반주임이 다가와 귓속말로 정보를 전했다.

어젯밤 의친왕 이강 전하가 궁을 탈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밤 10시쯤 전하가 살고 있는 저택의 후문 경계를 맡고 있는 시시라는 형사가 키가 큰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중 하나가 전하 같아서 미행을 했는데 명월관 근처에서 놓쳤다는 것이다. 지바는 경위 하나를 보내어 왕족 감시 담당관인 이왕직의 구로사끼 사무관에게 전하가 집에 계시는지 여부를 확인시켰다.

구로사끼는 직접 찾아가 왕비를 뵙고 물었더니 아무 일없이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행여나 하여 내시를 시켜 결재서류를 들려 보냈더니 결재를 다음으로 미루셨다는 것이다. 결재를 미룬 것이 전하가 직접 나타나 한 말인가 누가 전한 말인가를 확인했더니 후자라는 것이다. 곧 전하를 직접 본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전하가 상해로 탈출해 독립 세력에게 업힐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지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하를 직접 뵙고 오라고 지시했다. 비를 만나 전하를 꼭 뵙게 해달라고 조르자 실토했다. '실은 어젯밤 전하는 집을 나가셨다'고. 중대사건이 벌어지고만 것이다. 즉시 경무국장으로 하여금 조선 전국은 물론 일본, 만주, 시베리아, 상해에까지 수배령을 내렸다.

탈출 당시상황을 회고하는 의친왕 비 김수덕 여사에 의하면, 당시 의친왕은 사동궁에 살았는데 사무관이 와 뭍길래 낮 12시까지 낮잠 자고 계시다고 사무관을 속여 탈출을 공모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명월관 지점 주인 황원균이라는 자가 경찰에 출두해, 기생들로부터 이강 전하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집히는 것이 있어 찾아왔다면서 어젯밤 전하는 명월관까지 왔다가 인력거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고 진술했다. 그 인력거 인부를 찾아 취조하니 공평동 빈집 앞에서 내려드렸다는 것이다. 그 빈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만주 단동에서 경찰정보가 날아들었다. 전하를 단동역에서 발견해 모 숙소에 연금중이라는 것이다.

지혜로운 어머니와 강단있는 조부 있었다면 달라졌을 삶
왕정복고 두려워한 이승만 정부에 의해 비참하게 살아

일본 경찰은 전하께서 전혀 탈출 의사가 없는 납치라는 쪽으로 몰아갔다. 전하가 돈에 궁한 것을 안 전라도의 한 부호가 남도에 있는 전하의 어장 어업권을 담보로 3만원을 빌려 드리겠다고 대리인이라는 이민하가 접근해 왔다. 이에 전하는 그 돈을 받으러 김삼복이라는 종 하나만을 데리고 명월관을 거쳐 약속장소인 공평동 빈집으로 갔다.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민하는 가방을 열어 백 원 뭉치를 보여드린 다음 지금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가셔야한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돈뭉치는 백 원짜리 한 장만을 위에 얹은 신문지 오린 쪽지로 판명됐다. 그 순간 빈 집에 숨어있던 5~6명의 청년이 권총을 들고 포위해 상해행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상은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통치비화>중 당시 고위 수사 책임자들의 비화에서 추린 것이다. 실은 어장 담보를 구실로 접근해서 상해 탈출을 모의해 실천을 약속하는 날에 공평동 빈집에서 만나 5~6명의 단원의 경호 하에 세검정 고개를 넘어 수색역에서 만주행 기차를 탄 것이다. 이민하는 전하를 상해에 모셔다가 망명정부를 세우려던 대동단의 우두머리 전협이다. 사실대로 전하가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전하를 법정에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3.1운동으로 민심이 사나워져 있는 당시 정국을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거기에다 왕족을 모셔와 중국 땅에 망명정부수립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국민이 알면 민심이 그리로 쏠릴 것이 자명한 일이기에 탈출이 아니라 납치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다.

강제 송환된 이강 전하를 여염의 살던 집에 두면 언제 탈출할지 모르는 일이라 연금시킬 궁리를 했다. 총독관저 구내에 녹천정이라는 작은 집이 있었다. 이토가 술잔치를 즐겨 벌였던 집으로 당시는 비어 있었다. 여기에 연금시켰다가 일본으로 이주시킬 작정으로 모든 공작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하가 끝내 거절해 일본행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강 전하의 생모인 장귀인은, 이은 전하의 생모인 엄귀인만큼 눈치가 빠르고 처신에 능하지 못했다. 두 분 다 귀인 시절에 고종의 사랑을 받고 민비의 질투를 받았는데 엄귀인은 그런 기미만 보이면 야음을 타고 아무도 모르는 여염에 숨어버렸다. 그러기를 10여 년 해 결국 을미사변으로 사랑을 쟁취하고 만다. 이에 비해 장귀인은 낳은 아들과 함께 궁밖에 쫓겨나 살다가 혹독한 린치 끝에 죽음을 당했다.

이강은 고아 신세가 돼 민비의 박해로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 자랐다. 성장해서는 엄귀인과 그녀의 소생인 이복동생 이은에 치어 유학이라는 미명으로 일본이나 미국에 가 고독한 젊음을 보내야만 했다. 미국에 유학했던 1903년 3월 1일자 '뉴욕 헤럴드'지는 의친왕이 놀라운 성명을 냈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조선의 왕자는 미국 시민의 자유와 독립심에 매료돼 그의 국내외에서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활동을 위해 왕국의 왕관 계승권과 왕좌에 관련된 어떤 권한도 포기한다'고.

이 신문 기사는 당시 의화군 곧 의친왕이 다니고 있던 대학의 여자학부의 활달한 학생 앤지 글라함 양과의 염문 때문에 왕권 계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미 그때에는 엄비 소생의 영친왕 이은에게 왕위 계승권이 결정돼 있었다. 고종을 닮아 무척 성격이 유약했던 그는 이와 같은 고된 환경에 단련돼 성숙하질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자포자기 끝에 주색에 깊이 빠져 방탕무뢰하다는 말도 무척 들었다.

그의 큰 아들 이건은 이렇게 아버지를 회고한다. "아버지는 생활이 문란하기는 했지만 암울한 천성은 아니었다. 일족 중에 머리는 명석한 편이었다. 만약 장귀인에게 엄귀인(엄비)만한 총명함이 있고 조부가 보다 강한 성격과 소신의 소유자였던들 아버지가 왕통의 계승자는 못되었더라도 꽤 다른 양상이 벌어졌을 것이다. 평생 주변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으나 오로지 생모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는 저녁 반주라도 할 적에는 심히 한탄하고 슬퍼했다."

광복 후에도 의친왕의 비극은 멎질 않았다. 왕정복고를 두려워한 이승만 대통령의 왕실 재산 국유화와 왕족을 천대하는 바람에 정부를 원망하며 등지고 살아야했고 1.4후퇴 때 부산에 내려가서는 돌봐주는 이가 없어 먹는 끼니보다 굶는 끼니가 많아 결국 그때 얻은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았다.

망국의 황자로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1955년 8월 15일, 서울 성북구의 별저 성락원(城樂苑)에서 79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능은 부황 고종황제의 능 홍유릉 내에 위치한 의왕묘(義王墓)이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한달 유지비 4,000원 (하루 8시간)
전자파 걱정 끝 초박형 보일러 타입
장수돌침대 만의 믿을 수 있는 A/S
2009년 신상품!
다년간의 연구끝에 숙면과학의 결정체 온수매트 개발!!
대·한·민·국·대·표·침·대 장수돌침대 ☆☆☆☆☆ 온수매트
첨단 고효율 PTC방식
"진짜 장수돌침대" 고객이 ok할때까지!!
이젠 바꿔야 합니다.
전자파 없는 잠자리로…
뜨끈~ 뜨끈 후끈~후끈!
별다섯! 장수돌침대, 기술력의 개가!
장수돌침대 온수매트는… 고객이 ok할때까지!!
"그 동안, 엄지간 파다정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로! 소비자 불신이 많았던, 매트! 저희 별다섯 장수돌침대 만큼은! 차별화된, 고품질로!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하나 순수, 물! 온수를 이용한, 한국형 매트!
둘 자체기술진의 숙면과학 실현! 전자파에 대한 걱정!
셋 초절전 기술로, 난방비 절약!
넷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A/S
난방비 걱정 끝! 전자파 걱정 끝!
1) 아직도, 그 비싼~ 기름값, 가스값을 낭비하십니까?
이젠, 보일러만큼 후끈후끈하게 때고도!
유지비는 훨씬 더 저렴한! 장수돌침대 온수매트에서 주무십시오!
2) 본인이 써보시고, 정말 좋다고 인정되신다면,
부모님께도 사드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사주십시오.
오로지 온수로만~
최고 80도!
그 위에, 가마에 구운
황토볼을 꽉꽉! 참숯을 꽉꽉 채워~
황토찜질, 숯찜질까지!
■규격 : 2인용 : 1450×2000
1인용 : 1000×2000
◀고급형
또 하나의 기술력!
온도감지! 안전전용퓨즈! 과승방지센서 등~
장수돌침대만의 7중 첨단안전기술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하게! 오래오래!
• 장수돌침대 온수매트는 100% 국산 자재와 장수산업기술력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품 주의)
※주의 : 타사인터넷 및 전시장 구입시 제품을 못받거나 A/S가 되지 않습니다.
장수산업 수상내역
고급형 2인용 248,000원 1인용 238,000원
www.onsu-mat.com
www.장수온수매트.com
(주)장수산업 온수매트 사업부
무료 전화 080-788-7878 농협 943-12-426130 조운성